

서울특별시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울시 중장기 청소년 정책연구

신경희

서울특별시청소년정책연구원

시 정 연  
2000-R-21

# 서울시 청소년 중·장기 정책연구

A Study on Youth Policy in Seoul

2000

 서울 시정 개발 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진

---

연구책임    신 경 희 • 사회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연구원    권 순 호 • 사회개발연구부 위촉연구원  
             김 소 임 • 사회개발연구부 위촉연구원  
             이 순 희 • 사회개발연구부 위촉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서울시의 청소년사업과 예산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수행의 지킴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청소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사회환경과 국내외 청소년 정책의 변화와 전망하에서, 서울시 청소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지킴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청소년 중장기 정책연구가 필요함.
- 서울시가 사회환경 변화와 세계, 국가의 청소년 정책 동향을 수용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청소년 정책 부문별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안함.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i) UN과 국가의 청소년 정책동향과 청소년 관련 사회환경 변화와 전망을 정리
  - ii) 서울시 중·고등학생 생활 및 문화복지 욕구 실태조사
  - iii)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소년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여가·문화, 경제, 보호·복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분석
  - iv) 청소년 관련 사회환경 변화와 전망, 실태조사, 서울시와 자치구 청소년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 v) 청소년 정책분야를 여가·문화, 경제, 보호·복지, 사회참여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한 후,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청소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부문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로 개선하거나 추진해야 할 사업과제를 제안
  - vi) 종합추진체계와 부문별 사업추진 계획을 제안
- 연구수행을 위해 문헌 및 기존 통계자료 조사, 행정기관 및 청소년시설 내부자료조사, 관련 공무원 및 시설 운영자 면담조사,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및 복지욕구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함.

## 2. 서울시 청소년 증장기 정책체계 및 기본방향

### 1) 정책체계

- 본 연구의 정책기간은 2001-2005년의 5년간으로 함.
- 정책부문은 1995년 UN에서 채택된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청소년 정책시행 10가지 우선영역을 기준으로 삼아, 본 연구에서는 여가·문화, 경제, 보호·복지, 사회참여 4가지 부문으로 구분 조정하였음.

### 2) 기본방향

- 청소년 관련 환경변화 및 세계의 청소년 정책동향을 고려하고, 국가의 「청소년 육성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을 수용하여 서울시 청소년 증장기 정책 기본방향을 다음의 4가지로 설정함.
  - 첫째, 청소년 자율성과 참여 증진
  - 둘째, 수요자와 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성장
  - 셋째, 네트워킹 중심의 열린 운영체제 지향
  - 넷째,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강화

## 3.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부문별 현황과 정책과제

### 1) 여가·문화

- 개방형, 자율형 이용시설을 선호
- 지역문화복지시설의 이용 가능성
-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으로 전환
- 옥외에서 함께 하는 프로그램 필요
- 능동적, 주체적 문화활동 희망
- 영화와 컴퓨터에 관한 관심 고조

### 2) 경제

- 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 대책 필요
- 소비생활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필요

- 직업, 진로에 대한 관심의 증가

### 3) 보호·복지

- 청소년 가출충동 및 가출경험의 심각성
- 가출청소년 문제는 가정문제로 접근
- 가출 후의 사회적 보호시설 필요
-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수준의 집단따돌림과 폭력 문제
- 폭력에 대한 무감각·무기력성의 문제
- 청소년 문제별로 전문상담서비스 필요
- 상담(실)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제고
- 사이버상담 개발의 필요성

### 4) 사회참여

-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고조
- 자원봉사 활동터전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 중요
-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 증대
-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이해확대의 필요성

## 4. 서울시 청소년 사업의 부문별 문제점과 과제

### 1) 여가·문화

#### ① 청소년 수련시설

- 사회 및 지역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책 미비
- 수익사업 치중으로 목적사업 약화
- 지역 네트워크 미약

#### ② 공부방

-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를 위한 1차지역거점시설로 활용 가능

#### ③ 사업 프로그램

-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사업 미비
- 프로그램 중복성과 단순

- 사업평가체계 미비
- 자치구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 배분
- 담당공무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의 문제

## 2) 경제

- 학생 아르바이트 대책의 전무
- 직업체험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미비
- 청소년 실업을 위한 종합센터 기능 미비

## 3) 보호·복지

### ① 보호시설

- 보호시설간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센터의 부재
- 민간 보호시설 활용 부진
- 의료 서비스 제공의 미비
- 직업훈련 및 구직지원 서비스 미비
-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 ② 상담

-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사업비 및 인력의 부족
-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의 운영 지침 부재
- 상담실 연계망 미비
- 사이버상담을 위한 준비 미흡
- 홍보 미비로 인한 상담 이용률 저하

### ③ 학교사회사업

-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사회사업의 한시적 운영

### ④ 비정규학교

- 비정규학교 및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의 부재
- 특화된 프로그램의 미비
- 학교별 차별화 지원 전략 부재

###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 관련 위원회의 개념 규정에 대한 정립 미비

-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간의 연계체제 미비
-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홍보전략의 부재
- 민·관의 감시단 활동 역할 분담의 미비

#### 4) 사회참여

##### ① 자원봉사

-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총괄기획기능의 부재
-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미비
- 홍보사업의 미비
- 정보사업의 미비

##### ② 정책참여

- 위원회 활동 가이드라인 부재

## II. 정책건의

### 1. 서울시 청소년 정책목표와 정책목표별 추진사업

#### 1) 여가·문화

##### ① 기존시설의 재정비와 역할분담

- 수영장을 포함한 대규모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 수정 검토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역 청소년센터로 위상 정립
- 사업주체별 프로그램 차별화 운영
- 구민회관 활용 계획 수립
- 도서관 활용
- 소규모 간이운동시설 설치

##### ② 네트워크 강화

-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협의회 활성화
  - 공부방 협의회 구성 지원
  - 지역 연합 협의회 구성 지원

- 지역 정보망 구축
- ③ 문화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동아리 활동 지원
  -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원
- ④ 지역격차 해소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강화
  - 자치구별 차등 지원
  - 공부방 활성화
    - 청소년을 위한 1차거점시설로 활용
    - 시설 재정비와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
    - PC방 설치와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소규모 도서관으로 활용
    - 민간 공부방 운영비 지원
    - 공부방의 문화프로그램 사업 지원
    - 이용료 폐지
    - 공부방 운영자 교육 지원

## 2) 경제

- 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 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사업 실시
  - 직업체험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 소비생활 관련 프로그램 개설
  - 청소년 친화기업 수상제도
- ② 저학력 청소년 취업지원 강화
  -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활성화
    - 원스톱 서비스 강화
    - 저학력, 쉼터 청소년을 위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 개설
    - 창업지원센터 개설

## 3) 보호·복지

- ① 문제 발생 예방
  - 상담사업의 활성화

-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과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실간의 역할 분담
-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사업비 지원 확대
-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을 지역청소년 종합상담실로 육성
-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실 기준 마련
- 우수 청소년 상담기관 선발 및 포상
-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교육
- 상담 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
- 사이버상담의 활성화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활성화
- 홍보를 통한 상담 접근성 향상
- 학교사회사업 지원확대
  - 예산지원을 통한 학교사회사업 확대 실시
  - 학교사회사업 정체성 확립과 홍보
  - 교육전문가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 지역사회복지관의 학교사회사업 활성화 지원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 강화
  - 청소년 관련 기구의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간의 연계체제 구축
  - 자치구 단위로 청소년 유해환경의 홍보 및 계도활동의 정착
  -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 ② 소외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 보호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 가출청소년통합서비스센터 운영
    - 보호시설의 표준화된 복지서비스 지침 수립과 지원
    -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
    - 보수교육 및 자격연수 기회 보장
    - 정기적인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 남자청소년 대상 보호시설 증대
    - 보호시설별 요구 인력의 지원
    - 시립병원 및 보건소 연계로 의료서비스 지원

- 자립기반 지원체계 구축
-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 간소화된 표준회계 감사양식 개발
- 비정규학교 지원확대
  - 비정규학교에 대한 정책 마련
  - 특화 프로그램의 마련
  - 학교 특성화에 따른 지원 차별화
  - 비정규 교사직의 처우 개선안 마련
  - 지역내 수련시설 및 단체와 연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

#### 4) 사회참여

##### ① 자원봉사의 내실화

-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체계 구축
-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기능의 강화
-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홍보활동 및 정보제공의 강화
- 청소년자원봉사 전문인력 지원

##### ② 정책개발과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 청소년 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의 필요
- 청소년위원회 기능의 확대 및 주체적 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의 활성화
-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수렴의 통로 마련

## 2. 추진체계

### 1) 종합추진체계

#### ① 행정추진체계

-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의 역할분담체계 구축

- 시설간 운영 차별화
- 자치구별 청소년 종합계획 수립 유도과 지원 차등
- 사업주체별 평가사업 활성화
- 청소년 전문담당관제 도입
- 민간단체 회계업무 양식 표준화
- ② 홍보 및 정보망 체계 구축
  - 종합홍보계획 수립
  - 청소년 수첩 발간
  - 지역 네트워크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청소년 정보망 종합계획 수립
- ③ 청소년 관련 전문인력 배치와 양성
  - 자치구 전문인력 배치와 담당공무원 교육연수
  - 시설, 민간단체 실무자 연수교육
- ④ 사업 우선순위
  -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간 차별화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함.
  - 소규모 예산으로 청소년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함.
  - 기존시설 활용도와 사업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시설과 사업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사업분야별, 홍보매체별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함.
  - 자치구별로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함.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청소년 인구가 많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과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2) 부문별 사업추진체계

### ① 여가·문화

소규모 예산으로 사업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존시설 재정비 사업과 지역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② 경제

현실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당대우를 받는 청소년도 많으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서울시 차원의 지원과 보호책이 전무하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과 보호사업을 우선적으로 함.

③ 보호·복지

문제가 이미 발생하여 즉각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나 그룹홈 사업, 그리고 제도권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을 위한 비정규학교와 대안학교사업을 우선으로 함.

④ 사회참여

청소년자원봉사와 정책참여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조직의 활성화와 연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여타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목 차

---

<b>제 I 장 연구개요</b> .....	<b>3</b>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	3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	4
제3절 연구방법 .....	5
<b>제 II 장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 및 정책동향</b> .....	<b>9</b>
제1절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와 전망 .....	9
제2절 청소년 정책동향 .....	14
1. 유엔의 청소년 정책 .....	14
2. 국가 청소년 정책 .....	15
<b>제 III 장 청소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b> .....	<b>23</b>
제1절 조사개요 .....	23
제2절 조사결과 .....	24
1. 일반사항 .....	24
2. 여가·문화 .....	26
3. 경제 .....	40
4. 보호·복지 .....	52
5. 사회참여 .....	63
6.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67
<b>제 IV 장 서울시 청소년 사업 현황과 분석</b> .....	<b>75</b>
제1절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행정체계 .....	75
1. 청소년 정책동향 .....	75
2. 청소년 행정체계 .....	76
제2절 여가·문화 .....	79
1. 청소년 수련시설 .....	79
2. 청소년 공부방 .....	90
3. 여가·문화 프로그램 .....	98

제3절 경제 .....	105
1. 시립직업전문학교 .....	106
제4절 보호·복지 .....	107
1. 보호시설 .....	107
2. 상담 .....	120
3. 학교사회사업 .....	128
4. 비정규학교 .....	132
5. 청소년보호위원회 .....	142
제5절 사회참여 .....	153
1. 자원봉사 .....	153
2. 정책참여 .....	158

## **제 V 장 서울시 청소년 정책목표와 과제 .....** 165

제1절 정책체계와 기본방향 .....	165
1. 정책체계 .....	165
2. 기본방향 .....	165
제2절 여가·문화 .....	168
1. 현황과 과제 .....	168
2. 정책목표 .....	171
3. 정책목표별 추진사업 .....	172
제3절 경제 .....	178
1. 현황과 과제 .....	178
2. 정책목표 .....	179
3. 정책목표별 추진사업 .....	180
제4절 보호·복지 .....	181
1. 현황과 과제 .....	181
2. 정책목표 .....	189
3. 정책목표별 추진사업 .....	190
제5절 사회참여 .....	200
1. 현황과 과제 .....	200
2. 정책목표 .....	203
3. 정책목표별 추진사업 .....	204

제 VI 장 추진체계 .....	213
제1절 종합추진체계 .....	213
제2절 부문별 사업추진체계 .....	220
1. 여가·문화 .....	220
2. 경제 .....	222
3. 보호·복지 .....	224
4. 사회참여 .....	227
참고문헌 .....	231
부록1 : 조사개요 .....	237
부록2 : 설문지 .....	247



## 표 목 차

---

<표 2-1> 청소년인구 변화추이 .....	9
<표 2-2> 자치구별 청소년 인구현황 .....	11
<표 3-1> 설문 문항의 구성 .....	23
<표 3-2> 응답자의 일반사항 .....	24
<표 3-3> 가구 구성 및 생활수준 평가 .....	25
<표 3-4> 평균 여가시간 .....	26
<표 3-5> 토·일·공휴일의 여가활동 내용 .....	28
<표 3-6> 문화복지시설별 이용 현황과 문제점 .....	29
<표 3-7> 여가·문화활동의 장애요인 .....	31
<표 3-8> 성별 동아리 활동유형 및 희망동아리 활동유형 .....	33
<표 3-9> 학교별 동아리 활동유형 및 희망동아리 활동유형 .....	34
<표 3-10>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점 .....	36
<표 3-11> 컴퓨터(인터넷) 이용 .....	37
<표 3-12> 필요로 하는 여가문화시설 .....	38
<표 3-13> 희망하는 동아리축제 및 문화 프로그램 욕구 .....	39
<표 3-14> 용돈(한달평균용돈, 만족도, 마련방법, 쓰임내역) .....	41
<표 3-15> 아르바이트 경험, 평균근무시간, 평균임금, 임금만족도 .....	44
<표 3-16> 아르바이트의 동기 .....	45
<표 3-17> 아르바이트 참여 직종 .....	46
<표 3-18> 아르바이트 구직방법 .....	47
<표 3-19> 아르바이트 구직시 어려웠던 점 .....	48
<표 3-20> 아르바이트시 부당대우나 어려운 점 .....	49
<표 3-21> 부당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 .....	49
<표 3-22>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지의 의향과 동기 .....	50
<표 3-23> 아르바이트 희망 직종 .....	52
<표 3-24> 최근의 고민이나 걱정거리 .....	53
<표 3-25> 고민대화 상대 .....	54
<표 3-26> 전문상담 .....	55
<표 3-27> 가출충동 및 경험 .....	56
<표 3-28> 가출경험자들의 시기, 횟수, 동기, 은신처, 쉼터 인지여부 .....	58

<표 3-29> 집단따돌림(왕따) .....	59
<표 3-30> 학원폭력 .....	60
<표 3-31> 폭력경험자의 피해 내용, 가해자, 피해장소 .....	61
<표 3-32> 폭력에 대한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	62
<표 3-33> 자원봉사 경험, 종류, 동기 .....	64
<표 3-34> 자원봉사 의향 및 희망분야, 개선점 .....	65
<표 3-35> 청소년 참여제도 .....	66
<표 4-1> 자치구별 청소년시설 현황 .....	80
<표 4-2> 자치구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81
<표 4-3>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원수 및 건물 현황 .....	82
<표 4-4> 청소년시설의 입지분석 .....	83
<표 4-5> 시립 청소년시설 예산 현황 .....	84
<표 4-6> 노원청소년수련관 주요 프로그램 .....	84
<표 4-7> 구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원수 및 건물규모 .....	86
<표 4-8> 구립 청소년시설 예산 현황 .....	87
<표 4-9>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사업내용 .....	88
<표 4-10> 공부방 연면적과 좌석수 현황 .....	91
<표 4-11> 자치구별 청소년공부방 시설수 및 예산 현황 .....	92
<표 4-12> 청소년 프로그램사업 .....	99
<표 4-13> 시비지원사업 현황 .....	101
<표 4-14>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현황 .....	102
<표 4-15> 자치구별 청소년 문화행사 .....	103
<표 4-16> 청소년보호시설 현황 .....	109
<표 4-17> 조사시설의 일반적 현황 .....	110
<표 4-18> 조사시설의 수입 현황 .....	111
<표 4-19> 조사시설의 지출 현황 .....	112
<표 4-20> 조사시설의 입소자 현황 .....	113
<표 4-21> 보호시설의 일반적 프로그램 내용 .....	115
<표 4-22> 조사시설별 특화 및 중점사업 내용 .....	116
<표 4-23> 청소년 상담기관 총괄 현황 .....	122
<표 4-24> 시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현황과 특성 .....	123
<표 4-25> 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현황과 특성 .....	124
<표 4-26> 종합사회복지관 학교사회사업 .....	131
<표 4-27>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시설규모 및 인력현황 .....	133

<표 4-28>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시설규모와 인력현황 .....	136
<표 4-29>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예산내역 .....	137
<표 4-30>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운영목표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	139
<표 4-31>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학생수와 연령별 구성 비율 .....	140
<표 4-32> 자치구별 청소년보호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현황 .....	147
<표 4-33>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인력현황 .....	148
<표 4-34>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예산구성 .....	148
<표 4-35>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의 주요활동내용 비교 .....	150
<표 4-36> 서울시와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운영형태 .....	154
<표 4-37>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관련 사업내용 분석 .....	156
<표 4-38>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소년위원회 운영현황 .....	160
<표 6-1> 여가·문화 사업추진체계 .....	221
<표 6-2> 경제 사업추진체계 .....	224
<표 6-3> 보호·복지 사업추진체계 .....	225
<표 6-4> 사회참여 사업추진체계 .....	228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	6
<그림 2-1> 서울지역 인문계 및 실업계 고졸자의 진학률 .....	10
<그림 2-2> UN 청소년 정책의 전개 .....	16
<그림 2-3> 국가 청소년계획의 정책 변화와 의의 .....	17
<그림 2-4> 청소년현장으로 본 청소년관의 변화 .....	18
<그림 2-5> 청소년 관련 법체계 .....	19
<그림 4-1> 서울시 청소년 정책 기본방향의 변화 .....	75
<그림 4-2> 서울시 청소년대책협의회 .....	77
<그림 4-3> 청소년(보호)위원회 .....	143
<그림 4-4> 청소년지도 및 계도 기구 .....	145
<그림 5-1> 부문별 목표와 추진과제 .....	167



# 第 I 章 연구개요

제 1 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제 3 절 연구방법



# 제 I 장 연구개요

## 제 1 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정보사회, 지식기반경제사회, 대중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청소년 활동공간이 학교로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로 여러 공간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것은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정체성 외에 소비자나 경제활동자, 또는 시민이라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회변동 과정에서 유엔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청소년을 현재 사회의 활동주체로 인식하여, 사회 모든 부문에서 청소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청소년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제도 정비를 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sup>1)</sup>에 비준하였고, 아동 및 청소년 권익증진과 참여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청소년 육성법」을 제정하고, 1988년 체육부에 청소년국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청소년 정책의 관심이 학교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2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이 수립되었고, 이어 1993년에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1998년에는 「제2차 청소년육성계획」이 수립되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한 세계 및 국가의 방향전환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에도 변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1999년 가정복지국의 청소년과가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로 바뀌었다. 이것은 서울시 청소년 정책대상이 기존에는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청소년도 청소년 정책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본법과 보호법에 근거해 문화에서부터 보호,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로 제도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업무가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양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 청소년사업과 예산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수행의 지킴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청소년 증장기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환경과 국내외 청소년 정책의 변화와 전망하에서, 서울시 청소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

---

1) UN 아동권리협약(1989년)에서는 아동을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보고,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청소년 중장기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 제 2 절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 1. 연구목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을 규정하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세계적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이 바뀌고 있으며, 국가의 청소년 정책에도 방향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청소년 정책은 그 대상이 학생과 일부 소외계층 청소년에 국한되어, 학생은 학교교육차원에서, 소외계층 청소년은 복지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정책대상이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책분야도 문화, 사회참여, 보호복지, 경제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주체도 중앙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 분화되고 있다. 청소년사업의 대부분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실천적, 집행적 성격이 강해 청소년 정책에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나 자치구의 경우 청소년 사업분야와 사업수,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업 수행의 지침역할을 하는 종합계획이 없어, 사업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가 사회환경 변화와 세계, 국가의 청소년 정책 동향을 수용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청소년 정책 부문별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 다섯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UN과 국가의 청소년 정책 동향과 청소년 관련 사회환경 변화와 전망을 정리하였다.

둘째, 서울시 중·고등학생 생활 및 문화복지 욕구 실태조사를 하였다.

셋째,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소년 사업현황과 문제점을 여가·문화, 경제, 보호·복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청소년 관련 사회환경 변화와 전망, 실태조사, 서울시와 자치구 청소년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정책분야를 여가·문화, 경제, 보호·복지, 사회참여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한 후,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청소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부문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로 개선하거나 추진해야 할 사업과제를 제안한다.

여섯째, 종합추진체계와 사업별 추진계획을 제안한다.

###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문헌 및 기존 통계자료조사

둘째, 행정기관 및 청소년시설 내부자료조사

셋째, 관련 공무원 및 시설운영자 면담조사

넷째,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와 청소년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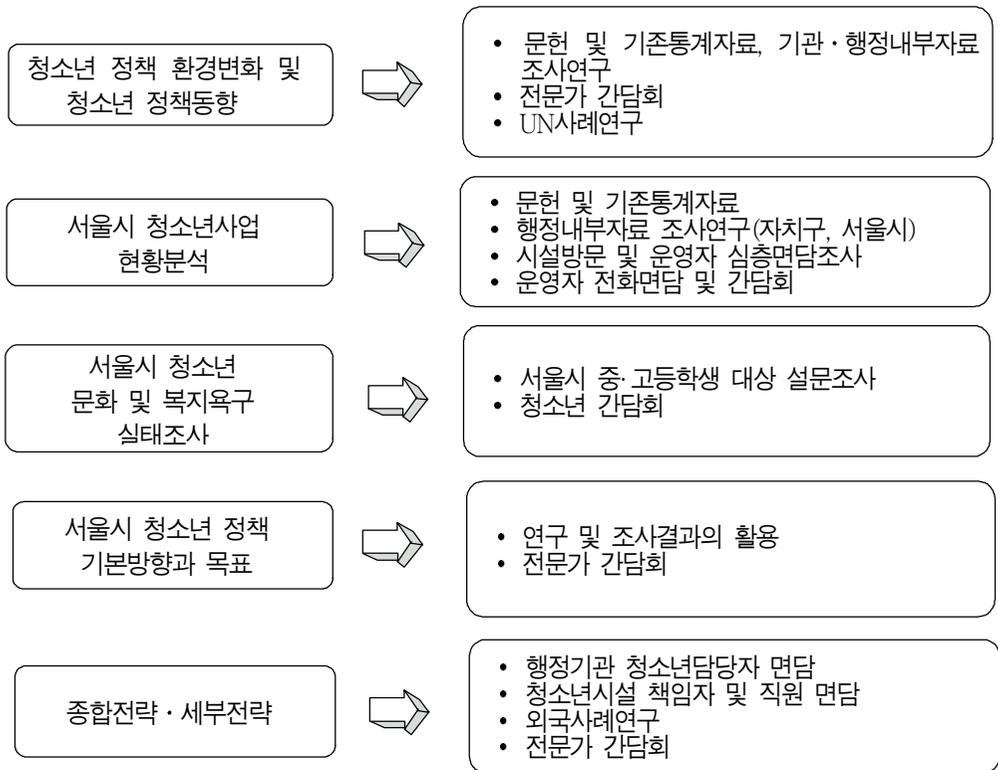
다섯째,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및 복지욕구 실태 설문조사를 들 수 있다.

청소년시설 및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는 기관현황자료분석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심층면담 조사를 병행하고, 문화 및 복지욕구 실태조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

2)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음



<그림 1-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第 II 章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 및 정책동향

제 1 절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와 전망

제 2 절 청소년 정책동향



## 제 II 장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 및 정책동향

### 제 1 절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와 전망

#### 1. 청소년 인구동향

##### 1) 청소년 인구 감소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에 따르면 향후 서울시의 청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인구 비율도 2000년 23.4%에서 2005년 20.7%, 2010년 18.8%로 감소할 것이다.

〈표 2-1〉 청소년인구 변화추이

단위: 명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총인구	8,516,450	9,725,447	10,473,252	10,342,224	9,981,649	9,760,878	9,625,060
청소년인구	소계	2,932,787	3,182,072	3,162,124	2,892,274	2,338,525	2,024,125
	10-14세	862,329	1,014,657	936,266	832,689	615,367	638,018
	15-19세	1,010,907	1,042,579	1,085,414	909,064	783,905	584,060
	20-24세	1,059,551	1,124,836	1,140,444	1,150,521	939,253	802,047
청소년비율	34.4%	32.7%	30.2%	28.0%	23.4%	20.7%	18.8%

주 : 청소년연령은 9-24세이나 통계자료 사정으로 9세 제외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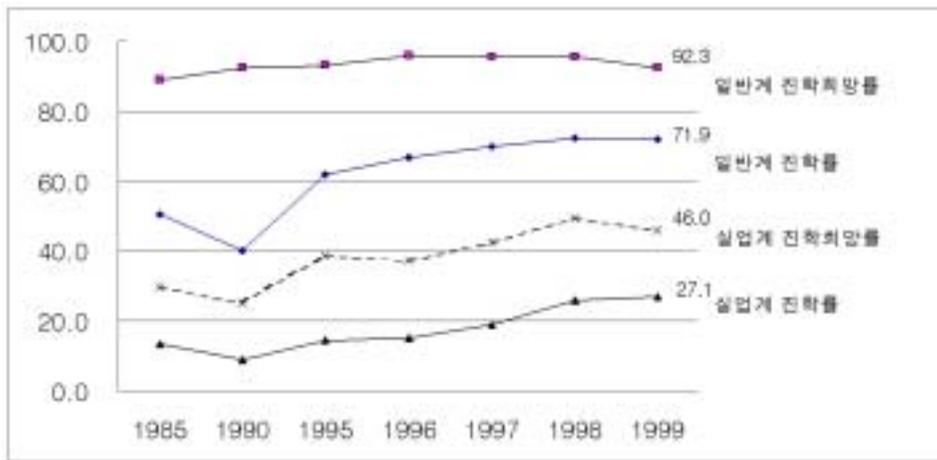
##### 2) 청소년 인구의 고학력화

청소년인구가 감소하는데 반해서 청소년들의 학력수준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90년 97.5%에서 '99년 99.8%로 증가하여 거의 모든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있다.<sup>3)</sup> 또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상황을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90년 40.0%에서 '99년 71.9%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1999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90년 9.0%에서 '99년 27.1%로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진학희망률은 인문계의 경우 '99년 92.3%, 실업계의 경우 '99년 46.0%로 진학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그림 2-1> 참조).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2년이 되면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의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4)</sup>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소년층 인구의 고학력화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림 2-1> 서울지역 인문계 및 실업계 고졸자의 진학률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1999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3) 자치구 청소년 인구

1999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9세-24세의 청소년은 2,523,811명으로 전체인구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이 51.3%, 여자청소년이 48.7%로 남자청소년이 약간 많다. 청소년인구가 10만명을 넘는 자치구는 11개 구이며, 이중 15만명을 넘는 구는 3개 구로 송파구가 17만 4천명으로 가장 많고, 노원구가 15만 5천명, 강남구가 15만 3천명이다. 청소년인구가 가장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과제」, 1998

적은 자치구는 중구로 2만 8천명이다.

<표 2-2> 자치구별 청소년 인구현황

자치구명	총인구(A)	청소년인구(B)	비율(B/A)	13-18세 청소년인구(C)	청소년 중 13-18세 인구비율 (C/A)
계	10,264,260	2,523,811	24.6	926,061	36.7
종로구	186,590	43,259	23.2	15,718	36.3
중구	126,254	27,801	22.0	9,456	34.0
용산구	237,489	51,921	21.9	18,039	34.7
성동구	339,175	76,384	22.5	26,157	34.2
광진구	390,061	93,967	24.1	33,462	35.6
동대문구	367,025	88,228	24.0	30,596	34.7
중랑구	461,737	114,121	24.7	41,854	36.7
성북구	472,929	109,958	23.3	38,630	35.1
강북구	352,142	84,429	24.0	29,625	35.1
도봉구	375,275	92,784	24.7	36,644	39.5
노원구	617,500	155,291	25.1	62,721	40.4
은평구	472,464	111,941	23.7	41,586	37.1
서대문구	365,783	81,422	22.3	27,889	34.3
마포구	385,114	85,389	22.2	28,484	33.4
양천구	480,313	130,399	27.1	52,823	40.5
강서구	519,786	133,576	25.7	51,385	38.5
구로구	395,294	96,776	24.7	34,623	35.8
금천구	268,629	65,864	24.4	23,446	35.6
영등포구	404,306	93,521	23.1	32,566	34.8
동작구	419,161	95,866	22.9	32,263	33.7
관악구	517,552	123,114	23.8	41,110	33.4
서초구	400,950	106,447	26.5	38,717	36.4
강남구	552,293	152,910	27.7	57,824	37.8
송파구	665,918	174,761	26.2	67,294	38.5
강동구	490,520	133,682	27.3	53,167	39.8

주 : 1. 청소년 연령은 9세-24세를 기준으로 함.

2. 주민등록인구(1999.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 학생 수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 서울시, 「1999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00

## 2. 청소년 정체성의 다양화

현재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사회에서 10대 청소년은 곧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는 의미를 가졌고,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은 아직 대다수의 10대 청소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10대 청소년이 소비자로서 부각되는 한편, 아르바이트나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10대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문화산업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 분야에 익숙한 10대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즉 10대 청소년이 학생 이외에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데<sup>5)</sup>, 이같은 경향은 우리사회에서도 향후 몇 년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이 다양한 정체성을 갖게되는 사회현상의 초기단계에서는 청소년과 부모를 포함한 기성사회, 청소년 집단간,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내부적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3. 정보사회와 세계화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와 지식이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분야를 움직이는 주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다. 청소년은 기성세대에 비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더 익숙한 만큼, 산업사회에서와 달리 경제와 문화 등의 사회전반에 청소년이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 매우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의식과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보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한다는 가능성에 대해 청소년 정책이 진지하게 대비해야하는 단계에 왔다.

인터넷 발달로 청소년은 on-line으로 다양한 민족, 국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

5) \* 조한혜정,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21세기를 청소년과 함께 합시다」 심포지움 자료, 1999

Ueno Toshiya, '도시부족과 미디어', 전게서.

\*\* 본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41.3%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며, 아르바이트 희망자는 71.2%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동기는 약 절반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동시에 off-line에서도 다양한 세계인들과 만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21세기는 사이버 세계를 비롯한 실제 생활공간에서도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사회 분야의 국제적 교류가 훨씬 빈번해 질 것이며, 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 4. 학교의 변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학생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따라 서울시 청소년 정책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1999-2003년」에는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주도하는 교육’이란 기본방향 하에 여덟가지 정책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목표를 추진하는 방식의 한가지로 학교와 학부모, 산업체, 지역 및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공동체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가 열린 공동체 교육을 지향함에 따라 행정과 학교, 민간단체,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청소년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서울시는 관련단체들간의 연계사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5. 청소년 경제활동의 중요성

사회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직업활동은 청소년 참여, 학습, 복지 등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지역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1999년 현재 99.8%로 거의 모든 중학생이 진학하고 있다. 70-80년대처럼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후, 가난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고 공장 근로자로 일하는 10대 근로 청소년이 사라진 반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은 많아지고 있다. 즉 구미에서처럼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일시고용 참여가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체 실업률에 비해 15-24세 청소년 실업률이 매우 높아, 청소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 이후에는 모든 학력수준별로 실업률이 높아졌지만 중졸이하 청소년과 고졸청소년의 실업률이 대졸이상 청소년의 실업률보다 훨씬

션 높아졌다.

2000년 4월 현재 서울시 15-19세의 실업률은 18.0%, 20-24세의 실업률은 10.0%이며, 15세이상 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5.1%로 나타났다.<sup>6)</sup> 미국의 경우 1998년 16세이상 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4.5%이나 16-24세의 청소년 실업률은 10.4%이다. 영국의 97년 전체 실업률은 5.8%이지만 16-24세 인구의 실업률은 13.5%이다. 즉 구미 각국의 경우에도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소년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학력수준이 낮을 수록 실업률이 높고, 학교중퇴자의 장기실업과 청소년의 단기계약, 파트타임 취업비율이 높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가 청소년 권한강화와 사회 모든 부문의 청소년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취지 하에서 학생 임시고용과 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sup>7)</sup>

## 제 2 절 청소년 정책동향

### 1. 유엔의 청소년 정책

#### ■ 연령기준

1985년 유엔총회에서 청소년을 15-24세, 아동을 14세이하의 사람으로 결의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이 아동정책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sup>8)</sup>

#### ■ 청소년관의 변화

‘세계 청소년의 해 세계회의(1995)’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발하고 ‘청소년이 발전과 사회변혁의 동인’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탄생시켰다.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육성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단계를 지나,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가진 존재이며 사회의 주요자산임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의결권, 자기결

6)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내부자료, 2000

7)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고용프로그램 개발연구」, 1999

8) UN에서는 청소년(youth)을 15세-24세, 십대(teenagers)를 13-19세, 젊은 성인(young adults)을 20-24세로 정의하고 있다.

정권, 참여권 등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UN 청소년 정책의 전개과정은 다음 <그림 2-2>와 같다.

### ■ 청소년 참여의 강조

세계청소년 해의 모토인 ‘참여·발전·평화’는 이후 UN의 청소년 관련 주요활동의 주된 목표이자 이념이 되었다.

현재 UN의 청소년 관련 활동은 청소년의 권리를 복지권에서 자유권 내지 시민권으로 확대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의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on)를 강조하고 있다.

### ■ 청소년 정책의 한계

아동의 권리가 선언에서 국제협약으로 발전한 것과는 달리 청소년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틀 속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협약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 2. 국가 청소년 정책

### 1) 청소년 정책동향

#### ■ 연령기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으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미만의 남녀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sup>9)</sup>

---

9) 민법에서는 19세이하를 미성년자로, 형법에서는 14세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국민투표법에서는 20세이상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주요회의 및 선언		내 용	의 의
1985	‘세계청소년의 해’ 세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이념 : 참여·발전·평화</li> <li>·청소년관의 정립 : 사회의 주요자산이자 변화의 주체</li> <li>·청소년 참여가 인류발전에 기여함.</li> </ul>	청소년관의 정립
↓			
1993	세계인권회의 비정부단체 청소년 인권대회	이동과 청소년의 시민권 및 자유권 강조 청소년의 의결권, 자기결정권, 참여권	
↓			
1994	인구와 발전에 관한 세계 청소년 비정부단체 포럼 (카이로선언)	청소년이 인권과 정치, 경제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역설	
↓			
1995	UN 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계획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한 청소년 실행지침*	세계청소년 해의 이념 ‘참여·발전·평화’의 달성을 위한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의 행동 지침	세계·지역· 국가 수준의 구체적 행동 지침 제공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	청소년 정책시행의 10가지 영역으로 ①교육 ②고용 ③기아, 빈곤 ④건강 ⑤환경 ⑥약물 남용 ⑦일탈 ⑧여가시간활용 ⑨소년집단, 젊은 여성집단 ⑩사회생활 및 의사결정에서의 완전한 참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	
↓			
1996	제2회 세계청소년 포럼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범세계적 활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및 인권분야 지도자 훈련과정 설치 주장</li> <li>·UN인권교육 10개년계획(1995-2004) 참여 및 청소년 권리증진 자료개발 요구</li> </ul>	
↓			
1998	유네스코 보고 「21세기 청소년과 교육」	교육에 있어서의 청소년 참여 및 청소년 인권존중을 강조	
↓			
1998	제3회 세계 청소년 포럼 브라가 청소년 실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류발전에 청소년 참여권 강조</li> <li>·장애 청소년, 극빈지역 청소년 등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평등한 참여 방안 제시</li> </ul>	
↓			
1998	세계 청소년 장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전 분야의 의사결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강조</li> <li>·청소년 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집행을 위해 정부·국제기구·민간청소년단체·가정·시민 사회 등 모든 주요관계자들이 공동협력관계 강화를 천명</li> </ul>	지역간 국가간 협력관계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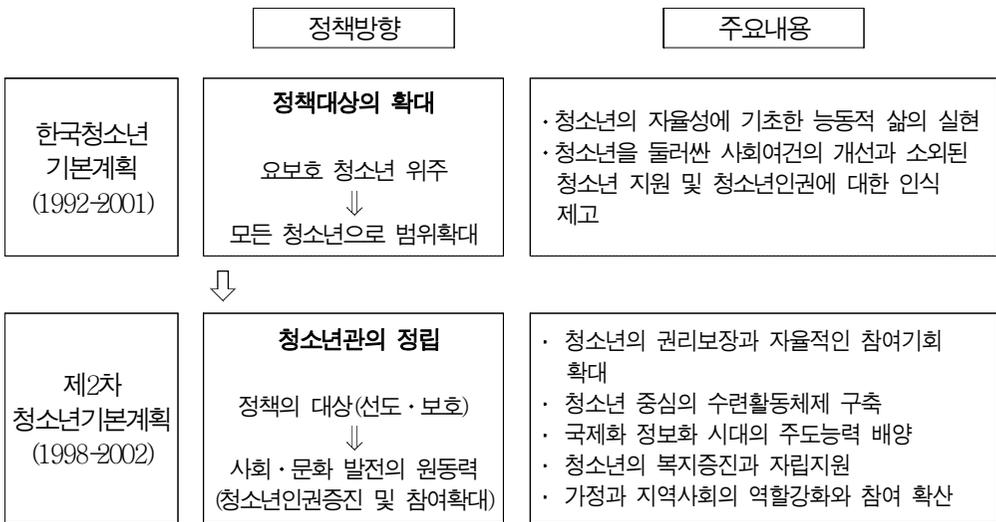
\* 1985년 UN총회에서 상정되었으나 10년 뒤인 1995년 제50차 UN총회에서 채택됨

<그림 2-2> UN 청소년 정책의 전개

## ■ 청소년관의 변화

청소년관의 변화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청소년계획과 청소년현장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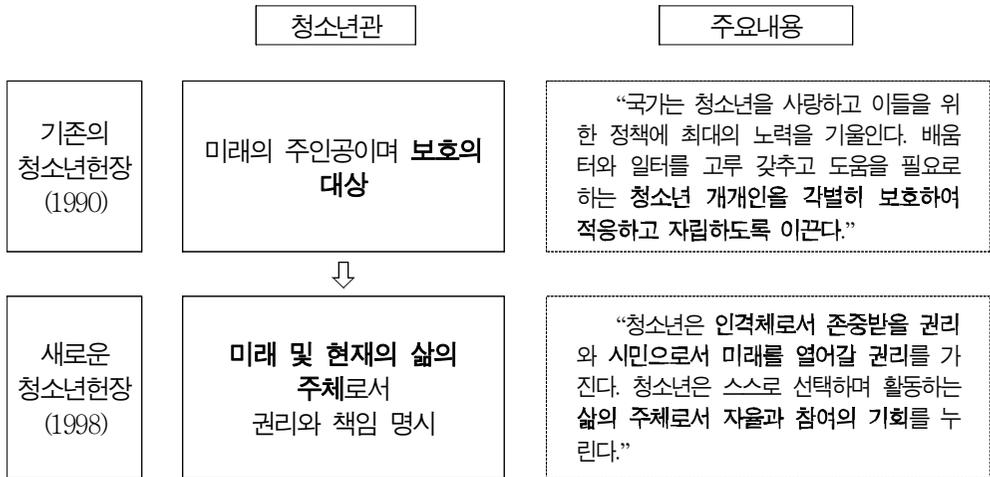
먼저 국가청소년계획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가의 청소년관 변화를 알 수 있다. 최초의 청소년 장기계획은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으로 기존의 일부 문제청소년 위주의 단기적, 규제적 청소년 정책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장기계획으로 확대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청소년관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계획은 1998년에 발표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sup>10)</sup>」이다. 국가청소년계획의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3> 과 같다.



<그림 2-3> 국가 청소년 계획의 정책변화와 의의

10)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이 수립되어 시행되었고, 현재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이 실행중에 있다.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경우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거의 답습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했으며 실제적으로 새로운 청소년관을 정립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한 것은 제2차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관의 변화는 청소년헌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998년에 개정된 청소년헌장을 1990년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청소년헌장으로 본 청소년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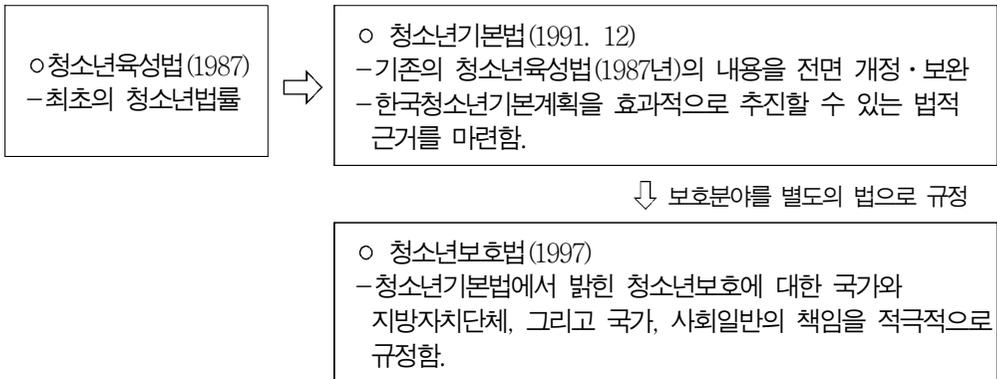
## ■ 청소년 참여 강조

앞서 살펴본 국가의 청소년관 변화를 분석해 보면, 청소년을 미래 및 삶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UN의 청소년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향후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2) 청소년 관련 법제도 및 행정체계

### (1) 청소년 관련 법제도

현재 국가의 청소년 관련 법체계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로 양분되어 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청소년 관련 법체계

## (2) 청소년 행정체계

### ■ 청소년 행정체계

청소년 전담행정기구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1988년 체육부에 '청소년국' 신설(중앙 행정부처 최초의 국 단위 청소년전담부서)
- 1991년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개편, 청소년국도 청소년정책조정실로 개편
- 1993년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경
- 1997년 문화체육부에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
- 1998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변경, 청소년보호위원회 국무총리실로 소속변경
- 2000년 현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수련과로 구성)

중앙정부의 청소년 정책체계는 청소년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수련과 3개 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에 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청소년수련, 상담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

관으로 국무총리산하에 설치되어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계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2000. 2 현재 13명), 청소년 매체물감시, 청소년 건전환경, 청소년 건강 및 약물 등 8개 분과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기획과, 조사운영과, 보호기준과, 보호지도과 등 4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 ■ 청소년행정 조정기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1964년) → 청소년대책위원회(1977년) → 청소년육성위원회(1988년)로 변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청소년행정 관련 종합조정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의 청소년 관련 주요부서의 장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능은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이다.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부터 구성·운영되었으며,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재구성되었다(문화관광부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고위간부 및 청소년전문가로 구성).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조정·심의하고 있다.

第 Ⅲ 章  
청소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제 1 절 조사개요

제 2 절 조사결과



## 제 III 장 청소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제 1 절 조사개요

#### 1)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서울시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여가·문화, 경제활동, 보호·복지, 사회참여라는 네가지 주제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의 주제별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3-1> 설문 문항의 구성

조사영역	조 사 문 항
<b>여가 문화</b>	- 여가·문화활동 : 여가시간, 여가유형 및 장소, 여가 장애요인, - 동아리 활동 : 참여현황과 활동내용, 참여의향과 희망활동 유형 - 컴퓨터 이용 : PC보유, 활용능력, 이용장소 - 여가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수요 : 시설이용 현황, 희망 시설유형과 프로그램
<b>경제</b>	- 용돈 : 용돈의 수준, 만족도, 마련 방법, 쓰임 내역 - 아르바이트 : 참가율, 동기, 취업유형, 근무시간, 임금수준, 취업경로 등
<b>보호 복지</b>	- 상담 : 고민내용과 상담상대, 상담실 이용경험, 희망 상담방법 등 - 가출 : 가출경험 유무 및 시기, 횟수, 동기, 거처, 가출충동, 쉼터 인지 여부 - 폭력 : 집단따돌림과 폭력경험
<b>사회 참여</b>	- 자원봉사 : 활동현황과 평가, 문제점, 자원봉사활동 희망분야와 개선점 - 정책참여 :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위원회 제도 필요성 등

#### 2)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조사대상 선정은 지역별, 성별, 학교유형별(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로 배분하여 조사대상 학교를 먼저 추출하고,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서 성별, 학년별 배분을 고려하여 학급을 선정, 선정된 학급내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학교는 총

39개 학교로, 중학교 16개 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15개 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8개 학교가 조사되었다. 총 사례수는 1,537명으로, 중학생 567명, 인문계 고등학생 669명, 실업계 고등학생 301명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현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 단위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을 한 후,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 제 2 절 조사결과

### 1. 일반사항

#### 1) 개인 사항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56.5%, 여자 43.5%이며, 학교별 분포는 중학생 36.9%, 인문고 43.5%, 실업고 19.6%이다.<sup>11)</sup>

<표 3-2> 응답자의 일반사항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합계(%)
<b>성별</b>				
남	304(53.6)	338(50.5)	227(75.4)	869(56.5)
여	263(46.4)	331(49.5)	74(24.6)	668(43.5)
<b>학년별</b>				
1학년	166(29.3)	254(38.0)	103(34.2)	523(34.0)
2학년	195(34.4)	321(48.0)	155(51.5)	671(43.7)
3학년	206(36.3)	94(14.0)	43(14.3)	343(22.3)
계	567(36.9)	669(43.5)	301(19.6)	1,537(100.0)

11) 1999년도 총학생의 성별 분포는 남자 52.4%, 여자 47.6%이며, 학교별 분포는 중학생 43.6%, 인문고 40.1%, 실업고 16.1%이다. 모집단의 중학생 비율에 비해 표집된 중학생의 표본수 비율이 낮은 것은 표본단위로 뽑은 중학생의 한반 학생수가 약 30여명 정도였는데 비해, 인문계 고등학교의 한반 학생수는 약 40여명이었기 때문에 중학생의 표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인문고와 실업고의 경우 3학년에 대한 조사거부가 많았고, 이런 경우 2학년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2학년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 2) 가구사항

### ■ 가구 구성

현재 동거중인 가구 구성원의 유형은 2세대 가족이 75.6%, 3세대 가족이 13.7%, 한부모 가족이 8.2%로 나타났다. 실업고의 경우 한부모 및 부모가 없이 형제자매나 친인척과 사는 비율이 20.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 생활수준 평가

본인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상이 6.9%, 중상이 53.5%, 중하가 34.8%,下が 4.8%로 나타났다. 실업고의 경우 본인의 생활수준을 중하, 下로 평가한 비율이 56.2%로 나타나, 중학생 28.0%, 인문고 42.1%에 비해 중하, 下라고 평가한 비율이 높다.

<표 3-3> 가구 구성 및 생활수준 평가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합계(%)
<b>가구구성</b>				
2세대가족	75.6	79.2	67.9	1,148(75.7)
3세대가족	15.8	13.0	11.3	208(13.7)
한부모	6.1	6.2	16.7	124( 8.2)
형제자매	0.2	0.4	1.4	8( 0.5)
기타,친인척	2.3	1.2	2.7	29( 1.9)
계	562	662	293	1,517
<b>생활수준</b>				
상	10.4	4.7	5.1	105( 6.9)
중상	61.6	53.2	38.7	816(53.5)
중하	26.0	38.2	44.1	532(34.8)
하	2.0	3.9	12.1	73( 4.8)
계	565	664	297	1,526

## 2. 여가·문화

### 1) 여가·문화활동 현황

#### (1) 여가·문화활동 시간

학교 및 학원공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휴식이나 친구들과 교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평일평균 3.1시간, 토요일은 6.5시간, 일요일은 8.4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실업고, 중학생, 인문고의 순으로 평균 여가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 평균 여가시간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평일</b>						
2시간 미만	20.5	17.0	20.4	20.6	12.5	279(19.0)
2-3시간 미만	21.7	28.4	22.8	30.8	13.9	361(24.6)
3-4시간 미만	19.1	18.4	19.7	19.1	16.4	276(18.8)
4시간 이상	38.7	36.2	37.1	29.5	57.2	552(37.6)
평균	3.0시간	3.1시간	3.1시간	2.8시간	3.6시간	3.1시간
계	838	630	548	640	280	1,468
<b>토요일</b>						
4시간 미만	14.8	14.5	15.4	16.1	10.0	217(14.7)
4-6시간 미만	24.1	26.2	25.8	27.2	18.2	369(25.0)
6-9시간 미만	32.1	34.7	30.6	35.1	33.9	491(33.2)
9시간 이상	29.0	24.6	28.2	21.6	37.9	401(27.1)
평균	6.6시간	6.4시간	6.4시간	6.3시간	7.1시간	6.5시간
계	844	634	546	652	280	1,478
<b>일요일</b>						
6시간 미만	21.7	22.2	20.5	26.5	14.0	321(21.9)
6-9시간 미만	24.7	25.9	27.0	26.5	18.7	369(25.2)
9-12시간 미만	19.6	22.0	21.5	19.4	21.9	303(20.7)
12시간 이상	34.0	29.9	31.0	27.6	45.3	472(32.2)
평균	8.4시간	8.3시간	8.4시간	8.1시간	9.1시간	8.4시간
계	839	626	545	642	278	1,465

● 평일 : 성별  $\chi^2=9.60^*$ , 학교별  $\chi^2=72.00^{**}$

● 토요일 : 학교별  $\chi^2=33.06^{**}$

● 일요일 : 학교별  $\chi^2=40.42^{**}$

## (2) 토·일·공휴일의 여가활동 내용

주말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 내용을 보면 ‘집에서 TV, 라디오와 함께 편히 지낸다’가 28.7%로 가장 많다. 두번째는 ‘집에서 컴퓨터 통신이나 게임, 인터넷을 한다’가 20.9%로 나타났다. 세번째는 ‘게임방이나 PC방에서 보낸다’가 10.7%이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주말 여가를 집에서 보내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컴퓨터를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 학생들이 전체의 31.6%를 차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여가활동 내용은 성별, 학교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집에서 컴퓨터를 한다’가 25.9%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집에서 TV, 라디오와 함께 편히 지낸다’ 21.2%이다. 세번째는 ‘게임방이나 PC방에서 보낸다’가 15.3%이다. 이에 비해 여자는 ‘집에서 TV, 라디오와 함께 편히 지낸다’가 38.4%, ‘집에서 컴퓨터를 한다’가 14.3%, ‘쇼핑을 한다’가 12.2%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컴퓨터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차이를 보이는 활동 내용으로는 쇼핑과 운동으로, 여학생의 12.2%가 쇼핑을 하는 반면, 남학생은 3.6%가 쇼핑을 한다. 이와 달리 운동은 남학생의 8.7%가, 여학생의 0.7%가 운동을 한다.

학교별 여가활동 내용을 보면, 중학생이 집에서 보내는 비율은 55.8%, 인문고는 48.9%, 실업고는 39.0%로, 실업고 학생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을 집밖에서 많이 보내고 있었다.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여가 내용으로는 ‘노래방, 비디오방, 콜라텍’을 이용하는 것으로 중학생의 1.6%, 인문고 5.4%, 실업고 11.2%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실업고생이 3.7%로 중학생 0.5%, 인문고 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 (3) 문화복지시설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올해 들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회관」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학생은 33.3%, 「청소년문화의집」은 7.9%, 「야간공부방」은 30.1%, 「청소년상담실」은 5.4%, 「종합사회복지관」은 9.0%, 「구민회관」은 13.0%로 나타났다. 「구민체육센터」이용자는 9.2%, 「공공도서관」은 36.7%,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7.0%, 「동사무소의 인터넷 및 교육프로그램」은 8.6%, 「청소년전용광장」은 7.4%, 「이동청소년수련광장」은

〈표 3-5〉 토·일·공휴일의 여가활동 내용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집에서 TV,라디오	21.2	38.4	29.4	31.0	22.0	872(28.7)
컴퓨터(집)	25.9	14.3	26.4	17.9	17.0	635(20.9)
PC방	15.3	4.8	10.9	9.4	13.4	326(10.7)
쇼핑	3.6	12.2	5.4	9.2	6.9	224( 7.4)
종교활동	5.6	7.2	7.2	6.5	3.9	190( 6.2)
그림, 음악, 독서	5.3	6.9	6.1	5.9	6.1	182( 6.0)
운동	8.7	0.7	4.4	5.7	5.8	159( 5.2)
노래방, 비디오방, 콜라텍	4.9	5.4	1.6	5.4	11.2	156( 5.1)
공부	3.7	2.9	3.6	4.1	1.0	101( 3.3)
영화(극), 전시회, 음악회	1.3	2.0	1.2	1.9	1.9	49( 1.6)
아르바이트	1.3	0.7	0.5	0.3	3.7	32( 1.0)
방송국	0.2	1.0	0.6	0.5	0.5	17( 0.6)
청소년·시민단체	0.1	0.2	0.1	0.1	0.3	5( 0.2)
기타	2.9	3.3	2.6	2.1	6.3	94( 3.1)
계	1,716	1,326	1,123	1,329	590	3,042

● 성별  $\chi^2=391.23^{**}$  학교별  $\chi^2=226.07^{**}$

6.0%이다.

이용시설별로 불편한 점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회관」은 전체 이용자의 27.3%가 ‘시설이 멀다’, 20.2%가 ‘시설이 낡았고 쾌적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에 대해서는 ‘시설이 멀다’가 22.3%, ‘찾아가기가 어렵다’가 10.7%로 나타났다. 「야간공부방」 이용자는 ‘시설이 낡았고 쾌적하지 못하다’가 32.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청소년상담실」 이용자는 다른 시설에 비해 ‘찾아가기가 어렵다’가 25.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어 ‘시설이 멀다’가 18.2%, ‘프로그램 전문성 부족’이 11.7%, ‘시설에 대한 홍보나 정보가 부족하다’가 10.4%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는 ‘찾아가기가 어렵다’가 15.7%, ‘시설에 대한 홍보

나 정보가 부족하다'가 14.0%로 나타났고, '시설이 멀다'가 12.4%로 나타났다. 「구민회관」 이용자는 불편한 점으로 '시설이 멀다'와 '시설에 대한 홍보나 정보가 부족하다'가 각각 14.3%로 가장 많으며, '시설이 낡았고 쾌적하지 못하다'가 10.8%로 나타났다. 「구민체육센터」 이용자는 '이용시간이 짧거나 한정되어 있다'가 16.3%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이 멀다'가 14.0%, '시설이 낡았고 쾌적하지 못하다'가 10.1%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불편한 점으로 '시설이 낡았고 쾌적하지 못하다'를 20.4%, '시설이 멀다'를 20.2%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표 3-6> 문화복지시설별 이용 현황과 문제점(계속)

개선점 \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및 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야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	종합사회 복지관	구민회관
시설이용 경험						
있다	33.3	7.9	30.1	5.4	9.0	13.0
없다	66.7	92.1	69.9	94.6	91.0	87.0
시설이 멀다	<b>27.3</b>	<b>22.3</b>	8.0	<b>18.2</b>	<b>12.4</b>	<b>14.3</b>
시설노후	<b>20.2</b>	9.8	<b>32.0</b>	2.6	9.9	<b>10.8</b>
시설이 좁다	3.8	8.0	8.0	6.5	6.6	3.0
불친절과 심한 통제	5.6	8.0	8.7	5.2	6.6	7.8
시간이 짧다	3.0	7.1	8.5	3.9	7.5	3.6
찾기가 어려움	4.1	<b>10.7</b>	2.7	<b>25.9</b>	<b>15.7</b>	9.0
교통 불편	3.8	4.5	1.2	3.9	6.6	5.4
이용료 부담	4.1	4.5	8.7	·	·	3.0
대기시간 김	1.1	5.4	5.8	2.6	0.8	9.6
기자재 노후	2.4	2.7	3.9	·	4.1	1.2
홍보, 정보부족	6.7	8.9	2.7	<b>10.4</b>	<b>14.0</b>	<b>14.3</b>
프로그램전문성부족	8.2	0.9	1.4	<b>11.7</b>	7.5	4.8
휴게공간의 부재	2.6	2.7	4.3	1.3	0.8	3.6
없다	7.1	4.5	4.1	7.8	7.5	9.6
계	465	112	413	77	121	167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이용한 학생은 22.2%가 ‘시설이 멀다’, 20.2%가 ‘찾아가기가 어렵다’, 16.2%가 ‘시설에 대한 홍보나 정보가 부족하다’를 지적하고 있다. 여타 시설에 비해 홍보나 정보 부족에 대한 지적이 높다. 「동사무소의 인터넷 및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는 학생의 13.1%가 ‘이용시간이 짧거나 한정되어 있다’, 12.3%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를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전용광장」은 ‘시설이 멀다’가 23.2%로 가장 많으며, ‘시설에 대한 홍보나 정보의 부족’이 14.2%, ‘시설이 낡았고 쾌적하지 못하다’ 13.1%, ‘찾아가기가 어렵다’ 12.1%로 나타났다. 「이동청소년수련광장」을 이용한 학생은 23.8%가 ‘시설이 멀다’, 13.8%가 ‘시설이 낡았고 쾌적하지 못하다’, 12.5%가 ‘시설이용에 대한 홍보나 정보가 부족하다’, 10.0%가 ‘찾아가기가 어렵다’를 불편한 점으로 들고 있다.

<표 3-6> 문화복지시설별 이용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 \ 시설	구민 체육센터	공공 도서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동사무소 인터넷 및 교 육 프로그램	청소년 전용광장	이동 청소년 수련광장
시설이용 경험						
있다	9.2	36.7	7.0	8.6	7.4	6.0
없다	90.8	63.3	93.0	91.4	92.6	94.0
시설이 멀다	<b>14.0</b>	<b>20.2</b>	<b>22.2</b>	7.4	<b>23.2</b>	<b>23.8</b>
시설노후	<b>10.1</b>	<b>20.4</b>	3.0	8.2	<b>13.1</b>	<b>13.8</b>
시설이 좁다	7.0	4.4	5.0	4.1	6.1	6.2
불친절과 심한 통제	4.6	8.0	6.1	9.0	1.0	2.5
시간이 짧다	<b>16.3</b>	7.8	1.0	<b>13.1</b>	1.0	3.8
찾기가 어려움	9.3	4.6	<b>20.2</b>	9.9	<b>12.1</b>	<b>10.0</b>
교통 불편	3.9	2.8	2.0	1.6	6.1	6.2
이용료 부담	7.8	1.4	7.1	2.4	4.0	5.0
대기시간 김	6.2	8.2	2.0	7.4	1.0	1.2
기자재 노후	4.6	4.4	·	3.3	3.0	·
홍보, 정보부족	4.6	5.2	<b>16.2</b>	9.8	<b>14.2</b>	<b>12.5</b>
프로그램전문성부족	2.3	1.4	7.1	<b>12.3</b>	4.0	5.0
휴게공간의 부재	1.5	3.4	2.0	1.6	4.1	5.0
없다	7.8	7.8	6.1	9.9	7.1	5.0
계	129	500	99	122	99	80

#### (4) 여가문화활동의 장애요인

여가·문화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부담’이 25.6%로 가장 많고, 이어 ‘시간부족’ 18.9%, ‘원하는 시설부족’ 18.5%, ‘시설이 멀어서’ 16.7%, ‘정보부족’ 8.7%의 순으로 나타나서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기는데 있어 비용과 시간, 여가를 즐길만한 장소가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여가·문화활동의 장애요인은 성별,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용부담’, ‘시간부족’, ‘원하는 시설부족’, ‘시설이 멀어서’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학교별 모두 ‘비용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고의 경우는 30.6%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간부족’에 대해서는 특히 입시준비를 앞두고 있는 인문고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중학생의 경우 여가문화활동의 어려운 점으로 19.2%가 ‘시설이 멀어서’를 들고 있어, 인문고생 15.8%, 실업고생 14.1%에 비해 거리의 제약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여가·문화활동의 장애요인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비용이 부담됨	24.5	26.9	22.1	26.2	30.6	773(25.6)
시간 부족	19.2	18.5	18.5	20.7	15.4	571(18.9)
원하는 시설 부족	17.3	20.0	16.1	20.9	17.5	559(18.5)
시설이 멀어서	15.8	17.9	19.2	15.8	14.1	506(16.7)
정보 부족	8.5	9.0	8.9	8.7	8.3	263( 8.7)
함께할 사람 없음	6.1	2.3	6.4	2.8	4.6	135( 4.5)
어려운점 없음	5.8	2.6	5.5	2.9	5.8	134( 4.4)
여가활동 원치않음	1.7	1.8	2.3	1.0	2.5	53( 1.7)
기타	1.1	1.0	1.0	1.0	1.2	31( 1.0)
계	1,701	1,324	1,108	1,328	589	3,025

• 성별  $\chi^2=47.50^{**}$  학교별  $\chi^2=70.99^{**}$

## 2) 동아리 활동

### (1) 활동 여부

학교나 학교 밖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57.2%로 과반수 이상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성별 활동여부는 여학생의 참여율이 49.1%로, 남학생 63.3%에 비하면 많이 낮다. 학교별로는 중학생 62.7%, 인문고 53.3%, 실업고 55.0%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 (2) 동아리 활동유형

동아리 활동을 유형별로 보면, ‘스포츠 동아리’(19.7%), ‘기타’(13.5%), ‘컴퓨터 게임’(10.7%), ‘노래·음악밴드’(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스포츠’가 2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컴퓨터 게임’이 15.8%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노래·음악밴드’가 1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와 ‘컴퓨터 게임’은 각각 8.9%, 2.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남녀간의 동아리 활동유형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생은 ‘스포츠 동아리’(23.4%), ‘컴퓨터 게임’(10.8%)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문고는 ‘스포츠 동아리’(16.1%)가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고는 ‘스포츠’(19.4%), ‘컴퓨터 게임’(18.8%), ‘노래·음악밴드’(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고생의 경우는 ‘노래·음악밴드’가 중학생이나 인문고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컴퓨터 게임’은 인문고생이 중학생이나 실업고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기타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기타에는 과학 동아리, 종교, 청소년 단체, 팬클럽활동, 외국어, 요리, 봉사단체, 수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희망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는 2.3%에 불과하여, 대부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한다. 희망하는 동아리 활동유형은 ‘컴퓨터 게임’(18.1%), ‘노래·음악밴드

드'(14.3%), '스포츠 동아리'(11.4%)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동아리 활동유형 역시 성별,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컴퓨터 게임'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스포츠 동아리'(15.5%), '노래·음악밴드'(13.2%)가 높게 나타났다.

<표 3-8> 성별 동아리 활동유형 및 희망동아리 활동유형

	참여 유형			참여 희망 유형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있다	63.3	49.1	842(57.2)	97.4	98.0	1,479(97.7)
없다	36.7	50.9	631(42.8)	2.6	2.0	35( 2.3)
계	832	641	1,473	854	660	1,514
<b>동아리 유형</b>						
독서,문학	5.5	6.7	50( 5.9)	1.3	2.2	25( 1.7)
영화감상,비평	5.7	8.6	57( 6.8)	7.9	<b>10.8</b>	136( 9.2)
비디오,영화제작	2.5	1.6	18( 2.1)	4.7	5.9	77( 5.2)
사진	0.8	1.6	9( 1.1)	0.9	5.1	40( 2.7)
음악감상	1.0	4.4	19( 2.3)	3.4	3.7	52( 3.5)
노래,음악밴드	8.5	<b>12.4</b>	<b>84(10.0)</b>	<b>13.2</b>	<b>15.6</b>	<b>211(14.3)</b>
풍물,전통음악	3.6	2.5	27( 3.2)	0.2	1.3	10( 0.7)
신문제작	0.6	4.1	16( 1.9)	0.2	0.9	8( 0.5)
방송제작	2.1	3.2	21( 2.5)	4.3	<b>13.9</b>	126( 8.5)
춤	4.7	6.4	45( 5.3)	6.9	<b>12.8</b>	140( 9.5)
미술	2.5	7.6	37( 4.4)	0.9	1.5	17( 1.0)
역사탐방, 여행	2.7	1.6	19( 2.3)	3.2	5.9	65( 4.4)
스포츠	<b>26.2</b>	8.9	<b>166(19.7)</b>	<b>15.5</b>	6.0	<b>168(11.4)</b>
연극	1.9	4.1	23( 2.7)	1.0	4.0	34( 2.3)
컴퓨터 게임	<b>15.8</b>	2.2	<b>90(10.7)</b>	<b>28.8</b>	4.2	<b>267(18.1)</b>
만화	5.1	6.4	47( 5.6)	5.3	3.9	69( 4.7)
기타	10.8	17.7	<b>114(13.5)</b>	2.3	2.3	34( 2.3)
계	527	315	842	832	647	1,479

● 동아리 참여경험 유무: 성별  $\chi^2=29.81^{**}$

● 동아리유형: 성별  $\chi^2=121.53^{**}$

● 희망동아리유형: 성별  $\chi^2=268.47^{**}$

〈표 3-9〉 학교별 동아리 활동유형 및 희망동아리 활동유형

	참여 유형				참여 희망 유형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합계(%)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합계(%)
있다	62.7	53.3	55.0	842(57.2)	98.2	98.5	94.9	1,479(97.7)
없다	37.3	46.7	45.0	631(42.8)	1.8	1.5	5.1	35( 2.3)
계	560	651	262	1,473	562	656	296	1,514
<b>동아리유형</b>								
독서,문학	4.6	7.2	6.3	50( 5.9)	1.8	2.0	0.7	25( 1.7)
영화감상,비평	8.8	6.6	2.1	57( 6.8)	9.1	<b>10.4</b>	6.8	136( 9.2)
비디오,영화제작	2.0	2.3	2.1	18( 2.1)	2.5	6.8	6.8	77( 5.2)
사진	0.3	2.0	0.7	9( 1.1)	2.7	2.3	3.6	40( 2.7)
음악감상	2.9	1.4	2.8	19( 2.3)	4.0	2.6	4.6	52( 3.5)
노래,음악밴드	8.8	8.9	<b>15.3</b>	<b>84(10.0)</b>	<b>10.9</b>	<b>15.8</b>	<b>17.4</b>	<b>211(14.3)</b>
풍물,전통음악	2.9	3.5	3.5	27( 3.2)	0.7	0.9	·	10( 0.7)
신문제작	1.4	3.2	·	16( 1.9)	1.1	0.3	·	8( 0.5)
방송제작	2.9	1.7	3.5	21( 2.5)	8.5	9.3	6.8	126( 8.5)
춤	3.7	6.1	7.6	45( 5.3)	<b>11.6</b>	7.1	<b>10.7</b>	140( 9.5)
미술	5.1	5.2	0.7	37( 4.4)	0.9	1.7	0.3	17( 1.0)
역사탐방, 여행	3.1	2.0	0.7	19( 2.3)	3.5	6.5	1.4	65( 4.4)
스포츠	<b>23.4</b>	<b>16.1</b>	<b>19.4</b>	<b>166(19.7)</b>	<b>10.3</b>	<b>10.8</b>	<b>14.6</b>	<b>168(11.4)</b>
연극	1.1	4.6	2.1	23( 2.7)	2.5	2.2	2.1	34( 2.3)
컴퓨터 게임	<b>10.8</b>	7.2	<b>18.8</b>	<b>90(10.7)</b>	<b>23.7</b>	<b>13.5</b>	<b>17.4</b>	<b>267(18.1)</b>
만화	7.1	4.9	3.5	47( 5.6)	5.1	4.5	4.3	69( 4.7)
기타	11.1	17.1	10.9	<b>114(13.5)</b>	1.1	3.3	2.5	34( 2.3)
계	352	348	146	842	552	646	281	1,479

● 동아리참여: 학교별  $\chi^2=11.44^*$

● 동아리참여희망: 학교별  $\chi^2=12.46^*$

● 동아리유형: 학교별  $\chi^2=73.92^{**}$

● 희망동아리유형: 학교별  $\chi^2=88.51^{**}$

반면 여학생은 ‘노래·음악밴드’가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송제작’(13.9%), ‘춤동아리’(12.8%), ‘영화감상·비평’(10.9%)이 뒤이어 높게 나타났으나 ‘스포츠 동아리’(6.0%)와 ‘컴퓨터 게임’(4.2%)은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중학생은 ‘컴퓨터 게임’(23.7%), ‘춤동아리’(11.6%), ‘노래·음악

밴드'(10.9%)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문고는 '노래·음악밴드'(15.8%), '컴퓨터 게임'(13.5%), '스포츠'(1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고는 '컴퓨터 게임'과 '노래·음악밴드'가 모두 1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스포츠 동아리'(14.6%)가 높게 나타났다.

'노래·음악밴드'의 경우는 중학생에 비해 인문고와 실업고생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컴퓨터 게임'의 경우는 중학생이 인문고와 실업고생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춤동아리'의 경우, 참여유형에서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참여희망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스포츠, 노래와 춤과 같은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활동에 필요한 적당한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가 26.0%로 제일 많고, 이어 '활동회수나 시간이 짧다'가 22.6%, '비용부담'이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시 불편한 점은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인문고생의 경우는 '시설이나 공간의 부족'이 34.1%로 나타남으로써, 중학생(19.8%)과 실업고생(2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과 실업고생의 경우는 '활동회수나 시간이 짧다'의 불편사항을 일순위로 꼽고 있어 인문고생과 차이를 보였다. 실업고생의 경우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18.1%를 나타냄으로써, 중학생(10.9%)과 인문고생(1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3) 컴퓨터 이용

#### (1) 집에서의 인터넷 이용 여부

집에서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 학생은 72.9%, 없는 학생은 27.1%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는데, 먼저 성별로는 여학생의 컴퓨터 보유율이 69.7%로 남학생의 75.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실업고의 경우 컴퓨터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61.8%로 나타나 중학교 76.2%, 인문고 75.0%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3-10>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점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시설공간부족	24.6	28.5	19.8	34.1	21.3	201(26.0)
활동시간이 짧음	23.2	21.7	28.7	17.2	22.5	175(22.6)
비용부담	11.8	15.6	10.9	11.9	18.1	99(12.8)
없다	13.0	10.0	12.0	8.7	18.1	92(11.9)
기자재부족	12.2	9.2	10.6	10.6	13.1	86(11.1)
지도자부족	6.1	5.7	6.1	7.5	2.5	46( 6.0)
원거리	5.7	6.4	9.9	4.1	2.5	46( 6.0)
기타	3.4	3.9	2.0	5.9	1.9	28( 3.6)
계	492	281	293	320	160	773

● 학교별  $\chi^2=61.19^{**}$

### (2) 컴퓨터(인터넷) 활용법 숙지 유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은 91.0%, 모르는 학생은 9.0%로 대부분의 학생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학생의 94.1%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여학생은 86.9%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여학생의 컴퓨터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가능 능력이 남학생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 (3) 컴퓨터(인터넷) 이용 장소

인터넷을 주로 하는 장소는 집이 50.1%로 가장 많으며, PC방도 46.3%나 된다. 실업고는 가정내 컴퓨터 보유율이 낮은 만큼 64.0%가 PC방에서 주로 인터넷을 하고 있다.

<표 3-11> 컴퓨터(인터넷) 이용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컴퓨터 보유						
있다	75.3	69.7	76.2	75.0	61.8	1,119(72.9)
없다	24.7	30.3	23.8	25.0	38.2	417(27.1)
계	869	667	567	668	301	1,536
활용법 숙지유무						
알고 있다	94.1	86.9	90.5	91.7	90.4	1,396(91.0)
모른다	5.9	13.1	9.5	8.3	9.6	138( 9.0)
계	869	665	567	666	301	1,534
활용장소						
집	50.4	49.6	57.0	51.9	33.4	734(50.1)
PC방	46.9	45.6	39.7	43.7	64.0	679(46.3)
학교	0.8	2.6	1.5	2.3	0.3	23( 1.6)
공공시설	0.2	0.5	0.2	0.5	0.3	5( 0.3)
기타	1.7	1.7	1.6	1.6	2.0	25( 1.7)
계	845	621	549	620	297	1,466

● 컴퓨터보유: 성별  $\chi^2=5.86^*$  학교별  $\chi^2=23.36^{**}$

● 활용법 숙지유무: 성별  $\chi^2=23.95^{**}$

#### 4) 희망하는 여가문화시설과 프로그램

##### (1) 필요로 하는 여가문화시설

희망하는 여가문화시설로 ‘청소년문화의집’이 27.0%로 가장 많고, 이어 ‘청소년 영화관’이 13.3%, ‘PC방’이 12.0%, ‘공원’이 11.2%, ‘동아리 지원시설’이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 희망하는 여가문화시설에서 특히 차이가 나는 시설은 ‘체육시설’과 ‘PC방’으로 이는 앞서 동아리 활동유형과 희망 동아리 활동유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관되게 ‘체육시설’은 남학생의 14.5%, 여학생의 2.5%가 희망하고 있고, ‘PC방’은 남학생의 14.7%가, 여학생의 8.6%가 희망하고 있

다. 학교별로는 중학생과 실업고생은 'PC방'에 대해 각각 15.2%, 13.8%를 나타냄으로써 인문고생의 8.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2> 필요로 하는 여가문화시설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청소년문화의집	25.2	29.4	27.1	28.5	23.5	815(27.0)
청소년 영화관	10.9	16.3	13.1	14.4	11.0	401(13.3)
PC방	14.7	8.6	15.2	8.5	13.8	362(12.0)
공원	10.7	11.7	10.0	11.1	13.5	337(11.2)
동아리지원시설	9.9	9.5	9.3	9.9	10.0	293( 9.7)
체육시설	14.5	2.3	6.4	11.1	10.0	276( 9.1)
공연, 전시시설	4.2	8.6	4.7	6.4	8.4	185( 6.1)
콜라텍	3.6	5.8	6.0	3.2	4.8	137( 4.5)
도서관	2.8	4.1	3.5	4.5	0.7	102( 3.4)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회관	2.1	2.7	3.5	1.4	2.4	72( 2.4)
기타	1.4	1.0	1.2	1.0	1.9	38( 1.3)
계	1,701	1,317	1,115	1,323	580	3,018

• 성별  $\chi^2=201.22^{**}$  학교별  $\chi^2=101.50^{**}$

## (2) 희망하는 동아리축제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

학생들이 참여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축제는 '청소년 영화제'로 18.0%가 희망하고 있으며, 이어 16.0%가 '청소년 음악제'를 희망하고 있다. 이어 '청소년 방송제'는 10.1%, '청소년 체육제'는 8.6% , '정보통신제'는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국제교류제'는 6.0%가 선택을 하였고, '직업체험제'와 '농어촌 생활체험제'가 각각 4.8%로 나타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봤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체육제'와 '정보통신제'로써 남학생은 각각 13.2%, 11.1%를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각각 2.8%, 3.8%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방송제'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 14.3%로 남학생 6.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경제

#### 1) 용돈

##### (1) 용돈 수준

한달 평균 용돈 액수는 40,000원으로, 3-5만원 미만대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만원 이상을 쓰고 있는 청소년도 9.6%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한달 용돈 평균액은 43,300원으로 여학생 35,700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25,000원, 인문고가 42,100원, 실업고가 65,100원으로 실업고생의 월 평균 용돈 사용이 두드러지게 많음을 알 수 있다.

##### (2) 용돈 만족도

용돈 액수에 대해 약 절반 정도인 48.9%가 '충분'(매우 충분'과 '대체로 충분' 포함)하다고 하며, '조금 부족하다'가 37.1%, '매우 부족하다'가 14.0%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남학생의 47.1%, 여학생의 51.4%가 용돈이 충분하다고 대답하였다. 학교별로는 중학생 57.9%, 인문고 47.5%, 실업고 35.2%가 용돈이 충분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평균용돈의 액수와 용돈 만족도간에 반비례 관계가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실업고생은 월 평균용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용돈 마련방법

용돈을 주로 마련하는 방법은 '부모님에게 받는다'가 92.4%로 가장 많고, '스스로 번다'가 3.9%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용돈을 '스스로 번다'가 5.6%, 여학생은 1.8%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스스로 용돈을 버는 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여학생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교와 인문고에서는 '스스로 번다'가 각각 2.1%, 2.4%인데 반해, 실업고는 10.7%가 용돈을 스스로 벌고 있다.

<표 3-14> 용돈(한달평균용돈, 만족도, 마련방법, 쓰임내역)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한달 평균 용돈</b>						
2만원 미만	20.6	20.5	38.8	11.5	6.3	305(20.6)
2-3만원 미만	18.4	18.3	24.3	16.9	10.2	272(18.3)
3-5만원 미만	29.2	36.8	26.0	39.9	28.2	482(32.5)
5-10만원 미만	18.1	20.0	8.9	23.3	28.2	281(19.0)
10만원 이상	13.7	4.4	2.0	8.4	27.1	143( 9.6)
<b>평균</b>	43,300원	35,700원	25,000원	42,100원	65,100원	40,000원
<b>계</b>	839	644	547	652	284	1,483
<b>용돈 만족도</b>						
매우 충분	11.0	8.8	14.5	7.3	7.6	154(10.0)
대체로 충분	36.1	42.6	43.4	40.2	27.6	597(38.9)
조금 부족	36.8	37.5	32.5	38.9	41.9	569(37.1)
매우 부족	16.1	11.1	9.6	13.6	22.9	214(14.0)
<b>계</b>	867	667	564	669	301	1,534
<b>마련 방법</b>						
부모님	90.2	95.4	93.6	94.5	85.6	1,414(92.4)
스스로	5.6	1.8	2.1	2.4	10.7	60( 3.9)
형제, 친지	2.9	2.4	3.2	2.4	2.4	41( 2.7)
기타	1.4	0.5	1.1	0.7	1.3	15( 1.0)
<b>계</b>	864	666	563	668	299	1,530
<b>쓰임 내역</b>						
물품 구입	23.8	46.5	37.9	33.4	26.6	514(33.7)
스포츠, 놀이	40.8	12.8	32.8	25.4	27.9	436(28.6)
간식, 식사	18.1	31.9	20.8	27.2	23.6	368(24.1)
데이트	7.9	1.4	1.4	4.2	13.6	77( 5.1)
문화활동	5.2	3.6	3.2	5.9	4.0	69( 4.5)
기타	4.2	3.8	3.9	3.9	4.3	61( 4.0)
<b>계</b>	861	664	562	662	301	1,525

●용돈평균:성별  $\chi^2=40.28^{**}$  학교별  $\chi^2=355.43^{**}$  ●용돈만족도:성별  $\chi^2=62.08^{**}$  학교별  $\chi^2=12.69^{**}$   
 ●마련방법:성별  $\chi^2=47.20^{**}$  학교별  $\chi^2=18.32^{**}$  ●쓰임내역:성별  $\chi^2=82.98^{**}$  학교별  $\chi^2=223.72^{**}$

#### (4) 용돈 쓰임 내역

용돈 사용 내역을 보면, ‘학용품, 의류 등의 갖고 싶은 물품구입’ 33.7%, ‘스포츠나 놀이비용’ 28.6%, ‘친구와 간식, 식사’가 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돈 쓰임내역은 성별,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40.8%가 ‘스포츠나 놀이 비용’에 용돈을 주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3.8%가 ‘학용품이나 의류 등의 갖고 싶은 물품구입’에 용돈을 지출하였다.

여학생은 46.5%가 ‘학용품이나 의류 등의 갖고 싶은 물품구입’에 용돈을 주로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31.9%가 ‘친구와 간식, 식사’를 하는데 용돈을 지출하고 있어, 남학생과 용돈의 쓰임내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별로는 실업고의 13.6%가 ‘데이트 비용’에 응답해, 중학생(1.4%)이나 인문고(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데이트 비용에 용돈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아르바이트 현황

### (1) 아르바이트 경험률

아르바이트를 ‘현재 하고 있다’는 4.3%, ‘한 적이 있다’는 38.5%, ‘한 적이 없다’는 57.2%로 나타나, 42.8%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의 경험유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성별로는 남학생의 6.0%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44.3%가 한 적이 있어, 전체 남학생의 약 절반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 여학생은 ‘현재 하고 있다’가 1.9%, ‘한 적이 있다’가 31.0%로, 전체 여학생의 32.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여, 남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낮은 편이다.

학교별 아르바이트 경험은 실업고가 가장 높아, ‘현재 하고 있다’가 12.3%로 나타나 중학교 2.5%, 인문고 2.1%에 비해 높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역시 중학생이 29.5%, 인문고가 38.0%, 실업고가 56.8%로 나타나, 실업고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6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2)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0.3시간으로, 1시간부터 40시간 이상에 이르기까지 시간대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단지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적이고 간헐적인 아르바이트에서부터 근무시간이 고정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아르바이트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폭이 크다 할 수 있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남학생이 11.0시간으로 여학생의 9.0시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은 평균 6.7시간, 인문고 10.3시간, 실업고가 13.5시간으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높았으며, 인문고에 비해 실업고생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3) 한달 평균 임금

한달 평균임금은 137,500원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수준의 폭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크게 벌어졌는데, 이는 직종의 다양성에 기인한 것이다. 월 평균 임금은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남학생이 152,400원으로 여학생 104,700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뒤에 아르바이트 근무 직종의 유형별 차이에서 보면 알겠지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근로시간도 길고, 직종 선택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 임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는 한달 평균 임금이 중학생 40,900원, 인문고 117,600원, 실업고 247,400원으로 나타났다. 실업고생의 임금수준은 인문고생의 2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50만원 이상의 범주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18.1%나 차지하고 있어 중학생(1.4%)이나 인문고생(3.8%)과는 임금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4) 임금 만족도

아르바이트 임금수준에 대해 긍정적(많이 받음/적당히 받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48.5%, 부정적(적음/매우 적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51.5%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비율과 부정적인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15〉 아르바이트 경험, 평균근무시간, 평균임금, 임금만족도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아르바이트 경험</b>						
현재하고 있다	6.0	1.9	2.5	2.1	12.3	65( 4.3)
한 경험이 있다	44.3	31.0	29.5	38.0	56.8	590(38.5)
한 적이 없다	49.7	67.1	68.0	59.9	30.9	876(57.2)
계	866	665	566	664	301	1,531
<b>주당평균근무시간</b>						
3시간미만	17.4	20.5	34.2	14.9	10.3	110(18.4)
3-6시간 미만	25.5	33.2	32.9	29.7	21.6	167(27.9)
6-15시간미만	25.5	25.8	20.0	25.3	30.4	153(25.6)
15-40시간 미만	23.5	17.4	11.6	24.9	25.3	129(21.6)
40시간 이상	8.1	3.1	1.3	5.2	12.4	39( 6.5)
평균	11.0시간	9.0시간	6.7시간	10.3시간	13.5시간	10.3시간
계	408	190	155	249	194	598
<b>한달 평균 임금</b>						
2만원 미만	19.7	23.1	46.9	15.9	6.0	118(20.8)
2-7만원 미만	22.8	37.6	39.5	30.1	13.8	155(27.3)
7-25만원 미만	29.6	23.7	9.5	39.3	27.5	158(27.8)
25-50만원 미만	18.0	12.7	2.7	10.9	34.6	93(16.4)
50만원 이상	9.9	2.9	1.4	3.8	18.1	44( 7.7)
평균	152,400원	104,700원	40,900원	117,600원	247,400원	137,500원
계	395	173	147	239	182	568
<b>임금 만족도</b>						
많이 받음	13.8	13.1	16.8	13.9	10.3	88(13.6)
적당히 받음	36.6	31.5	29.8	37.2	36.5	226(34.9)
적게 받음	30.7	33.8	32.0	29.0	35.0	205(31.7)
매우 적게 받음	18.9	21.6	21.4	19.9	18.2	128(19.8)
계	434	213	178	266	203	647

- **알바경험**: 성별  $\chi^2=144.21^{**}$  학교별  $\chi^2=51.90^{**}$
- **평균근무시간**: 성별  $\chi^2=10.53^*$  학교별  $\chi^2=64.64^{**}$
- **한달평균임금**: 성별  $\chi^2=21.42^{**}$  학교별  $\chi^2=216.29^{**}$

(5) 아르바이트 동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는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가 49.8%로 가장 많고, 이어 ‘친구들과 노는데 필요한 교체비 마련’이 18.0%로 많았다. 그러나 돈과 관계없이 사회생활(일) 혹은 독립심의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15.2%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학생의 경우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가 44.7%, 여학생은 이보다 많은 60.3%로 나타났고, 친구와의 교체비 마련은 남학생이 20.2%로 여학생 1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사회생활 경험이나 독립감, 데이트 비용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별로는 실업고생이 ‘생활비나 학비마련’과 ‘데이트 비용마련’을 위해 일을 하는 비율이 중학생이나 인문고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6> 아르바이트의 동기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원하는 것 구입	44.7	60.3	48.0	53.5	46.6	318(49.8)
친구와의 교체비	20.2	13.4	21.7	16.6	16.5	115(18.0)
여행, 취미 경비마련	6.3	5.7	5.7	7.0	5.3	39( 6.1)
사회생활 경험	7.0	3.4	6.3	6.6	4.4	37( 5.8)
일의 경험	4.9	7.7	8.0	3.9	6.3	37( 5.8)
데이트 비용	6.0	1.9	0.6	4.2	8.8	30( 4.7)
독립감	4.2	2.4	2.9	3.5	4.4	23( 3.6)
생활비, 학비마련	3.9	1.4	3.4	0.8	5.8	20( 3.1)
기타	2.8	3.8	3.4	3.9	1.9	20( 3.1)
계	430	209	175	258	206	639

● 성별  $\chi^2=25.40^{**}$  학교별  $\chi^2=33.01^*$

(6) 아르바이트 참여 직종

아르바이트 참여 직종 가운데는 ‘전단지나 스티커 부착’ 아르바이트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배달’(음식배달, 신문배달, 서류배달이 포함)이 14.7%, ‘서빙’(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가게, 커피숍 포함)이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단지나 스티커 부착’은 거의 50% 수준으로 비슷하게 높았다. 남학생은 배달 관련업무에 20.1%, 서빙이나 카운터 관련업무(상점, 편의점, 도서·비디오 대여점 포함)가 각각 11.2%, 7.5%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직종 특성상 오히려 서빙(17.2%)이나 카운터 관련(9.3%)업무가 배달(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과 인문고생은 전단지나 스티커 부착이 각각 67.4%, 50.8%로 매우 높게 나타난데 반해, 실업고생은 29.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배달업이나 서빙에서는 실업고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배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고생의 전체 직종 가운데 신문배달이 차지하는 비율은 8.7%, 음식배달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인데 반해, 실업고생의 경우는 신문배달이 6.3%, 음식배달이 15.1%로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17> 아르바이트 참여 직종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전단지	47.0	52.1	67.4	50.8	29.6	318(48.7)
배달	20.1	3.7	7.7	13.5	22.3	96(14.7)
서빙	11.2	17.2	5.6	11.6	21.9	86(13.2)
카운터 관련	7.5	9.3	7.7	9.4	6.8	53( 8.1)
건설 및 제조업	3.9	3.3	3.9	3.4	3.9	24( 3.7)
주유소	3.0	2.8	·	0.4	8.7	19( 2.9)
기타	7.3	11.6	7.7	10.9	6.8	57( 8.7)
계	438	215	181	266	206	653

● 성별  $\chi^2=34.83^{**}$  학교별  $\chi^2=102.12^{**}$

### (7) 아르바이트 구직방법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의 구직 통로를 보면 ‘친구나 선배’가 4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접방문’이 28.5%, ‘가족이나 친척’이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아르바이트 구직통로는 남자의 47.8%, 여자의 34.1%가 ‘친구나 선배’를 통하였고, 여학생은 ‘지역정보신문’을 통해서가 12.0%로 남자의 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34.8%가 ‘직접 방문’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얻고 있어, 인문고 24.7%, 실업고 27.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8> 아르바이트 구직방법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친구나 선배	47.8	34.1	44.2	43.1	42.8	284(43.3)
직접방문	28.2	29.0	34.8	24.7	27.9	187(28.5)
가족,친척	9.8	12.0	9.4	12.4	9.1	69(10.5)
지역정보 신문	5.0	12.0	2.2	9.0	9.6	48( 7.3)
옥외광고	3.9	6.0	5.0	3.4	5.7	30( 4.6)
자영업	2.3	1.8	2.2	2.6	1.4	14( 2.1)
학교	0.7	0.5	0.5	0.4	1.0	4( 0.6)
컴퓨터 통신	0.7	0.5	·	0.7	1.0	4( 0.6)
청소년 단체	0.2	·	·	·	0.5	1( 0.2)
기타	1.4	4.1	1.7	3.7	1.0	15( 2.3)
계	439	217	181	267	208	656

### (8) 아르바이트 구직시 어려웠던 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미성년자여서 취업할 곳이 없었다’가 29.4%로 가장 많았고, 21.4%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었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과반수가 일자리 자체를 찾는 것이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도 18.5%로 나타나,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여서 취업할 곳이 없었다’가 27.3%이고, 여학생이 33.8%를 보임으로써 여학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반대’가 25.5%로 나타나, 인문고 17.5%, 실업고 1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부모들의 반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표 3-19〉 아르바이트 구직시 어려웠던 점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취업가능 직종의 부족	27.3	33.8	26.7	31.3	29.3	177(29.4)
원하는 일자리의 부재	22.1	20.0	24.8	17.9	23.1	129(21.4)
부모님의 반대	18.4	18.5	25.5	17.5	13.6	111(18.5)
보수, 근무조건 열악	18.4	14.4	12.1	18.3	19.9	103(17.1)
취업정보의 부족	7.2	5.1	4.8	8.9	4.7	39( 6.5)
기타	6.6	8.2	6.1	6.1	9.4	43( 7.1)
계	407	195	165	246	191	602

● 학교별  $\chi^2=19.64^*$

#### (9) 아르바이트시 부당대우나 어려운 점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으로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50.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가 19.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은 올려주지 않았다’가 12.4%,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다’가 7.8%로 나타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상사의 폭력과 폭언’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실업고생이 중학생이나 인문고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10)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방법

일을 하면서 겪은 부당한 대우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해 ‘스스로 일을 중단하였다’가 42.6%로 가장 많았고,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참고 일하였

<표 3-20> 아르바이트시 부당대우나 어려운 점(모두 선택)

전체에 대한 경험자만의 비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별 어려움 없음	47.6	56.6	53.8	51.3	46.3	383(50.4)
부당한 임금	19.1	19.4	22.1	18.4	17.8	146(19.2)
초과업무수당 안줌	13.4	10.1	·	12.9	13.6	94(12.4)
작업환경 불결,위험	7.8	7.6	7.7	8.8	6.6	59( 7.8)
다른업무 부담	5.0	2.5	3.4	3.5	5.8	32( 4.2)
상사의 폭력,폭언	5.0	0.4	1.0	3.5	5.8	27( 3.5)
성희롱,성폭력	0.6	0.4	10.1	·	1.6	4( 0.5)
기타	1.5	3.0	1.9	1.6	2.5	15( 2.0)
계	523	237	208	310	242	760

● 폭력·폭언: 성별  $\chi^2=11.07^{**}$  학교별  $\chi^2=7.83^*$

다가 34.1%로 나타났다. 9.1%는 ‘고발하고 싶었으나 어떤기관을 찾아가야 할지 몰라서 못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성별 대처방법은 남자의 경우 ‘참고 일하였다’가 37.5%로 여자 26.1%에 비해 많았고, ‘상사나 주인에게 항의하였다’ 역시 남자가 11.1%로 여자 4.6%에 비해 많았다. 여자의 13.6%, 남자의 7.2%가 ‘고발하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라 하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학교별로 실업고는 ‘참고 일하였다’가 40.6%로 나타나 중학교 35.0%, 인문고 28.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21> 부당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스스로 일을 중단	40.4	47.7	41.6	49.3	34.1	126(42.6)
참고 일함	37.5	26.1	35.0	28.9	40.6	101(34.1)
고발기관을 잘 모름	7.2	13.6	10.4	7.8	9.9	27( 9.1)
상사에게 항의	11.1	4.6	9.1	7.0	12.1	27( 9.1)
기타	3.8	8.0	3.9	7.0	3.3	15( 5.1)
계	208	88	77	128	91	296

● 성별  $\chi^2=10.86^*$

(11)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지의 의향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학생의 비율은 4.3%로 낮으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학생은 69.7%로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낮는데 반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비율이 72.5%로 나타나 남학생 67.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22>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지의 의향과 동기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아르바이트 의향</b>						
하고 싶다	67.6	72.5	61.5	73.9	75.9	1,052(69.7)
하고 싶지 않다	32.4	27.5	38.5	26.1	24.1	457(30.3)
계	852	657	556	654	299	1,509
<b>하고 싶은 이유</b>						
원하는 것 구입	42.8	56.3	51.2	49.6	43.4	513(48.8)
여행,취미 경비마련	11.9	10.4	9.3	13.2	10.0	118(11.2)
사회생활 경험	10.7	11.7	9.0	14.2	7.7	117(11.1)
친구와의 교제비	12.8	7.0	11.4	8.4	12.2	107(10.2)
일의 경험	4.1	5.1	6.4	3.1	5.0	48( 4.6)
데이트비용	7.1	1.0	2.9	3.3	9.0	46( 4.4)
생활비, 학비마련	4.8	3.0	5.2	2.5	5.4	42( 4.0)
독립의 경험	3.4	3.8	1.7	3.9	5.9	38( 3.6)
기타	2.4	1.7	2.9	1.8	1.4	22( 2.1)
계	580	471	344	486	221	1,051

● **알바 의향:** 성별  $\chi^2=4.12^*$  학교별  $\chi^2=28.48^{**}$

● **알바희망 이유:** 성별  $\chi^2=43.83^{**}$  학교별  $\chi^2=48.12^{**}$

(12)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동기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동기에 대해서는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가 48.8%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동기 외에 사회생활이나 일의 경험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경

우도 15.7%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성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데이트 비용’ 마련으로 남학생은 7.1%를, 여학생은 0.1%를 나타냈다. 학교별로는 실업고생(9.0%)이 중학교(2.9%)와 인문고(3.3%)에 비해 ‘데이트 비용’ 마련에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 (13) 아르바이트 희망 직종

아르바이트 희망 직종은 ‘서빙’(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가게, 커피숍 포함)이 34.9%, ‘아무거나 혹은 돈 많이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가 14.1%, ‘카운터 관련’(상점, 편의점, 도서·비디오 대여점, 자영업 포함)이 13.3%로 나타났다. ‘아무거나 혹은 돈을 많이 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험하거나 유해한 아르바이트 직종에도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서빙’(20.5%), ‘아무거나’(17.1%), ‘컴퓨터 관련’(11.3), ‘카운터 관련’(11.1%)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서빙’(52.3%), ‘카운터 관련’(16.0%), ‘아무거나’(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50%이상이 서빙을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남학생은 컴퓨터나 배달 등 전문적이고 활동적인 직종에의 분산적 선호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학교별로도 ‘서빙’을 희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전단지과 카운터 관련 업종에의 희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직종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전단지나 도서 대여점, 신문배달과 같은 직종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고생의 경우는 ‘아무거나 돈 많이 주면 하겠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음식배달’(오토바이 배달) 역시 높은 비율을 보여서 학생의 신분으로 하기에는 유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기타에는 모니터링, 일용건설직, 아기 보기, 사무보조, 술집 관련 등이 포함되었다.

〈표 3-23〉 아르바이트 희망 직종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서빙	20.5	52.3	25.7	42.1	33.3	338(34.9)
아무거나(돈많이)	17.1	10.5	13.5	12.6	18.4	137(14.1)
카운터 관련	11.1	16.0	18.2	12.8	6.7	129(13.3)
컴퓨터 관련	11.3	2.7	6.3	7.2	9.7	72(7.4)
전단지	9.0	3.0	15.0	2.3	1.5	61(6.3)
음식배달	8.5	0.2	1.6	4.3	10.6	46(4.7)
신문·서류 배달	5.8	2.1	7.2	3.2	1.5	40(4.1)
주유소	3.8	2.5	3.1	2.5	4.8	31(3.2)
노래/춤 관련	2.6	1.6	1.9	2.0	2.9	21(2.2)
기타	10.3	9.1	7.5	11.0	10.6	95(9.8)
계	532	438	319	444	207	970

● 성별  $\chi^2=164.34^{**}$  학교별  $\chi^2=130.25^{**}$

#### 4. 보호·복지

##### 1) 고민거리

###### (1) 최근의 고민이나 걱정거리

최근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는 ‘학업·성적’(36.9%), ‘진학·진로’(30.7%), ‘고민 없음’(10.3%), ‘이성문제’(7.1%), ‘외모·체격’(6.8%)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6.9%)에 비해 ‘고민이 없다’는 비율이 12.8%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시기상 ‘진학·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반면 ‘고민이 없다’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인문고생의 경우는 ‘학업·성적’과 ‘진학·진로’가 81.2%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업고생의 경우는 ‘학업·성적’(13.8%)보다는 ‘진학·진로’(35.2%)의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이성’, ‘외모·체격’, ‘빈곤’, ‘성 관련’에 대한 고민이 중학생이나 인문고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4> 최근의 고민이나 걱정거리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학업·성적	33.0	42.1	40.9	44.0	13.8	565(36.9)
진학·진로	30.3	31.2	20.5	37.2	35.2	469(30.7)
고민 없음	12.8	6.9	15.0	6.0	10.8	157(10.3)
이성	8.2	5.6	6.4	4.8	13.4	108( 7.1)
외모·체격	6.8	6.8	6.7	4.5	12.1	104( 6.8)
빈곤	3.4	2.4	2.5	1.7	6.7	45( 2.9)
친구	1.7	2.6	3.9	0.9	1.3	32( 2.1)
가족	1.8	1.4	2.1	0.6	3.0	25( 1.6)
성관련	1.3	0.3	0.2	0.3	3.4	13( 0.8)
폭력	0.6	0.1	1.1	·	·	6( 0.4)
집단따돌림(왕따)	·	0.1	0.2	·	·	1( 0.1)
기타	0.1	0.5	0.5	·	0.3	4( 0.3)
계	866	663	565	666	298	1,529

## (2) 고민대화 상대

고민대화 상대는 ‘친구, 선후배’가 51.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대화할 상대가 없다’의 비율도 20.6%에 이르러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마땅히 대화할 상대가 없는 청소년들이 다수에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16.8%로 뒤이어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15.6%)에 비해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비율이 24.4%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별로도 역시 ‘친구, 선후배’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업고생은 특히 그 비율이 65.2%에 이르고 있으나, ‘부모님과의 대화’ 비율은 7.4%로 중학생(22.2%)이나 인문고생(16.6%)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25〉 고민대화 상대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친구, 선후배	48.6	54.7	45.6	49.7	65.2	784(51.2)
없다	24.4	15.6	22.2	20.7	17.4	315(20.6)
부모님	15.5	18.6	22.2	16.6	7.4	258(16.8)
형제, 자매	6.7	6.9	6.0	7.6	6.4	104( 6.8)
컴퓨터대화방친구	2.3	1.2	2.0	2.0	1.3	28( 1.8)
학교 선생님	0.9	1.0	0.7	1.2	1.0	15( 1.0)
상담 선생님	·	0.3	0.2	0.1	·	2( 0.1)
전화, 컴퓨터 상담	0.1	·	0.2	·	·	1( 0.1)
기타	1.5	1.7	1.1	2.1	1.3	24( 1.6)
계	865	666	564	668	299	1,531

## (2) 전문상담

‘전문상담을 받을 일이나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71.1%로 높게 나타났으며, ‘몰라서 못 받았다’는 학생이 24.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실업고생의 전문상담 경험이 7.4%로 중학생(3.9%)이나 인문고생(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상담경험자들의 상담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도움을 받았다’(‘매우 도움’ 과 ‘조금 도움’ 포함)는 비율이 62.1%, ‘도움이 안 되었다’는 비율이 37.9%로 나타났다. 전문상담의 희망 정도에서는 ‘받고 싶다’(‘매우 받고 싶다’와 ‘조금 받고 싶다’ 포함)는 비율이 62.1%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여학생이 68.9%로 남학생 57.1%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인문고생이 상대적으로 전문상담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상담 희망방식을 알아본 결과, ‘컴퓨터상담’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전화상담’(24.1%), ‘직접상담’(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에 익숙해 있는 세대라는 특성과 익명성을 요구하는 상담자체의 속성으로 인하여 ‘컴퓨터상담’이나 ‘전화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별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이나 인문고생의 경우는 ‘컴퓨터상담’이 ‘전화상담’의 2배 정도에 이르는 반면 실업고생의 경우는 ‘컴퓨터상담’과 ‘전화상담’이 거의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6> 전문상담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전문상담 경험</b>						
있다	4.1	4.8	3.9	3.4	7.4	67( 4.4)
몰라서 못받음	21.2	28.6	19.5	29.8	22.0	373(24.5)
상담불원	74.7	66.6	76.6	66.8	70.6	1,085(71.1)
계	861	664	564	665	296	1,525
<b>상담효과 (상담경험자만포함)</b>						
매우도움	10.2	7.9	9.4	7.1	11.1	8( 9.2)
조금도움	55.1	50.0	53.1	53.6	51.9	46(52.9)
도움안됨	34.7	42.1	37.5	39.3	37.0	33(37.9)
계	49	38	32	28	27	87
<b>상담희망정도</b>						
매우 받고싶음	11.5	13.0	9.2	14.4	12.6	172(12.1)
조금 받고싶음	45.6	55.9	46.3	53.2	49.5	707(50.0)
받고싶지 않음	42.9	31.1	44.5	32.4	37.9	536(37.9)
계	810	605	512	618	285	1,415
<b>상담방식 (상담희망자만포함)</b>						
컴퓨터상담	40.4	41.5	47.7	41.1	30.5	313(40.9)
전화상담	21.7	26.7	22.2	22.8	29.3	184(24.1)
직접상담	20.4	17.6	17.7	19.7	19.8	146(19.1)
어떤 방식이든	17.5	14.2	12.4	16.4	20.4	122(15.9)
계	406	359	243	355	167	765

● 전문상담 경험: 성별  $\chi^2=12.26^*$  학교별  $\chi^2=26.12^{**}$

● 상담희망정도: 성별  $\chi^2=21.00^{**}$  학교별  $\chi^2=20.02^{**}$

● 상담방식: 학교별  $\chi^2=14.08^*$

## 2) 가출

### (1) 가출충동 및 경험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는 학생이 62.1%로 다수의 학생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녀별로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학교별로는 실업고생(71.7%), 인문고생(64.0%), 중학생(54.7%) 순으로 가출충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출경험의 유무에서는 ‘있다’의 비율이 13.7%, ‘없다’의 비율이 86.3%로 나타나서 충동이 행동으로 옮겨져 실천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남학생이 16.4%로 여학생 10.2%에 비해 가출경험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별로는 실업고생의 비율이 30.9%로 인문고생(10.6%)이나 중학생(8.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27〉 가출충동 및 경험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가출충동</b>						
있다	58.0	67.5	54.7	64.0	71.7	934(62.1)
없다	42.0	32.5	45.3	36.0	28.3	570(37.9)
계	854	650	552	655	297	1,504
<b>가출경험</b>						
있다	16.4	10.2	8.1	10.6	30.9	207(13.7)
없다	83.6	89.8	91.9	89.4	69.1	1,303(86.3)
계	856	654	552	660	298	1,510

● 가출충동: 성별  $\chi^2=14.38^{**}$  학교별  $\chi^2=25.45^{**}$

● 가출경험: 성별  $\chi^2=11.70^{**}$  학교별  $\chi^2=93.99^{**}$

### (2) 가출경험자들의 시기, 횟수, 동기, 은신처, 쉼터 인지 여부

최초 가출시기는 ‘중학생 때’의 비율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현재 중학생의 경우는 가출시기가 ‘초등학생 때’와 ‘중학생 때’의 비율이 반반으로 나와 가출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가출횟수를 보면, 1회가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회 이상도 18.4%로 높게 나타났다.

가출동기는 ‘가정불화’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해방감’(23.3%), ‘학교(공부)가 싫어서’(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출 후 지낸 곳을 알아본 결과, 65.2%에 해당하는 학생이 ‘친구·선후배 집’에서 지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공원이나 거리’가 16.7%, ‘숙박업소’가 12.2%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가출 후에 위험·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게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학교별로도 ‘친구·선후배 집’이 매우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과 인문고생은 ‘공원, 거리’가 각각 27.9%, 19.1%로 높게 나온 반면, 실업고생의 경우는 ‘공원, 거리’(9.7%)에 비해 숙박업소(22.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에 대한 인지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비율이 69.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이용방법을 잘 몰랐다’는 비율도 25.1%로 나타났다. 그러나 ‘잘 알고 있었다’는 비율은 5.8%에 불과하였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인지여부가 낮게 나타남을 통해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집단따돌림과 폭력경험

#### (1) 집단따돌림(왕따)

집단따돌림(왕따)에 대해 걱정을 한 경험이 있는 비율(자주 걱정과 ‘가끔 걱정’ 포함)은 38.6%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여학생(49.4%)이 남학생(30.2%)에 비해 왕따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왕따를 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는 경우가 9.3%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생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남학생(5.7%)에 비해 여학생(14.0%)이 왕따

〈표 3-28〉 가출경험자들의 시기, 횟수, 동기, 은신처, 쉼터 인지여부

가출경험자만 포함된 빈도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가출시기</b>						
초등학교	24.8	12.1	50.0	15.7	10.8	43(20.8)
중학교	60.3	78.8	50.0	62.9	76.3	137(66.2)
고등학교	14.9	9.1	·	21.4	12.9	27(13.0)
계	141	66	44	70	93	207
<b>가출횟수</b>						
1회	49.7	36.4	45.5	51.4	40.9	94(45.4)
2회	25.5	28.8	20.4	24.3	31.2	55(26.6)
3회	9.2	10.6	11.4	7.1	10.7	20( 9.6)
4회 이상	15.6	24.2	22.7	17.2	17.2	38(18.4)
계	141	66	44	70	93	207
<b>가출동기</b>						
가정불화	46.1	33.9	46.5	47.1	36.6	87(42.2)
해방감	20.6	29.2	20.9	17.1	29.0	48(23.3)
학교(공부)가 싫어	14.9	26.2	14.0	18.6	20.4	38(18.4)
가정폭력	8.5	1.5	9.3	5.7	5.4	13( 6.3)
돈벌려고	2.8	3.1	·	4.3	3.2	6( 2.9)
친구권유	1.4	1.5	2.3	2.9	·	3( 1.5)
이성문제	0.7	1.5	2.3	1.4	·	2( 1.0)
기타	5.0	3.1	4.7	2.9	5.4	9( 4.4)
계	141	65	43	70	93	206
<b>가출 후 지낸 곳</b>						
친구, 선후배집	62.6	70.8	62.8	67.7	64.5	133(65.2)
공원, 거리	18.7	12.3	27.9	19.1	9.7	34(16.7)
숙박업소	13.6	9.2	·	5.9	22.6	25(12.2)
쉼터	2.2	3.1	7.0	2.9	·	5( 2.4)
직장	2.2	1.5	·	1.5	3.2	4( 2.0)
기타	0.7	3.1	2.3	2.9	·	3( 1.5)
계	139	65	43	68	93	204
<b>쉼터인지여부</b>						
전혀모름	75.9	54.5	75.0	67.2	67.7	143(69.1)
인지하나 이용방법 모름	18.4	39.4	20.5	27.1	25.8	52(25.1)
잘 알고 있음	5.7	6.1	4.5	5.7	6.5	12( 5.8)
계	141	66	44	70	93	207

●가출시기: 성별  $\chi^2=6.98^*$  학교별  $\chi^2=36.27^{**}$  ●쉼터인지여부: 성별  $\chi^2=10.83^*$

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13.9%로 인문고(6.9%)나 실업고생(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친구를 왕따시키는데 함께 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에서는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여학생(54.5%)이 남학생(30.6%)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3-29> 집단따돌림(왕따)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왕따에 대한 걱정</b>						
자주걱정	2.3	3.3	4.3	1.5	2.7	42( 2.8)
가끔걱정	27.9	46.1	41.2	32.4	33.4	547(35.8)
걱정안함	69.8	50.6	54.5	66.1	63.9	938(61.4)
계	863	664	561	667	299	1,527
<b>왕따경험</b>						
있다	5.7	14.0	13.9	6.9	6.0	142( 9.3)
없다	94.3	86.0	86.1	93.1	94.0	1,382(90.7)
계	860	664	562	664	298	1,524
<b>왕따 협력 경험</b>						
있다	30.6	54.5	46.3	39.4	34.3	624(41.0)
없다	69.4	45.5	53.7	60.6	65.7	899(59.0)
계	860	663	559	667	297	1,523

- 왕따에 대한 걱정: 성별  $\chi^2=53.31^{**}$  학교별  $\chi^2=22.73^{**}$
- 왕따경험: 성별  $\chi^2=30.61^{**}$  학교별  $\chi^2=22.12^{**}$
- 왕따 협력 경험: 성별  $\chi^2=88.19^{**}$  학교별  $\chi^2=12.69^*$

## (2) 폭력에 대한 걱정 및 폭력경험

폭력에 대한 걱정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걱정을 한다’(‘자주걱정’과 ‘가끔걱정’ 포함)는 비율이 50.4%로 거의 절반의 학생이 폭력에 대해 근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로는 여학생이 걱정하는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59.1%로 인문고 46.8%, 실업고 42.2%에 비해 폭력에 대한 근심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폭력이나 피해를 당한 경험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4%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학생의 폭력경험이 49.2%로 여학생 22.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30〉 학원폭력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폭력에 대한 걱정</b>						
자주걱정	4.5	3.0	7.1	2.1	1.7	59( 3.9)
가끔걱정	43.5	50.5	52.0	44.7	40.5	711(46.5)
걱정안함	52.0	46.5	40.9	53.2	57.8	758(49.6)
계	863	665	562	667	299	1,528
<b>폭력경험</b>						
있다	49.2	22.1	37.6	35.8	40.8	573(37.4)
없다	50.8	77.9	62.4	64.2	59.2	958(62.6)
계	865	666	564	668	299	1,531

● 폭력에 대한 걱정: 성별  $\chi^2=8.60^*$  학교별  $\chi^2=45.32^{**}$  ● 폭력경험: 성별  $\chi^2=118.67^{**}$

### (3) 폭력경험자의 피해 내용, 가해자, 피해장소

폭력경험자의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돈’의 피해가 54.2%로 높게 나타났으며, ‘폭행’이 21.8%, ‘인격모독이나 언어폭력’이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행’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폭력의 가해자는 ‘모르는 불량배’가 53.6%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학교 학생’이 25.7%, ‘같은 학교 학생’이 17.9%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모르는 불량배’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이 58.5%에 이르는데 반해, 여학생들은 같은 학교나 다른 학교 학생에게 당한 비율이 57.6%에 이르고 있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같은 또는 다른 학교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이 55.6%로, 실업고 35.7%, 인문고 36.5%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 3-31> 폭력경험자의 피해 내용, 가해자, 피해장소(모두 표시하시오)

폭력경험자만의 해당경험 비율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폭력의 피해내용</b>						
돈	52.3	61.1	60.3	55.8	42.4	442(54.2)
폭행	24.5	12.0	14.7	24.6	27.8	178(21.8)
인격모독,언어폭력	12.9	15.4	15.1	9.8	17.1	110(13.5)
옷이나 물건	5.3	4.6	5.8	4.6	5.1	42( 5.1)
행위의 강요	3.8	4.0	3.1	3.7	5.1	31( 3.8)
기타	1.2	2.9	1.0	1.5	2.5	13( 1.6)
계	641	175	292	326	198	816
<b>폭력의 가해자</b>						
모르는 불량배	58.5	38.2	41.7	59.9	62.9	362(53.6)
다른학교 학생	22.1	37.0	31.5	23.6	19.3	174(25.7)
같은학교 학생	17.1	20.6	24.1	12.9	16.4	121(17.9)
기타	2.3	4.2	2.7	3.6	1.4	19( 2.8)
계	511	165	257	279	140	676
<b>피해 장소</b>						
집근처	24.7	32.0	22.6	29.6	27.0	231(26.4)
공원, 놀이터	21.2	18.0	20.1	22.1	17.9	179(20.5)
오락실, 만화가게	18.4	10.0	21.4	13.0	14.6	144(16.5)
학교주변	14.2	16.5	15.9	14.9	12.4	129(14.7)
학교 안	6.7	8.0	9.1	5.0	7.0	61( 7.0)
음식점이나 술집	3.9	1.5	0.9	3.6	7.0	29( 3.3)
노래방, 비디오방	2.5	2.5	2.4	1.1	5.4	22( 2.5)
독서실, 도서관	1.9	2.0	2.1	1.6	2.2	17( 1.9)
영화관	1.0	·	0.3	0.5	2.2	7( 0.8)
기타	5.5	9.5	5.2	8.6	4.3	56( 6.4)
계	675	200	328	362	185	880

- **폭력 피해내용**: 돈: 학교별  $\chi^2=10.05^*$  폭행: 성별  $\chi^2=24.68^{**}$  학교별  $\chi^2=22.35^{**}$   
인격모독·언어폭력: 학교별  $\chi^2=9.91^*$
- **폭력의 가해자**: 같은학교학생: 학교별  $\chi^2=13.17^{**}$  다른학교학생: 성별  $\chi^2=12.98^{**}$   
학교별  $\chi^2=10.83^*$  불량배: 성별  $\chi^2=30.12^{**}$  학교별  $\chi^2=24.17^{**}$
- **피해장소**: 오락실·만화가게: 성별  $\chi^2=13.16^{**}$  학교별  $\chi^2=10.96^*$   
노래방·비디오방: 학교별  $\chi^2=8.72^*$

높게 나타났다. ‘모르는 불량배’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은 인문고가 59.9%, 실업고가 62.9%로 나타나 중학생 4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피해장소를 살펴보면, ‘집근처’ 26.4%, ‘공원이나 놀이터’ 20.5%, ‘오락실이나 만화가게’ 16.5%, ‘학교주변’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별로 차이나는 항목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그리고 중학생이 ‘오락실이나 만화가게’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4) 폭력에 대한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여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8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문고생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93.7%에 이르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아서’가 45.1%, ‘소용 없을 것 같아서’가 32.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32> 폭력에 대한 신고여부 및 미신고 이유

폭력 피해자만 포함된 빈도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폭력의 신고</b>						
했다	12.2	9.5	14.2	6.3	16.7	67(11.5)
하지 않았다	87.8	90.5	85.8	93.7	83.3	516(88.5)
계	435	148	218	239	126	583
<b>신고 안 한 이유</b>						
대수롭지 않아서	44.1	48.2	41.2	49.5	43.0	231(45.1)
소용없을 것 같아	32.1	34.8	30.5	35.8	30.9	168(32.8)
보복의 두려움	8.5	6.7	11.2	5.5	7.5	41( 8.0)
어찌할줄 몰라서	5.8	4.4	8.0	2.8	6.5	28( 5.5)
알리기 창피	2.9	1.5	2.2	1.8	4.7	13( 2.5)
부모님의 꾸중	0.8	0.7	0.5	0.9	0.9	4( 0.8)
기타	5.8	3.7	6.4	3.7	6.5	27( 5.3)
계	377	135	187	218	107	512

● 폭력의 신고: 학교별  $\chi^2=11.31^*$

## 5. 사회참여

### 1) 자원봉사활동

#### (1) 자원봉사활동 현황

자원봉사 경험에 관해서는 과거에 한 적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비율이 69.0%에 이르고 있고, 학교별로는 인문고생이 75.7%로 참여경험이 가장 많다.

자원봉사 종류는 ‘사회복지분야’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관공서’가 22.2%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동기는 ‘성적반영’의 비율이 65.3%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취지’나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의 경우는 10% 미만 대에 이르고 있어 자원봉사의 본 취지가 성적반영의 목적으로 인해 퇴색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평가에서는 ‘보람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7%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학생들이 ‘성적 반영’이나 ‘주위의 권유’ 같은 타의에 의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라도 결과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자원봉사 의향 및 희망분야, 개선점

앞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있다’의 비율이 68.3%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교별 모두 60%이상이 참여에 대한 의향을 보였다.

자원봉사 희망분야를 살펴보면, ‘도서관, 문화, 체육시설 업무 보조’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사회복지’로 21.9%, ‘농촌봉사’와 ‘의료시설’이 각각 15.5%, 14.5%에 이르고 있다.

이의 결과를 앞서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직종과 비교해 살펴본다면, 희망하는 직종과 봉사에 참여했던 직종유형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참여 직종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공서’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외의 분야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었는데, 희망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인 ‘도서관, 문화, 체육시설 업무보조’라던가, ‘사회복지’, ‘농촌봉사’나 ‘의료시설 봉사’ 등에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은 ‘도서관,

〈표 3-33〉 자원봉사 경험, 종류, 동기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자원봉사 경험</b>						
과거에 한적 있다	65.5	60.7	56.1	69.5	63.7	971(63.4)
지금 하고 있다	4.4	7.0	5.1	6.2	5.0	85( 5.6)
한적 없다	30.1	32.3	38.8	24.3	31.3	475(31.0)
계	865	666	565	666	300	1,531
자원봉사 경험자만 응답 : 종류, 동기, 평가						
<b>자원봉사 종류</b>						
사회복지	39.1	49.4	47.0	40.6	45.0	457(43.5)
관공서	24.1	19.6	16.5	28.0	17.3	233(22.2)
도서관,문화,체육	9.5	7.6	11.0	6.9	8.9	91( 8.7)
환경보호 및 감시	10.7	5.4	10.1	7.1	8.4	88( 8.4)
의료시설	4.2	6.2	3.5	5.2	7.4	53( 5.0)
청소년,시민단체	3.8	5.8	3.8	5.0	5.5	49( 4.7)
농촌봉사	5.8	2.9	5.2	3.8	5.5	48( 4.6)
기타	2.8	3.1	2.9	3.4	2.0	31( 2.9)
계	601	449	345	503	202	1,050
<b>자원봉사 동기</b>						
성적반영	65.6	65.0	58.5	69.6	66.2	689(65.3)
보람, 가치	7.8	9.8	11.2	6.8	8.8	91( 8.6)
소속 단체 활동	7.4	8.6	6.3	10.1	5.4	84( 8.0)
어려운 사람 돕기	6.0	8.6	10.4	4.8	7.4	75( 7.1)
사회경험	8.0	4.2	6.6	5.9	6.9	67( 6.4)
부모권장	3.1	2.2	3.8	2.0	2.9	29( 2.7)
기타	2.1	1.6	3.2	0.8	2.4	20( 1.9)
계	604	451	347	504	204	1,055
<b>자원봉사 평가</b>						
보람을 느낌	67.7	70.1	75.8	63.4	69.8	727(68.7)
보람 못 느낌	32.3	29.9	24.2	36.6	30.2	331(31.3)
계	607	451	347	506	205	1,058

● 자원봉사경험: 성별  $\chi^2=6.83^*$  학교별  $\chi^2=30.00^{**}$  ● 자원봉사종류: 성별  $\chi^2=27.61^{**}$   
 학교별  $\chi^2=30.25^*$  ● 자원봉사동기: 학교별  $\chi^2=32.81^{**}$  ● 자원봉사평가: 학교별  $\chi^2=14.74^{**}$

<표 3-34> 자원봉사 의향 및 희망분야, 개선점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자원봉사 의향						
있다	64.1	73.8	67.9	71.0	63.2	1,045(68.3)
없다	35.9	26.2	32.1	29.0	36.8	485(31.7)
계	865	665	563	668	299	1,530
자원봉사 희망자만 응답: 희망분야, 개선점						
희망 분야						
도서관,문화,체육	28.5	23.5	27.9	25.8	23.3	277(26.1)
사회복지	18.7	25.5	22.0	22.3	20.6	232(21.9)
농촌봉사	17.2	13.5	14.2	15.9	16.9	164(15.5)
의료시설	9.1	20.7	12.2	16.5	14.3	154(14.5)
청소년,시민단체	7.3	9.6	8.5	8.1	9.0	89( 8.4)
관공서보조	9.2	3.8	7.2	6.0	7.4	71( 6.7)
환경보호 및 감시	8.9	2.4	7.0	4.6	5.9	62( 5.9)
기타	1.1	1.0	1.0	0.8	1.6	11( 1.0)
계	562	498	387	484	189	1,060
자원봉사 개선점						
형식적	40.8	42.8	32.3	51.6	36.0	440(41.7)
분야가 적다	24.1	31.9	30.2	25.4	29.0	293(27.8)
편한 봉사 추구	24.0	15.6	25.3	14.1	24.2	211(20.0)
많은 시간의 요구	9.3	6.7	9.6	7.3	7.0	85( 8.1)
부모님 반대	0.9	0.6	0.5	1.0	0.6	8( 0.8)
기타	0.9	2.4	2.1	0.6	3.2	17( 1.6)
계	559	495	387	481	186	1,054

● 자원봉사의향: 성별  $\chi^2=16.64^{**}$       ● 희망분야: 성별  $\chi^2=67.46^{**}$

● 자원봉사 개선점: 성별  $\chi^2=21.61^{**}$       학교별  $\chi^2=47.19^{**}$

문화, 체육분야'(28.5%), '사회복지'(18.7%), '농촌봉사'(17.2%)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사회복지'(25.5%), '도서관, 문화, 체육 분야'(23.5%), '의료시설'(20.7%)의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과는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개선되어야할 점과 관련해서는 '봉사활동이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응답이 41.7%에 이르고 있고, '원하는 분야가 너무 적거나 찾기가 힘들다'가 27.8%, '사람들이 편한 봉사활동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과 학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분야가 적다’와 ‘형식적’이라는 비율이 30%대로 비슷하게 나왔으나, 인문고의 경우는 ‘형식적’(51.6%)이라는 비율이 ‘분야가 적다’(25.4%)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 사회참여

### (1) 청소년 정책수립에의 의견반영

청소년 정책이나 행정분야에의 청소년 참여를 위해 청소년위원회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매우 필요와 ‘조금 필요’ 포함)는 의견이 77.3%, ‘필요 없다’는 의견이 4.7%,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8.0%로 나타났다.

통일, 환경, 인권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나 모임을 갖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와 ‘조금 필요’ 포함)는 의견이 72.7%로 나타났으며, ‘필요 없다’가 6.6%, ‘잘 모르겠다’가 20.7%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35> 청소년 참여제도

	성 별		학 교 별			합계 (%)
	남	여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b>청소년 참여제도</b>						
매우 필요	44.8	49.3	43.9	51.8	40.7	708(46.7)
조금 필요	30.2	31.2	35.1	29.5	24.9	464(30.6)
필요 없음	6.4	2.4	3.4	5.0	6.4	71( 4.7)
잘 모름	18.6	17.1	17.6	13.7	28.0	272(18.0)
계	858	657	556	662	297	1,515
<b>공개토론회</b>						
매우 필요	34.5	32.3	33.8	34.3	31.2	505(33.5)
조금 필요	36.6	42.5	41.6	40.6	31.6	590(39.2)
필요 없음	8.5	4.2	6.5	5.8	8.7	100( 6.6)
잘 모름	20.5	21.0	18.1	19.3	28.5	312(20.7)
계	850	657	551	658	298	1,507

● 청소년 참여제도: 성별  $\chi^2=14.86^*$  학교별  $\chi^2=40.92^{**}$

● 공개토론회: 성별  $\chi^2=13.75^*$  학교별  $\chi^2=20.05^*$

## 6.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1) 여가·문화

#### ■ 그룹 및 옥외활동 프로그램 제공

집이나 PC방과 같은 실내에서 TV나 컴퓨터를 하면서 여가시간을 혼자서 보내는 학생이 60.3%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에서는 가능한 옥외에서 그룹으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 조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소규모 운동시설 조성

남학생의 경우 여가시간에 운동을 하는 학생이 8.7%이며, 스포츠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이 26.2%, 필요로 하는 여가문화시설로 체육시설을 희망하는 학생이 14.5%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이나 PC방에 대한 희망수요가 높아, 운동활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쉽게 운동이나 옥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신촌, 돈암동, 지하철역, 공원에 길거리 농구대나 소규모 간이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자율형, 개방형 청소년 여가문화공간 조성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여가문화공간은 개방적이고 자율적 이용공간을 많이 제공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7%로 가장 높으며, 공원이나 동아리 지원시설도 각각 11.2%, 9.7%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자율적이고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회관을 희망하는 학생은 2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시설 건설이나 운영방침의 하나로 회원이 아니어도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조성을 설정하도록 한다.

#### ■ 시설과 기관이용에 대한 홍보 강화

시설 이용상의 어려움에 대해 '시설이 멀다'는 지적 다음으로 '시설 찾기가 어렵다'와, '홍보나 이용정보가 부족하여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청소년 상담실의 경우 36.3%가 시설 찾기가 어렵거나, '홍보나 정보가 부족하다'를 지적하고 있어, 시설 홍

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9.7%, 구민회관은 23.3%,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36.4%, 청소년전용광장은 26.3%, 이동청소년수련광장은 22.5%가 시설 찾기가 어렵거나, 홍보 및 정보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홍보가 미흡하여 청소년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을 저하시키고 있는 만큼, 시설이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 기존 시설에 대한 재정비 실시

야간공부방에 대해 32.0%의 학생이 '시설이 노후'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이나 회관의 경우 20.2%, 공공도서관은 20.4%가 시설노후를 지적하고 있다. 야간공부방,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회관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노후화된 이들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왔다.

### ■ 시설 운영시간대의 유연화

구민체육센터나 동사무소의 경우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이용시간이 짧다'는 학생이 각각 16.3%, 13.1%로 나타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7.1%, 야간공부방은 8.5%, 종합사회복지관은 7.5%, 공공도서관은 7.8%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수업과 학원수업을 마친 후, 또는 토·일요일에 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일과 공휴일의 야간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유연적 운영이 필요하다.

### ■ 프로그램 전문성 개발

청소년수련시설, 회관의 문제점으로 '프로그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경우가 8.2%, 청소년상담실은 11.7%, 동사무소는 12.3%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여가문화활동 경비부담 완화

여가문화활동 장애요인으로 비용부담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어,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공공시설의 청소년 대상 무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야간공부방과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다른 시설에 비해 이용료가 부담된다가 각각

8.7%, 7.8%로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시설은 학생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만큼, 이용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 ■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과 기자재 제공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 37.1%의 학생이 ‘공간과 기자재 부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나 자치구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공간제공이 가능한 지역문화복지시설을 파악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구민회관을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

영상세대인 청소년이므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영화 관련 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이 가장 많고, 축제 또한 영화제 같은 축제를 희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전용 영화관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에 1개소씩 있는 구민회관은 공연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청소년 영화관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조건에 있으므로 일부 구민회관을 청소년 전용 영화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2) 경제

### ■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책 필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과 희망률이 높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 대우를 겪는 경우가 많으나,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나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희망자 중, 돈을 많이 주면 아무 일이나 하겠다는 학생이 14.1%가 되고 있어, 건전한 아르바이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비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학생도 4%가 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

### ■ 소비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개설

용돈 지출내역을 보면 갖고 싶은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아르바이트 동기로는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의 청소

년은 소비사회에서 성장을 하였고,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청소년 소비자가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희망하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직업체험제'를 원하는 학생이 4.8%이며, 아르바이트 희망자 중 15.7%가 사회생활이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했다.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청소년의 적성과 관심을 살려 미래 직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일자리 개발 및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보호·복지

### ■ 상담방법의 다양화와 접근성 제고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대화 상대자가 없다는 비율은 20.6%, 전문상담을 받은 경험률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받고 싶으나 몰라서 못 받았다는 경우도 24.5%였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62.1%이며, 희망하는 상담방법도 컴퓨터상담에서 전화상담, 직접상담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을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확대하고, 상담기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상담기관의 인지도를 높여 필요한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청소년 가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수립

가출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이 13.7%이며, 가출경험자 중 4회 이상 가출한 경우도 18.4%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가출기간 동안은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상습가출자는 학교를 중단하게 되므로 가출청소년의 수나 실태는 본 조사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가출자의 가출이유는 가정불화, 가정폭력이 48.5%로 나타나, 청소년 가출은 가족문제에서도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가출을 막고,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가출동기나 유형별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 ■ 쉼터에 대한 홍보 강화

가출기간 동안 쉼터에서 지냈다는 학생은 24%에 불과한데 반해 공원이나 거리에서 지냈다는 학생이 16.7%였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가출기간 동안 공원이나 거리에서 지냈다는 응답자가 12.3%로 나타났다. 또한 쉼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5.8%에 불과하여 쉼터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 집단따돌림에 대한 집단극, 토의, 대처방법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집단따돌림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학생이 38.6%로, 특히 여학생의 경우 절반인 49.4%가 왕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41%가 왕따에 가담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여학생이고 중학생일수록 왕따에 대한 두려움과 왕따를 당한 경험이나 왕따를 시킨 경험률이 높아,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 폭력의 심각성과 신고에 대한 대처교육의 강화

과반수인 50.4%의 학생이 폭력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으며, 폭력을 경험한 학생도 37.4%나 되고 있다. 폭력내용도 돈이나 옷, 물건을 강탈당했거나 폭행을 당한 경우가 81.1%가 된다. 그러나 신고를 한 경우는 11.5%에 불과하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45.1%가 대수롭지 않아서, 32.8%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사회의 폭력에 대한 불감성과 대처능력의 미흡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학생들도 폭력에 점차 무감해지는 심각한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돈을 강탈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은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는 것을 교육하고,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 폭력신고에 대한 학교나 경찰, 관련기관의 성의 있는 해결로 청소년의 신뢰를 얻는 일도 중요하다.

## ■ 청소년 보호와 복지는 가족단위로 접근

청소년 가족의 원인으로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을 들고 있는 학생이 많아, 청소년 보호와 복지문제에 대한 접근은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실업고 학생을 위한 정책 배려

실업고 학생이 인문고에 비해 가족, 경제 등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실업고 학생을 위한 우선적인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 4) 사회참여

###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성적 반영 때문이라는 타율적 동기에 의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는 학생이 65.3%로 많았지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68.7%의 학생이 보람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학생도 68.3%로 나타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나 관공서 자원봉사에 65.7%의 학생이 몰려 있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자원봉사 활동영역은 도서관이나 문화, 체육분야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활동영역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현재의 자원봉사활동 문제점으로는 형식적이고 원하는 분야가 없다는 학생이 69.5%나 되므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청소년 정책참여를 위한 제도의 확산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필요 없다'는 학생은 4.7%, 정책이슈에 대한 청소년 토론회가 '필요 없다'는 학생이 6.6%에 불과해, 청소년의 사회참여 욕구가 크다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다. 청소년이 정책참여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 제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참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第 IV 章

### 서울시 청소년 사업 현황과 분석

제 1 절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행정체계

제 2 절 여가·문화

제 3 절 경제

제 4 절 보호·복지

제 5 절 사회참여



## 제 IV 장 서울시 청소년 사업 현황과 분석

### 제 1 절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행정체계

#### 1. 청소년 정책동향

서울시는 1992년 중앙정부의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총괄편)」의 틀에 맞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목표로 개인, 사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수립하고,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교류,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 현재 「청소년육성 종합계획(2000-2002)」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가고 있다.

2000년에 발표한 「서울 청소년육성 종합계획」과 1992년의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의 기본목표를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4-1>과 같다. 「서울 청소년육성 종합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자치단체의 주요책무로 인식하고 있어,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이 과거의 막연한 의무규정에서 능동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기본방향에 명시함으로써 세계 및 국가의 청소년 정책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p>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 (1992년)</p>	<p>2000년대 세계의 주인공이 될 서울청소년의 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적 :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함.</li> <li>-사회적 : 예절을 지키며 협동, 봉사하는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함.</li> <li>-국가적 :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조직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함.</li> </ul>
<p>청소년육성 3개년종합계획 (200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육성과 보호가 자치단체의 주요책무임을 인식</li> <li>-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정책 지향</li> <li>-미래지향적이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도입</li> <li>-유관기관의 참여를 통한 청소년 관련기관 협력체제 구축</li> </ul>

<그림 4-1> 서울시 청소년 정책 기본방향의 변화

## 2. 청소년 행정체계

### 1) 행정조직의 변천

서울시 행정조직에서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된 시기는 1980년이다. 90년대 들어 청소년 정책대상이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여가문화활동이 청소년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청소년 업무가 복지국보다 문화국에 소속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1999년에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 이전되었고, 청소년과가 체육청소년과로 개칭되었다.

- 1980년 보건사회국 아동과가 청소년과로 개편되면서 처음으로 청소년이라는 용어 사용.
- 1982년 부녀과와 청소년과가 부녀청소년과로 통합.
- 1989년 가정복지국이 신설되어 청소년과 업무이관.
- 1993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위원회 설치(서울시 청소년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2000년 현재 행정제1부시장외 18명으로 구성).
- 1999년 청소년과가 문화관광국으로 이전되면서 체육청소년과로 개칭.

2000년 8월 현재 문화관광국에 소속된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청소년정책총괄팀, 청소년환경조성팀, 청소년보호육성팀, 청소년환경개선팀, 체육진흥지원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장과 팀장은 일반 행정직이 맡고 있으며, 청소년 업무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하에 별정직 6급과 7급인 청소년지도사가 3명이 있으나, 업무기획이나 사업평가와 같은 전문적 업무에 적절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서울시 청소년대책협의회

서울시 청소년대책협의회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 및 「지역별 청소년대책협의회 활성화」 계획에 의거하여 구성된 서울시 청소년대책본부이다. 이는 여러부서(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추진업무를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4-2>는 서울시 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현황으로,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2〉 서울시 청소년대책협의회

### 3) 자치구 행정조직

자치구의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행정과의 청소년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청소년사업은 다양한 부서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강북구의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년행정과 등 8개 부서가 업무와 관련된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다. 송파구의 경우 8명이며, 강북구 5명, 동대문구 4명, 구로구와 영등포구는 3명이다.

25개 자치구에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계, 경찰관계자, 지역유지 14명 내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자치구 청소년사업에 대한 자문과 업무조정 기능을 하는 청소년위원회가 있다.

자치구의 청소년사업 예산이 부서별로 책정되어 있어 청소년 총예산액의 자치구별 비교는 어려우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높은 송파구의 경우 자치구 차원에서 청소년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구와 중구는 자치구에서 대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반면 동대문구나 영등포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사업은 거의 없으

며, 서울시 지원사업만을 하고 있다.

#### 4) 문제점

##### (1) 기획조정기능의 부재

청소년사업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민간단체, 교육청, 경찰, 자치구 등의 여러 기관은 물론, 행정내부에서도 산업경제국, 여성정책관, 보건사회국 등의 여타 조직과 횡적으로 연계를 맺고 사업을 해야 한다. 청소년사업의 대부분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은 민간위탁이나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서울시는 총괄기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소년 행정조직은 기획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사업은 여타 행정업무에 비해 서비스 제공이 직접적이며, 따라서 수요자의 욕구나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 한편 청소년사업은 학교, 교육청, 민간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연계를 가져야만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청소년사업의 이같은 특성 때문에 현재 서울시 청소년사업의 많은 부분이 민간에게 위탁되어 집행되고 있다. 향후에도 청소년사업은 자치구나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사업은 대폭 이양하고, 서울시 행정조직은 기획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담당공무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 미비

다양한 외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관계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 담당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청소년 정책에 본격적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전개한 것이 불과 몇 년이므로 청소년사업에 대한 행정 내부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이 자주 교체되고 있다. 따라서 예산증가나 조직 확장,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청소년사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 (3) 자치구별 격차 심화

공무원 수가 많다고 청소년사업이 반드시 활성화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치구별

로 청소년 행정조직 공무원 수에 차이가 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자치구 자체 사업을 많이 하는 자치구일수록 조직인원이 많고, 청소년사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공공이 지원하는 청소년사업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사업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제 2 절 여가·문화

청소년 여가문화를 위한 공공시설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이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수련시설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구분되며, 청소년이용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도서관, 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여가문화시설 중,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생활권수련시설과 공부방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청소년 수련시설

#### 1) 시립 청소년시설

##### (1) 시설과 입지

2000년 현재 서울시에는 11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다. 서울시는 2005년까지 자치구별로 1개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05년 이후에는 자치구별로 대형 청소년수련관이 1개소 이상 들어서게 된다.

〈표 4-1〉 자치구별 청소년시설 현황

자치구명	생활권 수련시설	공부방	사회복지관	구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구민 체육센터
계	27(14)	148	86	23	34(12)	16(10)
종 로	1	5	-	-	6	1
중 구	2(1)	2	1	1	1(1)	0(1)
용 산	1	5	1	1	2	-
성 동	1(1)	7	2	1	1	1(1)
광 진	0(1)	4	3	-	0(1)	-
동대문	0(1)	7	1	1	1(1)	1
중 량	1	2	4	1	1	1
성 북	0(1)	12	5	1(1)	0(2)	1(1)
강 북	0(1)	7	3	-	0(2)	-
도 봉	0(1)	1	2	1	1(1)	-
노 원	2	6	8	1(1)	2(1)	1
은 평	0(1)	4	3	1	0(1)	0(1)
서대문	3(1)	2	2	1	1	1
마 포	0(1)	4	2	-	2	-
양 천	1	8	5	1	1	2
강 서	2	5	10	1	1	1
구 로	2(1)	9	1	1	3	1
금 천	1(1)	4	1	-	1	0(1)
영등포	3	10	1	1	1	0(1)
동 작	2	4	6	1	1	1(1)
관 약	1	20	5	1	0(1)	1(1)
서 초	0(1)	1	4	1	1(1)	1
강 남	2(1)	1	6	1	2	2
송 파	1	15	8	2	1	0(1)
강 동	1	3	2	1	4	0(1)

주 : 1. 생활권수련시설중 ( )안은 향후 건립계획이 있는 시설의 수임.

2. \*은 국립<1>, 공립<2>, 구립<3>, 사립도서관<8>을 포함, ( )는 향후 건립예정인 구립 도서관 시설수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체육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고용안정과)

〈표 4-2〉 자치구별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자치구명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시설(시립)	문화관광부 청소년문화의집*
	시립	구립		
종 로		종로청소년문화센터		
중 구	서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종합문화회관	중구청소년수련관 (2001년 예정)		서울청소년수련관내 설치(예정)
용 산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성 동	2003년 이후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광 진	2002년 완공			
동대문	2002년 완공			
중 랑	중랑청소년수련관			
성 북	2002년 완공			
강 북	2000년 완공			
도 봉	2003년 이후			
노 원	노원청소년수련관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수련관내 설치
은 평	2001년 완공			
서대문	2003년 이후	북아현청소년정보 상담센터		서대문 청소년문화의집
마 포	2003년 이후			
양 천	목동청소년수련관			수련관내 설치
강 서		강서청소년회관		강서청소년문화의집
구 로	수련관 2000년 완공		근로청소년복지관 (광명시소재)	구로청소년문화의집
금 천	2002년 완공		가산문화센터	
영등포	문래청소년회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동 작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시당청소년회관		
관 악		관악청소년회관		
서 초		서초청소년수련관 (2003년 이후)		
강 남	수서청소년수련관	강남청소년회관 역삼청소년회관(예정)		
송 파		마천청소년회관 송파청소년수련관		
강 동		강동청소년회관		

주 : 자치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개칭하였으나,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문화의집과는 시설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서 문광부의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별도로 파악함.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립시설은 모두 대형시설이며, 현재 4개 수련관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향후 건립되는 수련관에는 모두 수영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표 4-3>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원수 및 건물 현황

2000. 4월 현재

수련시설명	위탁운영단체	직원수 (현원)	규모(㎡)		비고
			대지	건물	
수서청소년수련관	(사)복상회원	32	40,568	6,381	수영장
목동청소년수련관	(재)불교중앙교원	29	5,743	6,202	수영장
문래청소년수련관	(재)YMCA	22	2,314	4,306	수영장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37	5,945	10,335	-
서울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육성회	29	983	6,897	-
노원청소년수련관	(재)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	3,330	7,786	수영장
중랑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연맹	33	2,971	2,792	-
근로청소년복지관	(사)한국청소년연맹	42	70,868	5,382	-
(가산문화센터)		(4)	825	(1,247)	-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	529	1,343	-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학교)연세대학교	25	9,697	2,833	-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6	9,697	668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사)한국청소년연맹	6	349	786	-

주 : 1. 직원수는 2000년 4월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가산문화센터의 연면적은 근로청소년쉼터(534㎡)를 제외한 수치임.
3. 성문화센터는 직업체험센터와 대지 공유함.
4. '청소년종합문화회관(유네스코건물)'은 표에서 제외함.

청소년시설은 입지의 적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입지상의 문제점을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고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 4-4>과 같다.

<표 4-4> 청소년시설의 입지분석

입지상 문제점	사례	내 용
유사시설 인접으로 인한 프로그램 중복 및 비효율성	수서청소년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문래청소년수련관	- 수서의 경우 태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체육시설, 송파청소년수련관(예정) 등 유사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이용자 유치를 위한 소모적인 경쟁으로 비효율성 초래. - 목동, 문래청소년수련관도 행정구역은 다르나 인접거리에 위치하여 비효율성 초래.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시설의 이미지 저하	서울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주변이 상가(공구상, 타일, 도기 등) 및 사업장(인쇄 및 지류업)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시설의 이미지 개선 필요
경기도 입지로 인한 비효율성	근로청소년복지관	-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서울시민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음.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접근성 불량	노원청소년수련관	-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하기 곤란하여 청소년 이용률 낮음.

## (2) 예산 및 운영형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기타 법인을 선정하여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고 있다. 위탁단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위탁운영규정」을 통해 조직구성, 직원채용 등 시설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제한다.

<표 4-5>은 시립청소년시설 예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영장이 있는 수련관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수영장이 없는 수련관은 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 이후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수영장을 설치하여 자체수입으로 운영비를 조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 (3) 프로그램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같은 특화시설이 아닌, 일반청소년수련관이 실시하는 사업은 크게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 상담사업,

〈표 4-5〉 시립 청소년시설 예산 현황(2000년 세입예산기준)

단위: 천원

구분	계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시보조금	비고
수서청소년수련관	2,292,930	2,252,862	40,068	-	수영장
문래청소년수련관	1,450,025	1,408,251	40,972	5,000	수영장
목동청소년수련관	1,957,820	1,945,632	12,188	-	수영장
보라매청소년수련관	2,449,596	1,361,960	136,450	951,186	
서울청소년수련관	2,331,811	702,780	136,683	1,392,348*	국비 100,000
노원청소년수련관	2,213,661	1,882,111	206,488	125,062	수영장
종량청소년수련관	1,525,258	320,121	39,421	1,165,716	
청소년직업체험센터	1,225,961	62,919	6,142	1,156,900	
청소년정보문화센터	1,366,510	207,220	49,790	1,114,500	
청소년종합상담실	315,438	15,438	-	300,000	
근로청소년복지관	2,166,216	739,035	24,965	1,402,216	
청소년성문화센터	196,480	13,532	648	182,300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13,000	-	-	150,000	국비 63,000

주 : 서울시청소년수련관 시보조금에 민간대행사업비(시설개보수비) 803,532천원 포함.

특화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략하게 사업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원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다음 <표 4-6>와 같다. 특화 및 기타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립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4-6〉 노원청소년수련관 주요 프로그램

구분	내 용
교육문화사업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어울마당, 학교특별활동사업, 농촌봉사캠프,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일요청소년극장, 방학특강, 실습교육, 청소년위원회, 외국청소년시설·단체교류,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단소, 통기타, 보컬, 동화구연, 글쓰기, 뮤지컬영어, 외국인영어, 레고닥터, 연극놀이, 신문은 내친구, 미술, 서예, 종이접기, 과학교실, 인터넷통신 등
생활체육사업	수영, 헬스, 에어로빅, 검도, 탁구 등 청소년체육 활동
상담사업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학교적응훈련, 푸른컴퓨터상담실운영
특화 및 기타사업	청소년지킴이 순찰단, 청소년지킴이집, 청소년지킴이봉사단 등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4) 네트워크 현황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학교 CA활동 활성화와 맞물려 학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특별활동지도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다만 특정요일에 CA활동이 몰려있어서 수련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와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연계가 없다.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센터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와의 관계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주체에 따른 권한구분보다는 지역사회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현재 지역사회기관이나 단체들의 네트워크는 그다지 활발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지역행사를 주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간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현재 청소년수련시설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증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립청소년수련관협의회(이하 청수협)」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청수협」은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이며, 구립시설의 경우 청소년수련관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운영비는 각 수련관이 회비를 납부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수련관 소식인 「푸른소식」을 발간하고 있다.

## 2) 구립 청소년시설

### (1) 시설과 입지

10개 자치구에서 구립 청소년수련시설을 갖고 있으며, 이외 중구와 강남구가 대규모 구립 청소년수련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구립 청소년수련시설은 규모가 다양하여, 가장 규모가 큰 관악청소년회관의 경우 3,740㎡이며, 가장 규모가 작은 북아현청소년정보상담센터는 403㎡로 규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

구립시설도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입지적정성에 있어 시립시설과 마찬가지로 입지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다. 한편 주변환경 변화에 의해 청소년시설이 문을 닫은 경우도 있다. 서대문구 연희청소년회관의 경우 재개발지역에 입지해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

주하게 되자 2000년 4월에 폐관하였다.

<표 4-7> 구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원수 및 건물규모

자치구	수련시설명	위탁운영단체	직원수 (현원)	규모(㎡)	
				대지	건물
강남구	강남청소년회관	서울 YWCA	11	2,277	1,911
강서구	강서청소년회관	(사) 흥사단	12	3,340	1,607
강동구	강동청소년회관	(사) 한국청소년연맹	10	1,110	3,740
관악구	관악청소년회관	(사) 온터두레	14	1,940	4,941
동작구	사당청소년회관	한국청소년행동과학문화원	9	531	918
노원구	월계청소년문화의집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6	493	843
종로구	종로청소년문화센터	종로구직영	4	313	789
성동구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서울 YWCA	6	852	1,382
송파구	마천청소년회관	한국청소년사랑회	13	602	2,147
서대문구	북아현청소년정보 상담센터	서대문구직영	2	254	403

주 :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함.

## (2) 예산 및 운영형태

공무원이 직영하는 수련시설은 종로와 서대문구 2개소이며, 나머지 8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과내 예산으로 통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경우 시설이 노후하고 입지가 나빠서 별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 직원 2명을 파견하여 독서실만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경우 자치구에서 인건비 및 시설보수비를 지급하고, 운영비는 시설에서 수익사업을 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가 큰 청소년회관의 경우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확보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시설이며 저소득층 지역에 입지한 경우에는 공간 및 인력부족 등으로 재원확보가 어렵다.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대개 인건비 등 항목을 지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목적사업비는 사업수입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표 4-8>은 2000년도 구립

청소년시설 예산 현황이다.

<표 4-8> 구립 청소년시설 예산 현황(2000년 세입예산기준)

단위: 천원

구분	계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구보조금	시보조금	기타
강남청소년회관	477,810	189,923	-	255,577	-	20,000(자체보조) 12,310(후원금)
강서청소년회관	473,597	143,054	34,630	35,573	160,000*	100,240 (법인지원금)
강동청소년회관	974,088	940,728	33,360	※수영장		
관악청소년회관	1,200,000	989,322	138,400	70,000	-	2,278 (전년도 이월금)
사당청소년회관	356,839	216,667	-	140,172	-	
월계청소년문화의집	179,803	58,382	25,141	96,280		
성동청소년문화센터	227,186	107,843	-	72,000	13,800 (유스텍보조)	24,374 (후원금)
마천청소년회관	403,680	247,920	4,320	60,000	-	25,000 (운영체부담금) 66,440 (위탁보조금)

- 주 : 1. 강서청소년회관의 경우 수영장이 없고 구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서울시에서 2000년 예산에 시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2. 관악청소년회관은 수영장이 있어서 구보조금이 없음. 올해엔 수영장 개보수비를 지원함.  
 3. 종로구와 서대문구는 청소년시설을 직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과에서 통합운영하여 별도의 예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 (3) 프로그램

대형 구립시설은 시립시설과 유사하게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구립시설은 자체수입만으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갖추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단순화, 형식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소규모 시설인 월계청소년문화의집의 연간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다음 <표 4-9>과 같다. 이를 <표 4-6>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주요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표 4-9〉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교육문화활동	속셈교실, 영어교실, 글쓰기교실, 청소년축제(연1회), 수련회(연2회)
체육문화활동	에어로빅, 한국무용교실, 태권도, 탁구, 헬스
상 담 활 동	청소년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기 타	사회적응훈련(장애청소년)

자료 : 월계청소년문화의집 ‘홍보팸플릿’

#### (4) 네트워크

구립시설의 시설규모나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수준도 차이가 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좋은 시설은 학교나 지역주민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고 프로그램이 빈약한 경우에는 학교나 지역주민과의 연계활동이 없다. 자치구와는 협조관계에 있으나, 구립시설간 또는 구립과 시립시설간의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없다.

### 3) 문제점과 잠재력 분석

#### (1) 청소년시설 종합운영계획 부재

서울시는 개별 수련관의 운영을 규제하고 감사(監査)하는 기능은 갖추고 있으나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전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구립 청소년시설 건립에 따른 행정수요변화<sup>12)</sup>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립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획기능이 필요하나, 현재 청소년시설 전반에 걸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12) 중구와 강남구 등은 자치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구립수련관이 완공되면 중구와 강남구의 청소년수련관은 각각 2개와 3개로 늘어나게 된다.

## (2) 청소년시설의 정체성(Identity) 모호

시설 활용이란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주민 사회교육시설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익사업에 치중하므로써 청소년을 위한 목적사업을 소홀히 하게 된다. 각 수련관이 목적사업보다 수익사업에 더 치중하게 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시설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기 쉽다. 현재 지역내에 구민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구민회관, 문화의집 등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고유의 목적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청소년 정책의 지역거점시설로 활용가능하나, 지역 네트워크 미약

지역내의 대형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정책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자치구와의 관계나 지역내 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가 약해 지역거점 기능이 미약하다.

시립시설이기 이전에 지역 청소년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자치구와의 협력관계가 원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립시설 운영자들이 자치구와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4) 청소년시설 정보화 취약

시립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대부분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으나 콘텐츠가 빈약하여, 개별 홈페이지의 콘텐츠 강화가 요망된다. 또 예산상의 문제로 웹마스터 등 정보화 관련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용산정보문화센터나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정보화를 표방하는 시설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5) 구립 수련시설 운영 열악

소규모 구립 수련시설의 경우 자체수익사업이 적어, 인력, 시설, 장비면에서 대형시설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자치구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소년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6) 「서울지역청소년수련관협의회」 기능의 취약

현재 「서울지역청소년수련관협의회」는 시립시설만이 참여하여 임의단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련관 회비로 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어 재정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청소년수련시설이 참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 2. 청소년 공부방

### 1) 구립 공부방

#### (1) 시설과 입지

2000년 5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은 102개이다.

공부방이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 13개, 영등포구 10개, 성북구와 양천구가 각각 7개이다. 가장 적은 구는 서초구와 강남구로 각각 1개가 있다. 공부방이 주거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강남구와 서초구에 공부방 수가 적고, 영등포구와 구로구, 성북구, 양천구, 관악구, 송파구가 상대적으로 공부방이 많다.

구립 공부방의 시설규모는 최소 연면적이 11.5평에서 최대 400평까지 있으며, 좌석수는 최소 41석에서 최대 450석으로 그 규모가 다양하다.

15개 공부방 방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방음이 되지 않고, 건물의 도색 상태가 좋지 않고, 시설집기가 낡아서 시설 자체의 어메니티(amenity)가 낮다.

구립 공부방 15개소 조사방문 및 운영자 면담결과에 의하면 구립공부방은 재개발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

운영자 면담에 의하면 공부방 주변지역 주민 중에는 공공근로나 일용근로자로 맞벌이하는 가구가 많아, 부모들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공부방 연면적과 좌석수 현황

면적	수	좌석수	수
계	99	계	88
30평 이하	7	50-100석	31
31-100평	60	101-200석	42
101-200평	16	201-300석	8
201-300평	9	301-400석	6
301평 이상	7	401석 이상	1

## (2) 예산 및 운영 형태

서울시의 공부방 지원기준은 좌석수가 50석 이상이고, 자치구가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경우에만 공부방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자치구가 직영을 하는 중구와 광진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없이 자치구 예산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항목은 자원봉사자 임금비(1인 1일 5,000원)와 시설운영비(공공요금, 난방비, 냉방비, 홍보자료비)이다. 좌석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으며 좌석수가 200석 이상이면 1년에 6,900,000원, 100석 이상이면 4,300,000원, 50석이상은 3,300,000원이다. 2000년 서울시의 구립공부방 총 예산지원액은 약 365,000천원이다.

25개 자치구에서 공부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은 총 4,173,590천원이다. 공부방에 자체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자치구는 영등포구(414,516천원),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10,772천원)이다.

공부방에서는 이용자에게 일일 이용료로 300-500원을 징수하고 있다.

공부방 위탁대상은 구청장이 재정지원 및 운영능력을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순위는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이나 단체, 건물주 순으로 되어 있다. 공부방 관장의 자격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비상근일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다. 공부방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구와 광진구 2개구이다.

공부방 관장 58명 조사에 의하면 78%가 대졸 이상 학력이며, 22%가 고졸로서, 이

중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인 경우는 21%였다.

<표 4-11> 자치구별 청소년공부방 시설수 및 예산 현황

자치구	시설수(개)			예산(천원)		
	합계	구립	민간	합계	서울시	자치구
계	147	102	46	4,538,666	365,075	4,173,590
종 로	5	3	2	90,613	6,600	84,013
중 구	2	2	-	61,598	-	61,598
용 산	5	5	-	154,000	19,500	134,500
성 동	7	3	4	202,054	15,500	186,554
광 진	4	4	-	44,309	-	44,309
동대문	7	4	3	248,608	18,800	229,808
중 랑	2	2	-	123,783	10,200	113,583
성 북	12	7	5	338,476	26,100	312,376
강 북	7	2	5	167,918	10,900	157,018
도 봉	1	1	-	131,256	6,900	124,356
노 원	6	3	3	60,550	2,995	57,554
은 평	4	2	2	91,085	7,600	83,485
서대문	2	2	-	121,301	8,600	112,701
마 포	4	3	1	230,703	18,100	212,603
양 천	8	7	1	294,480	24,200	270,280
강 서	5	5	-	206,000	21,500	184,500
구 로	9	6	3	396,584	31,000	365,584
금 천	4	3	1	198,594	12,975	185,619
영등포	10	10	-	463,716	49,200	414,516
동 작	4	4	-	218,600	19,800	198,800
관 약	20	6	14	120,816	13,800	107,016
서 초	1	1	-	13,997	3,225	10,772
강 남	1	1	-	213,473	6,880	206,593
송 파	15	13	2	299,822	26,400	273,422
강 동	3	3	-	46,328	4,300	42,028

### (3) 이용자

15개 구립 공부방의 경우 이용자의 약 80~90%는 중·고등학생이며, 그 외 초등학교생, 대학생,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다. 초등학교생의 경우 도서대출을 위해 공부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평일 독서실 이용률은 35~10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시험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공부방 독서실 이용률이 100%를 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독서실 이용자 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 (4) 프로그램

공부방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은 도서대출이며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등의 10개 자치구 공부방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있다.

공부방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정도는 공부방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광진구의 경우, 공부방이 독서실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 강남구의 일부 공부방에서는 영화교실, 적성검사, 체육대회, 학습지도, 예절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15개 공부방 조사에 의하면 미아2동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3개의 동아리 (영화감상, 기타, 탁구) 활동과 보육원 자원봉사, 캠프 및 체육대회 프로그램이 있다. 북가좌공부방은 한문교실, 인성교실, 영어교실,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일원독서실에서는 상담,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15개 공부방 중 도서대출 사업만을 하고 있는 공부방은 4개소이며, 11개 공부방에서는 여건에 따라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현장학습, 영화감상,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자치구 차원의 공부방 활성화 계획에 대해,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등 10개구에서는 일부 공부방에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공부방당 최저 1대~최고 10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포구와 송파구 경우 독서실에 청소년유스텍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종로,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동구 등 10개구에서는 공부방 활성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5) 네트워크

15개 공부방 중 지역내 학교와 앞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공부방이 2개소가 있다. 공부방을 위탁받은 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었으며, 자치구에서 어울마당 참가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자치구내의 공부방 운영자와 모임을 갖는 경우가 1군데 있었으나, 친목모임 정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부방이 1개소 있었으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확인하러 가끔 찾아오거나 확인전화를 한다는 공부방이 10개소 정도이다.

## (6) 공부방 운영에 대한 의견

심층면담조사에 응한 15명의 공부방 운영자 중, 13명이 공부방이 단순한 독서실 기능을 벗어나 청소년을 위한 여가, 문화, 복지공간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공부방이 많고,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접근하기 좋은 시설이 공부방이므로, 공부방을 저소득층 청소년 여가, 문화, 복지를 위한 1차지역거점시설로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2) 민간 공부방

### (1) 시설과 입지

서울지역 공부방 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나 자치구의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되는 공부방이 46개소 있으며, 이 조사가 파악하지 못한 공부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악된 46개 공부방은 재개발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모두 입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 단체가 저소득층 지역운동의 일환으로 공부방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민간 공부방이 모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공부방은 시나 자치구의 예산지원 없이 재정상태가 어려운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구립 공부방에 비해 시설규모가 매우 협소하다. 건물 연

면적이 확인된 공부방의 경우 최저면적이 15평이었고, 최고면적이 34평이었는데, 대부분 20-30평 규모이다. 전세금이 확인된 임대공부방의 경우 최저가 1,500만원, 최고가 3,500만원이었다.

## (2) 예산 및 운영 형태

민간 공부방은 종교단체, 지역사회운동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회원의 이용료, 단체 기부금이나 개인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공부방의 일년 운영액은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이며, 공부방 1개소 당 일년 평균 운영액은 약 4,300만원이다.

민간 공부방은 시설이 협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46개 공부방 중 이용료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은 각각 절반 정도이다. 이용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를 받고 있으나, 이용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의 약 30-50%가 이용료를 못내고 있다.

민간 공부방에는 평균 2.6명의 상근교사가 있으며, 평균 14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다.

## (3) 이용자

민간 공부방 이용자는 구립 공부방과 달리 이용자의 75%가 초등학생이며, 25%는 중·고등학생이다. 공부방 당 평균 회원수는 37명으로 나타났다.

민간 공부방 운영자 조사에 의하면, 공부방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부모가 실직상태에 있거나, 공공근로, 일용직 근로자, 가내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이 많고, 부모없이 조부모와 사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편부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폭력적인 경우가 종종 있으며,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프로그램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립 공부방과 달리, 민간 공부방은 이용자인 청소년의 생활전반을 보살피고,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부방은 목적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공부방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숙제지도이다. 이것은 민간공부방이 입지한 지역의 특성상, 부모들이 자녀를 일상적으로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 학습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한 학습지도는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공부방 프로그램이기도 한다.

학습이나 숙제지도 외에 공부방이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은 공동체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이다. 특별활동으로 컴퓨터, 미술, 종이접기, 소식지 만들기, 요리, 국악놀이, 댄스, 연극놀이, 영화감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야외학습으로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유적지, 농장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외 등산이나 캠프, 체육활동과 같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며,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하기도 한다.

공부방이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실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를 제공하는 공부방도 있다.

#### (5) 공부방 운영에 대한 전망

민간 공부방 운영자 면담에 의하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입지한 공부방은 빈민지역운동을 위한 거점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공부방이 청소년을 위한 지역여가문화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민간공부방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sup>13)</sup>

공부방을 이용한 초등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공부방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프로그램 구성을 하지 않으면, 공간적, 경제적, 심리적 제약요건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이 수련시설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

13) 박문수외 3인, 「저소득층지역 청소년 여가문화와 소집단 활성화」, 1998

### 3) 문제점과 잠재력

#### (1) 접근성이 좋고 이용률은 높으나, 프로그램이 미비

구립과 민간을 포함하여 파악된 공부방 수는 약 150개 정도로, 청소년 관련시설로는 그 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용률도 높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중 올해 구립 공부방을 이용한 학생은 30%로 나타났다. 이용시의 불편사항을 묻는 질문에 '시설이 멀다'라는 응답자가 8%로, 여타 여가문화시설에 비해 그 비율이 낮다. 이는 청소년이 생활권내에서 공부방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립 공부방의 주요 기능은 독서실이지만, 자치구 방침이나 운영자에 따라 여가문화,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부 공부방이 있다. 구립 공부방 운영자 대부분은 독서실 기능 외에 공부방이 청소년 여가문화시설로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공부방 예산지원이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에 한정되어, 구립 공부방의 대부분이 독서실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 프로그램 및 휴게공간 확보는 가능하나, 시설 어메니티가 낮음

구립 공부방으로 시설 연면적이 100평 이상 되는 시설이 32개이다. 30평을 기준으로 한 문화의집 설계모델이 있음을 참고로 한다면, 구립 독서실에 청소년 여가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구립 공부방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구립 공부방의 대부분이 방음이 되지 않고, 건물내부나 외관이 낡고, 단조로우며, 아늑한 느낌이 없어, 청소년이 시설에 호감을 가지기 어렵다. 공부방 이용자가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시설이 낡고 쾌적하지 못하다는 것으로(31.3%) 여타 여가문화시설과 비교해 보면 그 비율이 가장 높다.

#### (3) 인력자원 활용이 가능하나, 전문성 필요

민간에 위탁된 구립 공부방, 민간 공부방 운영자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청소년사업과 관련한 노하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근 운영자의 경

우,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구립 공부방 운영자의 약 20%가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로 나타나, 기존 운영자 전문교육을 통해 공부방 활성화에 필요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4) 구립과 민간 공부방의 역할분담이 가능하나, 민간 공부방 재정지원이 전무함

민간 공부방 이용자는 75%가 초등학생이며, 구립 공부방은 90%가 중·고등학생이므로, 청소년 연령별로 시설간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에 매일 장시간 공부방에 머무르고, 개별적으로 보살피고 지도를 해야하므로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규모가 적은 민간 공부방은 초등학생을 위한 시설로 활성화하고, 자율공간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는 구립 공부방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시설로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독서실 좌석 50개 이상이 되는 공부방에만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 시설규모가 적어 좌석을 설치할 수 없고, 또 초등학생 이용자가 많아 좌석이 필요하지 않는 민간 공부방의 경우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3. 여가·문화 프로그램

#### 1) 서울시 사업

서울시의 청소년 여가·문화사업은 크게 시립청소년시설 운영과 서울시가 실시하는 청소년프로그램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의 경우는 앞서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서울시는 2000년도에 20억1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단체에서 제출한 청소년프로그램사업 27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7개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상의 8개 수련활동영역(시행령 제3조)을 기본으로 하는 청소년프로그램사업 16개, 기타사업 9개로 구성되어 있다. 27개 사업 중 청소년 여가·문화활동과 관련된 사업은 봉사협력

활동과 청소년보호사업을 제외한 20개 사업으로 그 내용은 다음 <표 4-12> 과 같다.

<표 4-12>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27개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
계			2,019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문화적감성활동	• 청소년거리콘서트	27
		• 서울청소년유스챔피언	60
		• 청소년미술제	13
		• 청소년백일장	10
		• 청소년독후감상문공모	30
		• 청소년문학상	12
• 전통예술한마당		25	
• 서울역사현장순례		29	
	과학정보활동	• 디지털 서울신문제작 경진대회	21
	봉사협력활동	• 농어촌체험활동	69
		•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사랑캠프	30
	모험과 개척활동	• 청소년오지 배낭여행	40
		• 서울소재 4대명산 연속등반	13
		• 한강도보순례	67
	국제교류활동	• 한민족 역사문화 탐사	66
	기타활동	• 청소년 및 가족건강 마라톤대회	15
		• 소년소녀가장등 문화체험활동	55
		• 전통다도체험과 예절교실	13
기타 사업		• 청소년 문화지도 제작	84
		• 남산골 청소년전통마을 설치운영	443
		• 청소년전용광장 확대 운영	316
		• 이동청소년수련광장 확대 운영	258
		• 청소년 교화 선도프로그램 운영	144
		•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30
		•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11
		•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	80
		• 청소년유해환경교육 및 홍보	52

주 : 기타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기존 수련시설의 확대운영 그리고 청소년 보호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분야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00

청소년 프로그램사업 운영의 기본방향은 첫째, 소비성, 행사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교육적이고 경제성 있는 사업운영, 둘째, 21세기 청소년상의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련거리 확대 실시, 셋째,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선정한다.

사업프로그램 선정 및 사업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업프로그램 선정절차는 서울시가 사업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 청소년단체 사업제안서 제출 → 프로그램 심의위원회가 사업제안서 심의 → 사업프로그램 선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사업의 선정은 교수, 청소년전문가, 교사, 학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사업심의회 이해관계가 있는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제외된다.
- 2000년 현재 27개 사업에 26개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서울시 차원의 사업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단체의 자체평가가 있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차원의 사업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 2) 자치구 사업

자치구의 여가·문화사업은 크게 시비지원사업과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시비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자치구가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을 맡고 있다.

### (1) 시비지원사업

2000년 현재 여가·문화활동 분야에서 시의 예산지원으로 자치구가 집행하는 사업은 청소년어울마당 등 총 5개사업이다. 사업현황은 <표 4-13>와 같다.

<표 4-13> 시비지원사업 현황

2000년 현재

사업명	예산 (백만원)	내 용
청소년어울마당	200	- 수련활동의 효과와 흥미적 요소를 가미한 전통민속놀이, 공연, 길거리 농구대회, 레크리에이션 등 실시
서울 Youth 챔피언	125	- 서울 Youth 챔피언 대회 구별 예선 지원
한문예절교실	110	- 자치구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시립청소년수련관 및 동사무소, 경로당 등 지역별 적정장소를 활용 140개소
월드컵 축구교실	176	- 자치구별 1개교실 지원(초등학교 4~6학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및 문예행사 지원	377	-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및 문예행사 개최 비용 (운영지원 351, 문예행사비 26)

## (2)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어울마당은 국가목적사업으로 '92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단위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활동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시비와 구비를 50:50으로 하여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예산을 보면, 2000년에 청소년어울마당사업에 2억원을 책정하고 자치구별로 800만원씩을 지원하였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사업비로 1,600만원을 책정하여 실정을 감안하여 4~8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은 구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난다.

운영방식을 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자치구 청소년팀이 청소년단체 및 시설, 이벤트회사 등과 협조하여 기획부터 집행을 맡고 있다.

어울마당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음악, 전통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연간 어울마당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치구의 프로그램은 다음 <표 4-14>과 같다.

<표 4-14>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현황

자치구	어울마당 프로그램
용산구	눈썰매교실, 애니메이션교실, 자전거하이킹, 도예지탐방, 갯벌탐사활동 밤송이 캠프, 전통다도체험 및 예절교육, 일일자원봉사활동
동대문구	눈썰매교실, 도자기굽기교실, 갯벌탐사여행, 요트훈련, 민속놀이한마당 밤송이캠프, 청소년예술제
노원구	눈썰매교실, 구청장배 3대3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댄스·가요 경연대회 갯벌탐사, 인터넷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마포구	겨울방학 스키강습,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장기자랑, 청소년한마음 체육대회 가족과 함께 하는 해맞이 열차, 갯벌의 탐사, 사랑의 봉사활동, 구연동화 전통문화를 찾아서, 댄스댄스경연대회, 청소년예술제
강서구	눈썰매 교실운영, 청소년역사현장순례, 길거리농구대회, 갯벌탐사 도예지탐방, 철새도래지 기행

주 :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공한 자치구의 프로그램을 제시함.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00

### (3) 자치구 자체 사업

자치구에서 자체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사업은 청소년의 달과 관련된 행사와 기타 청소년 문화행사 등으로 양분할 수 있다.

청소년 달 관련행사는 자치구 대부분이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 사생대회, 백일장, 댄스페스티벌, 거리축제 등이며 5월달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2000년에 청소년의 달 관련행사 및 시비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자치구별로 기획하고 있는 여가·문화활동 관련 주요행사를 정리하면 다음 <표 4-15>와 같다.

## 3) 문제점

### (1) 프로그램 공급자 위주의 사업선정

청소년단체의 육성차원에서 청소년단체의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는

<표 4-15> 자치구별 청소년 문화행사

2000년 기준

자치구	주요 사업	
종로구	- 문화강좌(서예, 한문, 바둑 등)	- 어린이 영어 경진대회
중구	- 청소년영화교실	- 청소년열린음악회
광진구	- 바둑대회 - 청소년건강교실 - 문예대제전	- 문화유적지순례 - 컴퓨터교실
동대문구	-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	
종랑구	- 청소년수련캠프	- 청소년인터넷동아리 운영
성북구	- 합합 에어로빅 교실 운영 - 청소년거리축제	- 청소년합합경연대회 - 청소년전통문화체험도예교실
강북구	- 청소년가족캠프 - 야외영화감상회 - 어머니와 함께하는 탈출교실 - 청소년체육교실 - 희망의 연 만들기	- 저소득자녀 환경친화캠프 - 자매결연지 청소년간 우애교류 - 전통문화익히기(상설풍물교실) - 문화재 탐방 및 애국선열 묘역 순례 - 부모와 함께하는 등산대회
도봉구	- 청소년 여름캠프	- 방과후 취미교실
노원구	- 청소년 문화캠프	
은평구	- 은평꿈나무 축구교실 - 일요 청소년 축구교실	- 청소년캠프 - 청소년문화교실(탁구, 볼링, 농구 등)
마포구	- 마포 내고장 탐방	
양천구	- 방과후 취미교실 - 우리동네그리기, 글짓기대회	-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강서구	- 미니축구대회 - 청소년캠프 - 청소년가요제	- 컴퓨터게임 경진대회 - 영어웅변대회
영등포구	-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동작구	-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관악구	-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 청소년가족음악축제
서초구	- 사랑의 편지쓰기	- 가훈·회화대회
강남구	- 청소년캠프	
송파구	- 청소년 원두막 짓기대회	
강동구	- 청소년백일장 - 청소년합창대회	- 청소년동아리축제 (노래, 춤, 사물놀이 등)

주 : 자치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2000년 사업계획을 재정리함.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등 5개 자치구는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보호사업, 시비지원사업 이외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음.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00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공급자 위주의 사업선정이라는 단점이 있다. 프로그램의 실제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우며, 수련활동 전반에 대한 균형있는 사업실시가 곤란하다. 예를 들면 2000년 사업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개 청소년 수련분야 중 전문적 직업능력 고양, 환경의식함양 분야가 제외되어 있다.

## (2)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프로그램 미비

사업의 성격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라고 한다면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청소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기획자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 (3) 프로그램의 단순성 및 자치구 사업과의 중복성

서울시는 소비성, 행사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교육적이고 경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선정된 사업프로그램이 대체로 단순한 편이다. 특히 청소년 미술제, 백일장 등은 대부분의 자치구 사업과 중복되고 있다.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자치구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단순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청소년어울마당을 예로 들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1천6백만원으로 6-8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위사업당 예산이 약 200만원정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예산으로는 형식적인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4)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D/B 구축 미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적으로 높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현재는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D/B 구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어울마당의 경우 「모델뱅크」라는 프로그램집을 발간하다가 예산 지원 미비로 중단되었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 D/B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현재로는 D/B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자치구가 지역사회 청소년시책을 집행하는 주체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자치구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식(know-how)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부재

사업평가 결과가 차기 프로그램에 환류(Feedback)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 (6) 서울시의 일률적인 청소년사업 시달 및 예산배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청소년사업의 대부분이 서울시가 시달한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비지원사업의 경우 자치구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달하고 예산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일률적인 배분을 지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청소년 인구나 재정면에서 자치구간 청소년 행정여건이 매우 다르며,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 제 3 절 경제

청소년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중·고등학교 중퇴자나 졸업생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업전문학교 4개소가 있다. 이외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에서 직업체험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청소년의 직업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보호해 주는 사업은 전혀 없다.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에 비해 직업체험이나 진로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1. 시립직업전문학교

### 1) 시설과 입지

시립직업전문학교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1977년에 설립되었다. 2000년 현재 노원구 상계동, 용산구 한남동, 강동구 고덕동, 경기도 군포시에 총 4개소가 입지해 있으며, 입지여건상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다.

### 2) 예산 및 운영형태

4개 직업전문학교의 2000년도 총예산은 94억2천3백만원이며, 훈련계획인원은 주간생 1,460명과 야간생 1,600명으로 총 3,060명이다. 훈련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자이며, 주간반의 경우 학력제한은 없으나, 연령을 만14-29세로 제한하고 있다. 4개 학교 모두, 기독교와 천주교의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 3) 프로그램 및 이용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전형적인 여성훈련직종인 미용, 조리, 의상 등에 국한된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상계, 서울종합, 엘림직업전문학교는 남녀구분을 하지 않으며, 훈련직종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3D업종에 해당되는 보일러 시공, 자동차 정비, 산업기계, 가구디자인 등이다.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주간반의 경우 99년에는 교육생의 45.9%가 14-19세, 20-24세가 35.2%로 나타나, 14-24세까지의 청소년이 81.2%를 차지하고 있다. 훈련생의 76.7%는 고졸 이상이다.

### 4) 문제점

#### (1) 청소년 실업문제를 위한 종합센터기능 미비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고졸이하 및 고졸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종합센터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저학력 청소년의 노동조건과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서울시 차원의 취업 및 창업지원책이 없다.

## (2) 훈련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족

직업전문학교가 사회 및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운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설립초기의 운영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나 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3) 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보호 및 지도대책의 전무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43%에 이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학생도 70%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보호나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 (4) 직업체험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에서 하고 있는 일부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직업체험이나 진로모색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 제 4 절 보호·복지

## 1. 보호시설

### 1) 행정 체계 및 시설 현황

#### (1) 행정 체계

1990년대 들어와 가출 및 가정해체로 인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1992년 당시 문화

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서울YMCA청소년쉼터’가 최초의 제도화된 쉼터로 개소하였다. 그 뒤 정부지원이나 민간주도로 단기쉼터, 중장기그룹홈, 자립생활관 등 여러 유형의 보호시설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2월 현재, 쉼터 및 그룹홈을 지원하는 서울시 행정체계는 체육청소년과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체육청소년과는 쉼터 2개소를, 여성정책담당관은 11개소<sup>14)</sup>를 지원하고 있다. 강남구와 노원구의 가정복지과 지원을 받는 쉼터 2개소도 있다.

## (2) 시설수 및 입지

2000년 2월 현재, 서울시에 는 가출 및 가정해체로 인한 청소년을 위한 쉼터 및 그룹홈 등의 보호시설이 38개소가 있다. 38개소 시설에 의 입소 총정원은 2,032명, 현원은 1,768명이고, 이 중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여자전용 보호시설이 26개소, 총정원 366명, 현원 235명이다(<표 4-16> 참조). 이 중 단기 보호시설은 15개소, 중장기 보호시설은 23개소가 있다.

조사한 12개시설<sup>15)</sup> 중 시립아동상담소와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가정주택 형태로 지역사회내에 위치하고 있다. 일시·단기시설인 서울YMCA청소년쉼터와 씨튼해바라기의집은 청소년 밀집지역인 유흥·상업지역에 입지해 있고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수서동에 있는 시립아동상담소는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중·장기시설은 일반주택이 모여 있는 주거지역이 적소라고 할 때, 조사대상 시설들은 입지 측면에서 대체로 적절한 편이었으나, 공항과 인접한 서울SOS어린이마을, 양천나눔의집은 지나친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발달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입지조건이 부적절하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대부분의 시설이 협소한 공간, 부족한 오락 시설, 컴퓨터 등의 불충분한 기자재, 미비한 냉난방 장치, 노후한 시설내부 등의 문제가 있으나, 재정 부족으로 개·보수 및 이전이 용이하지 않다.

14) 2000년 11월 현재는 신고시설 6개소가 증가하여 여성정책관에서 17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15) 심층면담 대상시설(2000년 8월14-8월30일) : 상록자립생활관, 대한성공회청소년쉼터,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청소년새샘터, 서울YMCA청소년쉼터, 평화의샘, 강남구청청소년쉼터, 썬마의집, 양천나눔의집, 서울SOS어린이마을, 씨튼해바라기의집,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표 4-16> 청소년보호시설 현황

2000년 2월 현재

기간별	구분	개소	시설명	지원
일시 및 단기	쉼터	14	서울YMCA청소년쉼터	문화관광부 서울시
			구로청소년쉼터, 신림청소년쉼터	서울시
			강남청소년쉼터, 노원청소년쉼터	자치구
			노랑진나자렛의집, 사마리아의집, 평화의샘,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또하나의집, 우리들쉼자리, 씨튼해바라기의집, 친구살이쉼자리, 성심어머니의집	민간
	상담소	1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서울시
중기 및 장기	그룹홈	17	석관동나눔의집, 방화동나눔의집, 서울시립소년의집, 서울SOS어린이마을	중앙정부 서울시
			고척동만남의집, 양천나눔의집, 나자렛의집, 목동나눔의집, 구로동나눔의집, 막달레나의집, 대한성공회청소년쉼터, 착한목자의집, 유프라시의집, 다비디의집, 젼마의집, 청소년새샘터, 강북구나눔터	민간
	상담소	1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중앙정부 서울시
	자립 생활관	5	청운자립생활관, 상록자립생활관, 마지멜로센터,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돈보스코청소년회관	중앙정부 서울시

주 : 1. 청소년쉼터는 여성정책담당관실 관장 쉼터와 체육청소년과 운영 쉼터(2개소) 포함함.

2. 마리스타기술원(충북소재)은 제외함.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체육청소년과, 여성정책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고용안정과)

## 2) 예산 및 운영 형태

### (1) 운영 주체와 인력

문화관광부, 서울시, 자치구 지원을 받는 시설이 16개소, 정부 지원없이 운영되는 민간시설이 22개소이다. 미인가 시설을 포함한 12개 조사시설은 인건비 부족, 지위의

법적 미보장,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혼자 20명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도 있고, 특히 성폭행이나 매매춘과 같이 성관련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쉼터의 경우 운영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의 전문성 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원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 시설종사자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보수교육, 워크숍, 학회 등에 참석하고자 하여도, 업무를 대체해 줄 직원이 없고, 개인이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 제약이 많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표 4-17> 조사시설의 일반적 현황

2000. 8월 현재

구분	시 설 명	운 영 단 체	설립 년도	직원 (자격*)	규모(평)		인가 여부
					대지	건물	
일 시 및 단 기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서울특별시	1965	39 (18)	7,807	698	인가
	서울YMCA 청소년쉼터	서울YMCA	1992	4 (3)	68	68	인가
	강남구청소년쉼터	사회복지법인태화 기독교사회복지관	1998	4 (4)	45	83	인가
	평화의샘	천주교서울 사회복지회	1999	2 (1)	170	60	미인가
	씨튼해바라기의집	사랑의씨튼수녀회	1999	4 (1)	64	35	인가
중 기 및 장 기	서울SOS어린이마을	사회복지법인서울 SOS어린이마을	1982	33 (10)	5,153	1,665	인가
	양천나눔의집	살레시오 수녀회	1994	5 (2)	4,365	138	미인가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	대한성공회	1995	2 (2)	70	60	미인가
	청소년새싹터	한국예수회	1998	4 (0)	30	20	인가
	젼마의집	개인	1997	1 (1)	72	33	미인가
	상록지립생활관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1997	3 (3)	703	272	인가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1988	13 (7)	2,922	1,426	인가	

주 : 자격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

## (2) 재정

정부나 운영단체의 예산지원을 비교적 충분히 받는 시립아동상담소, 서울YMCA 청소년쉼터, 강남구청청소년쉼터, 양천나눔의집,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호시설의 재정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인가를 받아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그 지원 규모가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사용 내역이 지나치게 규제적이어서 실제 운영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후원자들이 공동후원체계인 공동모금회로 옮겨감으로써, 개인 후원자에 의존하던 영세·미인가 시설들이 재정곤란을 겪고 있다(<표 4-18>, <표 4-19> 참조).

<표 4-18> 조사시설의 수입 현황(1999년 결산기준)

단위: 천원

구분	총액	중앙정부 재정지원	자치정부 재정지원	법인 전입금	재단 재정지원	회비 (일반+특별)	기타
서울시립아동상담소	1,420,032	-	1,420,032	-	-	-	-
서울YMCA청소년쉼터	122,055	82,055	-	40,000	-	-	-
강남구청청소년쉼터	190,000	-	156,000	34,000	-	-	-
평화의샘	-	-	-	-	-	-	-
씨튼해바라기의집	18,608	-	-	4,794	8,000	5,814	-
서울 SOS어린이마을	1,000,000	670,000		320,000	-	-	10,000
양천 나눔의 집	175,126	29,494		145,632	-	-	-
대한성공회청소년쉼터	54,807	-	-	21,812	32,995	-	-
청소년 새샘터	80,000	-	-	-	30,000	50,000	-
젬마의 집	-	-	-	-	-	100%	-
상록자립생활관	37,744	30,224	4,020	2,500	-	1,000	-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546,823	-	352,056	156,800	5,134	32,167	666

주 : 1. 평화의샘은 1999년 10월 개소하여 1999년 결산이 없음.

2. 재단재정지원은 씨튼해바라기의집, 대한성공회쉼터는 공동모금회, 청소년새샘터는 한국마약퇴치협회의 프로젝트 공모 수익사업비이고, 살레시오회관은 한국복지재단에 의한 지원임.

3. 씨튼해바라기의집은 1999년 10월에 인가 받아 정부지원은 2000년부터 받음.

4. 살레시오회관은 기타수입으로 법원보조금이 있음.

〈표 4-19〉 조사시설의 지출 현황(1999년 결산기준)

단위: 천원

구분	총액	인건비	관리운영비	무료 사업비	실비사업경비	
					사업비	인건비등
서울시립아동상담소	732,805	524,810	-	-	207,995	-
서울YMCA청소년쉼터	-	56,720	-	-	-	-
강남구청소년쉼터	190,000	110,000	80,000	-	-	-
평화의샘	-	-	-	-	-	-
씨튼해바라기의집	18,148	-	17,848	-	-	300
서울SOS어린이마을	1,000,000	600,000	400,000	-	-	-
양천나눔의집	115,126	42,167	72,959	-	-	-
대한성공회청소년쉼터	54,807	48,467	6,340	-	-	-
청소년새샘터	88,340	40,800	25,500	22,040	-	-
젬마의집	-	-	100%	-	-	-
상록자립생활관	36,898	31,348	5,550	-	-	-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388,203	203,226	184,977	-	-	-

주 : 1. 평화의샘은 1999년10월 개소하여 1999년 결산이 없음.

2. 서울YMCA청소년쉼터와 젬마의집은 구체적 재정 현황을 공개하지 않음.

### 3) 시설 대상자

각 시설은 문제별, 특성별, 이용 조건 등으로 입소대상자에 차이가 있다. 시립아동상담소는 18세 미만 여아를 중심으로 하되 13세 미만의 남매인 남아도 보호하고, 평화의샘과 씨튼해바라기의집은 성폭력, 매매춘 등 성문제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자청소년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새샘터에서는 약물남용 문제를 가진 남자청소년을 보호하고,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은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범법 남자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양천나눔의집은 학교 교육을 중시하여 입소 자격으로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고, 상록자립생활관은 보호가 필요한 여자청소년으로 반드시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자격의 제한이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소자 상당수가 학령기이지만 기초능력 부족, 주거불안정성, 반복된 가출, 약화된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많은 수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교육에서 이탈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제시설의 입소인원 현황을 볼 때, 정부지원이 없거나 미인가인 시설은 홍보 부족,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보호하고 있다. 일부 인가시설에서는 다른 보호시설로 의뢰할 때, 청소년의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인가시설로만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

<표 4-20> 조사시설의 입소자 현황

2000년 8월 현재

시 설 명	현원 (정원)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서울시립아동상담소	520( )	309	169	42	-
서울YMCA 청소년쉼터	10(10)	-	5	5	-
강남구청소년쉼터	12(15)	2	8	2	-
평화의샘	3(10)	-	-	-	3
씨튼해바라기의집	7(10)	-	3	2	2
서울SOS어린이마을	129(150)	58	35	27	9
양천나눔의집	23(20)	6	10	7	-
대한성공회청소년쉼터	3(10)	-	2	1	-
청소년새샘터	4( 8)	-	-	4	-
젬마의집	20(20)	9	4	7	-
상록자립생활관	25(48)	-	-	-	25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46(80)	-	16	26	4

- 주 : 1. 서울시립아동상담소는 1999년 1년동안의 일시보호아동 입소현황임.  
 2.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서울SOS어린이마을은 남녀 모두 해당됨.  
 3. 서울YMCA, 평화의샘, 씨튼해바라기의집, 대한성공회청소년쉼터, 젬마의집, 상록자립생활관은 여자 시설로 입소자 모두 여자임.  
 4. 강남구청소년쉼터, 양천나눔의집, 청소년새샘터,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은 남자 시설로 입소자 모두 남자임.

#### 4) 프로그램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청소년 보호복지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은 보호사업, 상담사업, 집단활동,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직업훈련, 자원개발, 의뢰 및 연계, 사후관리 등이다(<표 4-21> 참조). 현재 쉼터 및 그룹홈의 매뉴얼화된 프로그램 지침 및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각 시설의 재정상태나 실무자 역량 등에 따라 시설간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큰 편이다.

대부분의 보호시설은 보호사업, 상담사업, 집단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숙식제공,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가족상담 등은 다소 미약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 조사에서 가출 유경험자의 가출동기는 가정불화(42.3%)와 가정폭력(6.1%)등의 가정문제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문제는 가정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청소년과 부모간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일차적임에도 불구하고, 제시시설들의 부모가족상담은 가족의 거부, 전문상담가 부족, 시설활동의 법적근거 미약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립아동상담소 1개소 밖에 없었다.

입소 청소년들이 자주 바뀌고, 가출이 잦아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많은 편이고, 비행의 경험이 많은 편이라서 안정적으로 집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워져서 집단활동을 잘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면접조사에 의하면, 재정부족, 인력부족, 시설활동의 법적근거 미약, 연계망 부재 등으로 각 시설들이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직업훈련, 자원개발, 의뢰 및 연계,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립아동상담소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모교육 및 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어 가정문제로 인해 파생가능한 가출 및 비행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팀이 다른 보호시설로 순회방문심리검사를 나가므로써 자체 내 심리검사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보호아동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나 전문 서비스의 시설간 공유 등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더 적합한 보호시설로 보내거나, 보호시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 및 직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체계화된 연계망이 없어

서 전문적인 의뢰 및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제공되는 의뢰 및 연계서비스는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청소년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호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표 4-21〉 보호시설의 일반적 프로그램 내용

영역	내용
보호 사업	의식주 무료 제공, 목욕·이발 서비스, 건강 검진 및 치료
상담 사업	청소년 및 가족 대상의 개별 및 집단 상담
집단 활동	사회기술훈련, 사회체육활동, 놀이문화활동, 여가활동
조사 연구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
직업 훈련	취업 지도 교육, 직업 훈련
자원 개발	지역사회 자원 개발
의뢰 및 연계	타보호시설 및 전문시설 의뢰 및 연계, 프로그램 공유, 협력 체계
사후 관리	개별 상담, 가정 방문, 부모 상담, 후속프로그램 제공

시설별로 입소자 특성, 시설 규모,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강조되거나 특화 및 중점 사업이 있는데, 이는 〈표 4-22〉에 나타나 있다.

전반적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 시립아동상담소는 18세 이하의 보호아동의 문제를 사정·분류하여 가정복귀와 시설의뢰를 하고, 제도권 시설에 보호된 아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는 등의 통계자료와 신상자료의 확보를 통한 시설간 정보망을 구축하여 제도권 보호시설의 중추적인 중앙센터역할을 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볼 때, 서울YMCA청소년쉼터의 거리상담 프로그램, 강남구청 소년쉼터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양천나눔의집의 보육사양성 프로그램,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자 특화의 측면에서 볼 때, 평화의샘과 씨튼해바라기의집은 성문제 여자청소년, 청소년새샘터는 약물남용 남자청소년,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은 범법 남자청소년을 그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4-22〉 조사시설별 특화 및 중점사업 내용

시설명	내 용
서울시립아동상담소	· 아동복지 최일선 행정기능담당 : 기미아 및 가출아 신고센터, 입소아동을 문제 시정 및 분류 후 가정 복귀 및 시설 의뢰, 제도권시설 입·퇴소자 신상DB 구축·관리 · 학대아동전문보호소 운영
서울YMCA청소년쉼터	· 거리상담 :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아웃리치 서비스
강남구청소년쉼터	· 진로지도 프로그램: 취업 통한 자립을 이루고자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인력은행과 공동으로 진행
평화의샘	· 성폭행 및 성문제로 인해 보호가 요구되는 여자청소년을 대상
씨튼해바라기의집	· 비행 및 성문제로 인해 보호가 요구되는 여자청소년을 대상
서울SOS어린이마을	· 일반가정과 같은 공간 및 관계를 만드는 것 ·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자립
양천나눔의집	· 학교 교육 중시 : 재학생만 입소가능, 입소 후 학습지도 프로그램 많음 · 보육자 양성 : 같은 단체 산하 보호시설의 보육사 관리 및 교육 담당
대한성공회청소년쉼터	· 교육 지도 : 학교 공부와 일인 일기 등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행함
청소년새샘터	· 약물남용 문제로 인해 보호가 요구되는 남자청소년을 대상 · 예술치료 등 치료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함
젬마의집	· 가정공동체
상록자립생활관	· 시설 연장아로 직업 가진 여자청소년의 자립 지원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 법원 보호처분 받은 범법 남자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 · 직업훈련서비스

## 5) 네트워크

2000년 4월에는 전국 그룹홈을 연계하는 ‘전국아동·청소년그룹홈연합회’가, 2000년 8월에는 전국 쉼터를 연합하는 ‘한국청소년쉼터 연합회’가 각기 결성되어 가출 및 가정 해체로 보호가 요구되는 청소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쉼터와 그룹홈 연합회가 시설간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서비스 의뢰가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다음 다른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직접 연계되어 전문서비스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거의 없다. 몇몇 연계기관의 경우 각 보호시설 실무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비공식적 통로를 통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어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시혜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보호시설의 청소년은 오랜 노숙생활과 술·약물·담배 복용, 성폭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건강회복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할 전문치료기관이 없고, 시립병원 및 보건소의 활용이 미진하여 요보호청소년의 대부분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약물이나 충격으로 인한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재정지원도 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 입소시 주어지는 의료보호자격과 같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기본적인 신체·정신건강 치료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업을 통한 자립이 최종목표이나 현재 각 보호시설에서는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미비하고, 취업지 발굴 및 연계가 비공식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아 퇴소청소년들의 자립지원 서비스가 미약하다.

## 6) 문제점

### (1) 보호시설간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센터의 부재

가출청소년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관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호시설간에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가출청소년 실태 파악, 보호시설 홍보, 정보 공유, 보호대상자 의뢰, 서비스 참여, 공동프로그램 추진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보호시설간 연계망이 구축되지 않아서 각시설간 상호 정보가 부족하고, 보호청소년이 제시 설을 전전해도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적절한 서비스 의뢰를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 연계망 미비와 관련하여 현재 이러한 연계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중앙기구가 없는 것 또한 문제이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은 복합적인 문제나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에 직업훈련원, 일반병원, 무료진료병원, 정신병원, 미혼모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대안학교 등의 다양한 타전문시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가출청소년 문제별로 시설·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이 미미하고, 매개자 역할을 할 전문인력이나 구심역할을 할 중앙센터가 부재하여 각기 보호시설내 국한된

제한적·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 (2) 미약한 법적 근거 및 정체성 미확립 문제

현재 청소년 쉼터 및 그룹홈 등의 보호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보호시설 활동의 제반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보호활동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제약을 초래한다. ‘서울YMCA청소년쉼터’의 경우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뿐 청소년기본법상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될지 불분명한 상태이고, 예산지원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해도 확실한 근거법이 없어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체계가 체육청소년과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보호대상자 연령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실무자 및 행정가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많은 보호시설들은 전반적으로 정부나 학계에서 합의된 정확한 개념 정의나 우리 현실에 맞는 토착화된 모형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생성·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각 시설들은 실제 운영시 업무 및 서비스의 매뉴얼화된 지침없이 각 시설의 운영 주체나 실무자 역량 등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보호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설구비나 체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3) 남자청소년 보호시설의 부족

현재 서울시 38개소 보호시설 가운데 여자전용시설이 26개소, 남녀공용시설이 3개소, 남자전용시설이 9개소로, 남자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 양적으로 다소 부족한 편으로, 일시보호가 끝나도 의뢰할 다음 단계시설이 없어서 시설에 장기보호하거나 대안없이 사회로 내보내고 있다. 현재 쉼터는 2개소로 특히 여름에는 증가하는 남자가출청소년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여 방치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매매춘 문제에 비해, 약물남용이나 범법행위 등과 같은 남자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

어지기 때문에 남자청소년 보호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한 편이지만, 약물남용, 범법행위, 폭력 등의 문제와 관련된 남자청소년의 사회적 보호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이다.

#### (4) 민간 보호시설 활용 부진

현재 청소년 보호시설은 정부 지원없이 종교단체나 법인체, 개인 등 민간의 자체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시설이 많다. 이러한 민간시설은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민간 시설이 제도권내로 유입되지 못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인가 기준, 인가 후 지나친 규제와 간섭, 불필요한 행정처리업무를 수행할 인력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이다. 현재 아동복지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설에 대한 규정이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그룹홈의 현원이 7-8명으로 신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많은 경우 실무자가 1-2명인 소규모 시설이므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민간시설들이 청소년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범위 내에서 민간시설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이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5) 의료 서비스 제공의 미비

가출청소년의 상당수는 긴 노숙생활에서 얻은 피부질환, 약물남용이나 성폭행 후의 정신장애, 매매춘으로 인한 산부인과적 질환 등의 신체적 질병상태나 정신적 장애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시차원의 정책적 의료보호 혜택없이, 입소시설과 연계된 몇몇 병원에서 제한된 범위의 무료 치료서비스를 받거나, 입소시설의 전액 지원을 받지만 재정사정으로 단기적인 치료만 받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시설이라 할지라도 동부아동상담소 경우엔 입소시 구청에서 발급되는 입소증명서를 통해 시립병원 및 보건소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시립인 신림쉼터나 구립인 강남쉼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6) 직업훈련 및 구직지원 서비스 미비

보호시설 퇴소후 직업을 통해 자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보호청소년을 위한 궁극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립직업전문학교나 보호시설 내의 직업훈련서비스나 구직지원체계가 매우 제한적이며 요보호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서비스나 사후관리체계가 미비하다. 그리고 직업훈련 후 구직지원체계가 없어 현재 몇몇 보호시설은 자체적으로 개별 산업체와 연계하여 직업을 제공하고 있지만, 임금 수준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보호가 없어 이들이 직장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은 임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저축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차원의 자립지원금 등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다.

## (7)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실무자가 1-2명 밖에 없는 민간시설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행정절차나 규제, 보고서 제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2001년 그룹홈 2개소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매달 1회 회계감사와 보고서 작성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어서 민간시설에서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 2. 상담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으로 청소년상담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문화관광부가 1999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설립하였다.

현재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법무부 등 각부처별로 청소년상담 관련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고 있다. 부처별 상담인력은 상담교수, 사회복지사, 진로지도교사, 직업상담원, 분류심사전문인력, 소년경찰 등과 같이 비교적 전문적 상담인력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또래상담원, 명예직업상담원, 청소년선도위원 등과 같은 다수의 비전문 인력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정부 기관 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민간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청소년 관련 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1개소의 상담실이 있다. 그리고 이외에 8개의 구립 청소년시설에서 미비하지만 상담사업을 하고 있다.

## 1)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 (1) 예산 및 운영

1997년 7월에 개소한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은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 1999년도 예산은 2억2천7백만원으로 이 중 64%를 서울시에서, 36%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다. 2000년도 예산은 3억으로 시비 2억7백만원(69%), 국비 9천3백만원(31%)이다. 예산 항목은 사업비 15%, 인건비 39%, 관리비 40%, 시설비 5%, 예비비 1%로 각각 책정되어 있다.

조직은 상담팀, 연계지원팀, 업무지원팀 3개팀으로, 실장을 포함한 전문상담심리가 9명과 행정지원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계지원팀은 1999년 발족한 '서울시청소년상담실협의회'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 (2) 규모, 장비, 입지

규모는 서울청소년수련관 6층 전부와 7층 일부 약 240㎡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듀넷)과 상담사업을 협약하여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지원 받고 있다. 입지조건은 지하철 2호선역에서 가까이 입지해 있어 교통여건은 좋으나, 건축자재 밀집상가 지역에 위치하여 청소년 통행은 적은 지역이다.

### (3) 사업 내용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주요사업을 팀별 업무로 나누어 볼 때 다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3명으로 구성된 상담팀에서 상담고유업무인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출장집단상담, 전화상담, PC상담, 자원봉사자교육,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4명으로 구성된 업무지원팀에서는 상담실 홍보, 대내외 업무, 연구지

〈표 4-23〉 청소년 상담기관 총괄 현황

분 류	주무부처	기 관	내 용
종합 상담	문화 관광부	한국청소년상담원	종합상담, 상담정책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실	종합상담, 특화상담
교육 상담	교육부	중학교 상담실, 고등학교 상담실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청소년 학습지도 및 진로상담
		교육청 상담실 (강남,강동,강서,남부,동부,동작,북부,서부,성 동,성북,중부,특별시 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상담, 취업상담
		한국교육개발원상담실	독학상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듀넷)	에듀넷 교육종합상담
		독학정보상담실(한국방송통신대학)	독학상담
비행 상담	법무부	소년선도위원연합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범법청소년 선도 및 비행 예방상담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상담실 (서울청소년수련관)	비행청소년 선도 및 비행 예방상담 (31개 경찰서의뢰)
노동 상담	노동부	서울인력은행  서울지방노동청 직업안정과 지방노동사무소(동부, 남부, 관악, 북부, 중부, 서부)	근로청소년 및 여성 제반 고충상담
종합 상담	보건 복지부	아동상담소	요보호 아동·여성 상담, 일시보호
		부녀상담소	
		종합사회복지관	생활상담, 학교연계활동
		성폭력상담실	성폭력상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약물예방상담 및 홍보
정신보건센터	정신장애청소년 상담		
일반 상담	사회 (민간) 단체	YMCA, YWCA, 흥사단, 대한가족계획협회	생활상담, 비행예방상담
		개신교, 카톨릭, 불교, 원불교, 대한성공회	생활상담
		사설 상담 기관	생활상담, 심리검사

자료 : 「사회상담기관활성화세미나」 자료집 재구성, 2000

발간, 운영협회 주관, 공문수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셋째, 2명으로 구성된 연계지원 팀은 서울시 상담실간 연계지원 사업을 총괄하는데 서울시상담실협의회 주관, 서울시 상담자연수, 상담사례회의, 간담회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5월에 발족된 '서울시청소년상담실협의회(서상협)'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 2)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실

### (1) 예산 및 운영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상담실이 11개소 수련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인력은 평균 2-3명으로, 이 인력으로는 상담실을 직접 찾아오는 청소년 상담은 가능하지만 아웃리치 서비스인 찾아가는 상담과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등 다양한 상담영역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

<표 4-24> 시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현황과 특성

시 설 명	상담원	상담실	특 성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9	10	전문종합상담, 유관기관연계지원, 학술연구, 상담자 연수 및 간담회, 서상협 활동
구로청소년쉼터 상담실	2	3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치료상담, 이동 상담
근로청소년복지관 상담실	3	3	근로 및 일반청소년 상담, 심리검사, 복지아파트순회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청소년성문화센터 상담실	1	3	성상담, 사이버상담, 성교육 전시관
노원청소년수련관 상담실	3	3	푸른쉼터상담실, 학교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 또래학교적응훈련, 상담자 훈련
종량청소년수련관 상담실	2	4	생활상담, 취업상담, 지역사회방문상담
목동청소년수련관 상담실	1	3	전화상담, 자기표현훈련, 심리검사, 학교방문상담
문래청소년수련관 상담실	2	2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 운영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상담실	2	5	면접상담, 심리검사, 심리극, 학교연계프로그램
신림청소년쉼터 상담실	5	3	가출청소년 보호·상담, 거리상담, 안전지대확보활동
수서청소년수련관 상담실	3	2	학교사회사업, 약물상담

자료 : 1. 서울시,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실 운영백서」, 2000

2. 각 시설별 내부자료, 2000

## (2) 사업 내용

상담방식은 일반적으로 면접상담, 전화상담, 집단활동, 부모교육,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등을 하고 있으며, 각 상담실은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가출상담, 성상담, 근로상담, 진로진학상담, 인권상담 등 분야별로 특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1999년부터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 및 욕구에 맞추어 각 상담실로 의뢰·연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3) 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 (1) 예산 및 운영

구립 청소년시설에 있는 상담실은 구립 청소년시설 사업 일부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구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상담인력 현황을 보면 전담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는 기관도 있고, 대부분은 상담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동청소년문화의집과 관악청소년회관 내 상담실은 교육청청소년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전문상담원과 학교교사가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표 4-25〉 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현황과 특성

시 설 명	상담원	상담실	특 성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상담실	1	3	성동교육청 소속, 교사 4명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상담실	1	1	전반적 상담
북아현청소년정보상담센터 상담실	1	1	여성상담전문
사당청소년회관 상담실	1	1	평일에는 활성화 되지 못하나 방학에는 활성화됨
관악청소년회관 상담실	1	2	동작교육청 소속, 교사 6명
강남청소년회관 상담실	2	2	학원폭력신고센터 운영
마천청소년회관 상담실	2	1	전반적 상담
강동청소년회관 상담실	-	2	전담직원 없이 상담봉사자 6명 월-금, 15시-19시 운영

자료 : 각 시설별 내부자료

## (2) 사업 내용

상담방식은 주로 면접상담, 부모교육, 심리검사로,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마천청소년회관은 가출청소년상담을, 북아현청소년정보상담센터는 여성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강남청소년회관상담실은 인근학교와 연계한 학생상담을 활발히 하면서 학원폭력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 4) 시립 및 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연계

청소년상담을 정책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1999년 5월에 발족한 ‘서울시청소년상담실연합회’에는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을 포함한 12개 시립청소년시설 상담실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담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강남청소년회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립청소년시설 상담실은 시설 및 인력 측면에서 구립 청소년종합상담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시립상담실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 역시 한 곳도 없다.

## 5) 문제점

### (1) 서울시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사업비 부족

서울시 청소년상담실 예산의 79%가 관리비와 인건비로 충당되고, 15%만이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상담 및 연계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특히 시립상담실을 연계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상담실협의회 활동을 위한 연계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사이버상담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다.

### (2)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인력 부족

시립청소년상담실은 평균 2-3명, 구립청소년상담실은 전담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거나 대부분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인원구성은 아웃리치 프로그램

인 거리상담(쉼터상담실), 가족상담, 학교연계 프로그램(수련관상담실) 등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

### (3)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운영 지침 부재

상담실 운영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없어 상담실에 따라 규모나 인력이 격차가 나며, 위탁기관장의 상담에 대한 이해나 인정 등에 따라 상담사업의 전체방향이나 세부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있다. 상담사업은 수익성이 없으므로 구색 갖추기식으로 상담사업을 하기도 한다.

### (4)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연계망 미비

한 시설에서 다양한 청소년 문제 및 욕구를 모두 상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은 그 규모나 인력 면에서 볼 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 어렵다. 또한,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간의 서비스 통합이나 조정·의뢰가 가능한 연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차원의 청소년 상담정책이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고, 상담사업이 유기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서울시청소년상담실협의회를 통해 연계망을 구축하고자 하나, 현재는 12개소 시립시설 상담실과만 연계가 되어 있을 뿐 구립시설 상담실과는 전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 (5) 공공기관 상담실 연계망 부재

현재 공공기관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업무는 정부 6개 부처에 분산되어 각각 기능에 따라 독자적인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각은 그 근거법이 다르고, 상담인력의 능력 및 전문성도 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각 부처 내에서는 같은 기관이나 단체간 협의체 혹은 실무자간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서 정보교류 및 상담사례연구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6개 부처간에는 청소년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조종이나 상호협조 기능이 극히 미약한 편이다. 또한, 부처별 실제 상담이 이뤄지는 시립청소년상담실, 구립청소년시설 상담실, 경찰서, 학교, 소년원, 아동상담소, 노동사무소 간에 체계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못해서 정보 공유, 내담자 의뢰, 시설간 연계 등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6) 상담 자원봉사 인력 전문성 부족

청소년상담의 상당부분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수행되는데 자원봉사자 선정, 교육, 배치, 지도감독 등 일련의 관리체계가 미약한 시설이 많다. 상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기본교육이나 지속적 재교육, 지도감독이 미비하여 상담 자원봉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 (7)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상담 내용 문제

일부 전문상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담이 청소년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경청해 주거나 심리적 지지를 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로·취업 상담의 경우 일률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나 예방차원보다는 단편적이고 사후치료 차원에 중점을 두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청소년이나 부모가 직접 찾아오거나 의뢰받은 경우에만 상담이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 상담이 더욱 절실한 대상자가 정보부족으로 인해 기회에서 제외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이다.

#### (8) 사이버상담을 위한 준비 미흡

현재 사이버상담의 이론, 가치, 기술, 모형 등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상담실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고, 실제 어떠한 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상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이버상담 인력의 자격이나 자질, 전문성에 대한 기준도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상담실에서는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구축·운영 경비, 통신망 구축에 따른 비용, 상담용 고급 컴퓨터 구입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적절한 장비없이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집이나 PC방에서 사이버상담을 하는데 이는 공간적 부적절성이나 기술적 미충족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이버상담에 대한 정보나 홍보 부족으로 상담실 웹주소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 (9) 홍보 미비로 인한 상담 이용률 저하

현재 많은 상담실과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담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상담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는 상담받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담실 존재 및 위치에 대한 인지 부족, 심리적 접근의 어려움, 상담효과성에 대한 불신, 상담자 능력에 대한 불신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이는 상담 및 그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가진 청소년 및 가족에게만 서비스가 국한되고, 실제 상담이 필요한 많은 청소년 및 가족이 상담서비스에서 누락되고 있다.

## 3. 학교사회사업

오늘날 대부분의 학령기 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고, 하루 일과 중 8-12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 때,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를 가진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가진 환경체계이다. 심리상담이나 진로지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청소년보호 및 일반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학교 폭력의 증가, 집단따돌림의 심화, 중도탈락자의 증가와 같은 교육병리현상이 심화되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의무화에 따른 학교-사회복지기관 연계가 필수화되고, 처벌중심에서 지역사회 연계를 전제로 한 징계제도로 변화하는 등의 학교교육 환경 자체가 변화할 뿐 아니라 가정해체, 결식아동, 유기아동 증가로 인한 학생복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사회사업 운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1)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

서울시교육청은 1996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제1차 시범사업으로 3개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학교사회사업의 기능과 역할이 명백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수행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반면, 학교사회사업활동을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여 사회복지계 외부였던 교육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시범사업 결과 서울영상고등학교와 한가람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일재단 사립학교인 영상고등학교와 한가람고등학교에서는 1997년부터 학교사회사업을 도입,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고용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예라 할 수 있다. 1996년 서울시교육청 1차시범 학교였던 영등포여상(현 영상고등학교)의 학교장이 학교사회사업의 효과성을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학교사회사업을 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기 위하여 교내 인사규정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였고 현재 학교사회사업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00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1차시범사업에 이어 생활지도 시범학교사업으로 서울시내 2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사회사업을 하고 있다.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1년간 학교사회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활지도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생활지도에 근거하고, 요보호학생 위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한 학교당 2천만원의 예산배정으로 타시범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편이다. 추후 현재 5개교 규모의 시범사업을 유지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12개 교육청에서는 관할 지역내의 복지관 프로그램을 각 학교로 홍보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각 복지관에 알려 주는 등, 학교와 지역 사회복지관이 연계하여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 2) 종합사회복지관 학교사회사업

1993년 4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교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몇몇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인근지역 학교와 연계한 학교사회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부적응, 학교 폭력, 집단따돌림, 사회봉사명령과 관련한 학교사회사업 집단프로그램과 개인상담을 실행하고 있고, 점차로 그 대상을 일반학생에게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997년 삼성복지재단은 처음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하여 2000년 현재까지 서울시내 10개소 14건<sup>16)</sup>에 예산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중심의 학교사회사업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엠클스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일부 종합사회복지관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였다. 현재 서울시 86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대부분은 청소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사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학교사회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 중인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표 4-26>와 같다.

16) 삼성복지재단 지원을 받은 지역사회복지관과 프로그램명은 아래와 같다.

### 1. 1997년

- ① 성산종합사회복지관 : 학교생활 부적응아동의 적응능력 향상
- ②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빈곤지역 학업 중단 청소년 사회통합
- ③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학교생활 부적응아동 부적응 요인 감소 사업
- ④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학교-복지관 연계
- ⑤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 학내 위기청소년 상담 및 치료 응급 직통전화
- ⑥ 대한성공회청소년센터 :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 2. 1998년

- ①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일반학교장애아동의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지원
- ②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
- ③ 하트하트종합사회복지관 : 정계경험 중학생 중도탈락 문제해결

### 3. 1999년

- ①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 저소득 중퇴청소년의 교육적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 ② 마천종합사회복지관 : 복학생의 재탈락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 ③ 장안종합사회복지관 : 사회사업적 접근을 통한 아동·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 ④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지역사회중심의 학교사회사업 통합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 4. 2000년

- ①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비행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일반청소년과의 통합 프로그램

〈표 4-26〉 종합사회복지관 학교사회사업

복지관명	인력	재정 지원	연계 방법	학교 지원	장소
태화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없음 (97,99년 삼성복지재단)	-학교에서 의뢰 -학교로 계획서 제출	-물품구입비 -강사비 (간헐적)	-학교상담실,교실 -복지관
가양4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엠펙청소년 육성재단 (97,99년 삼성복지재단)	-학교로 홍보	-학생간식비	-학교 교실 -복지관
중곡종합 사회복지관	청소년 복지팀	없음	-학교 방문홍보 -학교에서 의뢰	-프로그램 진행비 반부담	-학교 교실
은평종합 사회복지관	파견 사회복지사 실습생	삼성복지재단 (97,98년 삼성복지재단)	-공문과 인맥	-없음	-사회사업실확보 -나눔쉼터 운영
중대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실습생	없음 (99년 공동모금회)	-학교대상 설명회 -학교에서 의뢰	-없음	-학교 교실 -복지관

대부분 청소년 복지담당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이 계획된 시간에 학교 교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개인상담이나 일부 집단활동은 복지관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은 연계학교내에 학생 휴식공간인 나눔쉼터를 포함한 학교사회사업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5인으로 구성된 청소년복지팀이 함께 학교를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학교사회사업 전담복지사가 1일 5시간 학교로 파견하여 근무를 한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모두 시 및 구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복지재단에 의한 한정적인 지원을 받거나, 복지관에 따라서는 각 연계학교에서 프로그램이나 물품구입비로 실비정도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현재 학교사회사업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예산문제가 가장 큰 현실적인 제약이다.

### 3) 문제점

#### (1)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학교사회사업 활동의 근본적 장애의 하나로서 학교사회사업의 개념, 역할, 지위 등 정체성 미확립과 학교사회사업 기능에 대한 사회적 동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학교사회사업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사회복지학외 타학계나 행정관료에게도 생소한 채, 전문직간 배타적 입장이 많다. 따라서 그 중요성·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뤄지지 않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은 전체적인 지침과 근거를 교육청의 생활지도에 두고 있어, 학교사회사업에 필요한 복지적 시각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개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교사회사업을 하는 경우 인근 학교와의 연계 그리고 타전문시설이나 공공시설과의 연계가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 (2) 학교사회사업의 한시적 운영

학교사회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업이 이양된 후에 수년간 교육부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것이 또다시 서울시교육청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은 재정지원이 불안정하고 한시적으로 매우 제한된 학교에서만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학교사회사업 역시 민간복지재단에 의한 한시적인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 4. 비정규학교

### 1)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 (1) 시설과 입지

비정규학교는 정규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청소년과 성인을 위해 기초교육과정인 초,중,고등 교과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펴는 사회교육단체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과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가 있다.

2000년 8월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

설은 9개교이다. 9개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은 각기 다른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면에서는 보유면적이 956.0㎡에서부터 2,592.1㎡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반적으로 기준 면적에 비해 보유면적 비율이 2, 30%대로 매우 낮게 나타나 학교로서 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 방문한 6개 학교 가운데, 3개교는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나머지는 운동장 없이 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대체로 건물과 교육기자재가 낙후하여 교육환경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다. 건물규모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비교적 높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건물규모에 비해 학생수가 적어 현재 사용하지 않은 교실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학교도 있다. 건물의 소유형태를 보면, 3개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가 소유가 아닌 임대형태를 띠고 있어 학교의 증축이나 개보수 작업들이 수월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와 교육청에서의 지원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표 4-27>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시설규모 및 인력현황

학교명	과정	학생수	교사수	교사면적(㎡)			계열
				기준	보유	보유율(%)	
경일경영정보 중,고등학교	중	79	15명	4,896.0	1,455.1	29.7	실업
	고	657					
	계	739					
성지중,고등학교	중	348	24명	5,136.0	1,265.1	24.6	인문
	고	1,032					
	계	1,380					
연희미용정보고등학교	고	270	14명	4,896.0	990.0	20.0	미용
청량실업고등학교	고	283	24명	4,896.0	1,051.0	21.4	실업
한국예술고등학교	고	174	12명 (강사18명)	5,700.0	1,842.0	32.3	예술
한림여자실업 중,고등학교	중	892	32명	7,380.0	2,592.1	35.1	실업
	고	864					
	계	1,756					
청암중학교	중	163	7명	3,330.0	956.0	28.7	인문

## (2) 예산 및 운영형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은 서울시 지원금, 시교육청 지원금 그리고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사회복지기금 가운데 청소년복지계정에서 연간 상담교사 인건비 1200만원과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에서는 교사급료로 매월 45만원씩의 보조금과 기자재비 명목으로 평균 연간 1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빈곤계층의 자녀들에게는 교육부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교육시설들은 일반 정규학교에 비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아 등록금 미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측에서는 서울시와 시교육청 지원금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장학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등록금<sup>17)</sup> 미납률이 여전히 높아 학교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사의 인력현황은 <표 4-27>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교사 자격요건은 일반 중·고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일반 정규학교의 교사자격 요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교사들은 일반 정규학교의 교사들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고, 동등한 처우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3) 프로그램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는 진학과 취업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일반 정규학교와 유사하다. 그리고 예산과 시설,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정규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대안으로 찾은 이러한 시설에서 또다시 중도포기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많게는 70%에서 최소 10%정도를 나타내는데, 4년제 대학의 진학률보다는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의 진학률이 높다.

---

17) 일반적으로 3년 6학기제의 경우 중학생의 등록금은 156,300원, 고등학생의 등록금은 276,000원을 납입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등록금은 정규학교 등록금의 약 9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상담실태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에서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상담교사 인건비로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담 전담교사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닌 교과목 교사가 상담교사직을 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상담교사는 주로 진학·진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의 개인적 상담은 주로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상담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기보다는 자기반 학생들을 가장 잘 파악, 관리하고 있는 담임교사 위주의 상담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에서이다. 한편 학생구성의 특성상 상담기능이 특히 중시, 강조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파견된 전문상담교사가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상담하고 추후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화방 운영 등을 통해 상담 통로를 다원화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 (4) 학생구성 및 특성

기존에는 주로 실업계열이었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들이 점차 특성화 고교로 자리 잡아가면서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어 학교마다 학생구성 및 특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로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가출청소년, 한부모가정의 학생들, 근로청소년, 정신지체자와 같은 학생 구성비율이 높다. 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하는 경우가 적어 일반 정규학교의 학생들에 비하여 연령이 최소 1-2살 정도 높게 나타난다.

학생구성의 또 다른 특징은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비율이 약 20-30% 정도로 나타나, 등록 학생 수와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정규학교와 차별화되지 않은 학교운영방침과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정규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비정규학교에서도 또다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다.

## 2)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 (1) 시설과 입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로서 청소년야간학교, 청소년자활학교, 새마을학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재정적 어려움과 학생, 교사수의 감소

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는 34개교이며, 그렇지 않은 비정규학교 9개교를 포함하여 43개교가 있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에 포함된 14개 학교의 시설규모는 <표 4-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평에서 270여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건물은 임대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학교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청소년시설이나 회관을 무상임대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규모가 큰 편이다. 청소년회관은 이용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야간에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 및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 시설이 가지고 있는 교육시설(컴퓨터실, 요리실, 실험실습실, 독서실, 강당) 및 기자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료 부담을 덜고 있다.

<표 4-28>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시설규모와 인력현황

학교명	시설규모(평)		교사수	비고
	대지	건물		
중부직업청소년학교	35	135	12명	무상임대(동사무소 건물 같이 사용) 체육관, 도서실, 실험실습실, 운동장
하일청소년학교	58	30	6명	자가소유
은파청소년야간학교		50		
노들장애인야간학교		30	20명	장애인만 입학가능
은평지역사회학교		25	14명	유상임대(1500/30만원)
마천청소년야학	150	274	12명	구립 마천청소년회관 건물 활용 (컴퓨터실, 요리실, 독서실, 실험실습실 보유)
참빛야학		25	17명	전 동사무소 건물이용
파랑새야간중고	0	30	14명	지하1층, 유상임대(월세)
열린문배움터	90	140	84명	유상임대(7000/240만원)
마포청소년학교		20	7명	마포청소년육성회건물사용
상일봉사학교		51.4	12명	유상임대(800만원)
태청야학		34	28명	유상임대(월세50만원)
유성중,고등청소년학교		120	7명	사글세
면목적십자청소년학교		20	15명	유상임대(월세)

## (2) 예산 및 운영형태

<표 4-29>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예산지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에서 운영비 200만원과 교사야식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 야식비는 학생수가 30인 이상인 학교에만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수와 학교 운영현황에 따라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과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50%씩을 부담하여 약 250-300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기도 한다.

예산의 세입내역을 보면, 대체로 시설자의 자비부담금(교사부담금)과 후원금 및 성금, 국고·지방비, 수익사업비(일일호프나 일일주점 등의 수익사업)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예산의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수업료는 무료이거나 혹은 1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교재비는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표 4-29>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예산내역

학교명	예산(만원)	재정총원방법
중부직업청소년학교	1,200	시설자 : 40%, 후원금·성금 : 20%, 국고·지방비 : 40%
하일청소년학교	600	시설자 : 50%, 국고·지방비 : 50%
은파청소년야간학교	500	
노들장애인야간학교	4,923	후원금 : 70%, 국고·지방비 : 6%, 장애인학습지원을 위한 DB구축 및 이용활성화 사업 : 24%
은평지역사회학교	1,400	자체회비(교사부담) : 40%, 후원금·성금 : 30%, 국고·지방비 : 30%
마천청소년야학	610	재단부담금 : 100%
참빛야학	500	후원금 : 40%, 국고·지방비 : 60%
파랑새야간중고	840	후원금·성금 : 24%, 국고·지방비 : 60%, 기타 : 16%
열린문배움터	3,600	후원금·성금 : 83%, 국고·지방비 : 17%
마포청소년학교	480	후원금·성금 : 37%, 국고·지방비 : 63%
상일봉사학교	4,240	시설자 : 50%, 후원금·성금 : 43%, 국고·지방비 : 7%
태청야학	2,200	교사부담금 : 8%, 후원금·성금 : 80%, 국고·지방비 : 12%
유성중·고등 청소년학교	8,000	국고·지방비 : 4%
면목적십자 청소년학교	400	후원금·성금 : 50%, 국고·지방비 : 50%

교사 수는 <표 4-28>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교사의 자격요건은 각 학교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4년제 정규대학 재학 이상자 중 전공관련자나 교사자격증 소지자들로 자격요건이 제한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서 자체 교사연수를 수료한 야학에 뜻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은 무급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예산에 여유가 있는 학교는 교사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약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일부 학교는 교사자격요건 중에 봉사를 하면서 자체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원자격을 한정하기도 한다.

### (3) 프로그램

<표 4-30>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운영목표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운영목표는 대체로 검정고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컴퓨터 기술교육을 통한 직업훈련기회도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인성교육측면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의식함양, 함께 열어 가는 세상(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주체적인 노동자 삶 만들기, 사회기술향상, 일탈행위감소, 자아인식능력 향상, 지역주민들에게 기초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는 일반적으로 야간학교인 경우가 많아, 오후 7시 이후를 시작으로 3, 4교시로 수업이 구성된다. 검정고시를 위해 교과과정을 1년 혹은 1년 반 이내로 편성하기 때문에 정규학교 학생들에 비해 수업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검정고시 대비 위주의 교과 편제로 인해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의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미약하긴 하나 교양, 인성교육과 관련한 자체적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

### (4) 학생구성 및 특성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학생 수는 <표 4-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각 학교 내에서는 등록 학생 수와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 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다니더라도 비정기적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4-30>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운영목표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학교명	운영목표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부직업청소년학교	검정고시, 컴퓨터 및 전인교육	문예지 발간, 연구수업, 예술제, 부서활동(기획부, 문화부, 교과연구위원회)
하일청소년학교	검정고시, 한문, 컴퓨터	시간부족으로 교과외 프로그램 없음.
은파청소년야간학교	검정고시	교양교육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장애와 인권”강좌, 수화, 한문, 연극반, 월1회 노들강좌
은평지역사회학교	검정고시	니눔터 수업(공동체 놀이, 신문읽기, 팝송배우기 등), 학급회의, 영화반
마천청소년야학	검정고시	컴퓨터 교과운영으로 현실 감각 키움, 등반대회
참빛야학	검정고시	음악, 생활과 법률, 글쓰기, 영화, 연극
파랑새야간중고	검정고시	주말에 소모임 형식의 특별활동, 회의 및 교양시간, 풍물, 산악회
열린문배움터	검정고시	인간관계프로그램(10대:심성훈련/주부:부모역할훈련), 학급회의, 생일자모임, 토론 등 CA:한문, 수화, 합창, 컴퓨터 실습
마포청소년학교	검정고시	학급회의, CA:컴퓨터, 영어회화, 탁구, 문예 등
상일봉사학교	검정고시	기술교육(컴퓨터), 사회봉사(타지역 자매결연)
태청야학	검정고시	교양:성교육, 풍물, 생활법률, 연극 등 작은모임을 통한 과정별 모임이나 총학생회 모임
유성중,고등청소년학교	검정고시	컴퓨터 교육
면목적십자청소년학교	검정고시	교양:인간관계프로그램, 학급회의, 생일자모임, 토론 CA:합창, 수화, 독서 토론 등

학생들의 연령별 구성비율은 10대에서 4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표 4-31> 참조). 조사대상에 포함된 14개 학교 가운데, 하일청소년학교, 참빛야학, 상일봉사학교, 태청야학, 유성중,고등학교의 5개교는 주부성인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대부분의 학교도 주부성인비율이 4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10, 20대 청소년들은 경제적 상태가 빈곤하여 낮에는 일이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학교를 다니는 근로청소년들과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이 대다수이며, 성인에 비해 학업 중도 포기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4-31〉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학생수와 연령별 구성 비율

학교명	학생수			연령별 비율 (10대:20대:30대:40대이상)
	등록 학생수	정기적 등교생	중도 포기생	
중부직업청소년학교	39명		4명	25세이하와 이상이 각각50%
하일청소년학교	50명	20명	30명	0 : 0 : 50 : 50
은파청소년야간학교				
노들장애인야간학교	45명	33명	12명	22 : 34 : 22 : 22
은평지역사회학교	25명	18명	7명	20 : 30 : 30 : 20
마천청소년야학	16명	10명	6명	19 : 44 : 0 : 37
참빛야학	40명	27명	13명	25(10,20대) : 10 : 65
파랑새야간중고	50명	20명	10명	20 : 40 : 20 : 20
열린문배움터	270명	235명	35명	19 : 16 : 21 : 44
마포청소년학교	40명	20명	10명	40 : 30 : 10 : 20
상일봉사학교	100명	92명	8명	2 : 25 : 22 : 51
태청야학	77명	45명	32명	9 : 3 : 3 : 85
유성중·고등청소년학교	162명			10 : 10 : 30 : 50
면목적십자청소년학교	20명	10명	4명	20 : 20 : 40 : 0

### 3) 문제점

#### (1) 비정규학교에 대한 정책 부재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들은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 사설교육시설로 등록된 만큼 법, 제도적으로 정규학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정규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관리를 하고 있으나, 비정규학교의 경우는 감독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 문제는 교육청과는 별개로 서울시와 직접 부딪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 학교에 대한 체계적 정책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학교에 대한 정책 부재는 한 예로 학교건물의 보수나 증축 시 절차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야기한다. 학교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히 시설의 보수나 증축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

다는 이유로 학교건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 및 관계기관과의 갈등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 (2) 특화된 프로그램의 미비

비정규학교의 청소년들은 정규학교에의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다수이나 비정규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정규학교와의 차별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재는 비정규학교 역시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정규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에게 대안적인 역할을 담당해줘야 하는 비정규학교에서도 다시 한번 중도 포기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비정규학교의 시설 운영자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서울시에서 대안학교<sup>18)</sup>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의도하고 있으나, 정규학교와 차별화가 없는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측면들이 많아 점차 학생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 (3) 시설과 교육 기자재의 열악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은 과거 대부분 실업계열의 학교였으나, 실업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수의 감소로 미용전문학교나 자동차전문학교, 예술고등학교로의 특성화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학생모집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운영목표의 변경 취지 가운데는 정규학교 부적응자 혹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적성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있으나, 전문화에 필요한 시설 및 교육기자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성화 추구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 (4) 교사처우 수준이 낮아 전문교사 충원 어려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특성화 추구는 이에 따른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마련 뿐 아니라 전문교사의 충원도 요구한다. 그러나 점차적인 학생수의 감소와 등록금 미납의

---

18) 2000년 9월 현재 전국에 11개 특성화(대안)학교와 22개 특성화(직업)학교가 있으나 서울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는 없다.

누적,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급료로 지원되는 월45만원의 보조금만으로는 교사들의 인건비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사회교육시설에는 자질이 풍부하고 사명감 있는 교사영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크지만,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일반 정규학교의 교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좋은 교사와 강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 (5) 서울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대안학교 운영방안 부재

서울시에는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sup>19)</sup>가 없다. 그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제2의, 제3의 학교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서울시에도 정규학교를 벗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대안학교의 마련이 시급하다. 기존의 교육부에서 추진하였던 지방의 대안학교들은 학교를 벗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과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운영된 경우가 많아 의도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가출이나 불우한 가정환경 혹은 욕구의 다양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청소년들을 기존 환경과 단절시키고, 부담이 되는 등록금을 지불하면서 지방 외지에 있는 기숙학교에 합숙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 5. 청소년보호위원회

### 1) 서울시 현황

서울시의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협의체로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구성·운영 지침을 내린 「지역별청소년대책협의회」<sup>20)</sup>가 있고, 위원회로는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을 통해 마련된 「청소년(보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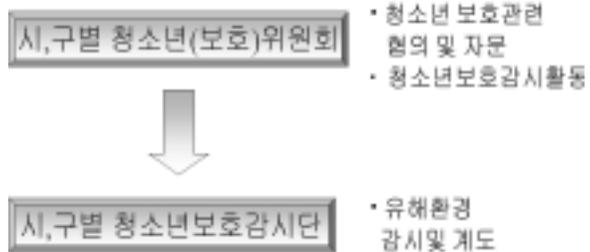
---

19) 대안학교는 학생 개인별로도 교육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일반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수업료를 납부하며, 대부분의 학교가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어 전원 기숙사 입소가 필수적이므로 매월 일정액(월30만원 내외)의 기숙사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가출 등 일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특성화학교에 연계시킨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매월 40~5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면 그나마 대안학교에서의 특성화교육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전경숙,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가 있다.

서울시는 1999년 11월 서울시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sup>21)</sup>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의 감시·공개·신고체제를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과 안전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시·구에 민·관 합동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산하에 역시 민·관 합동의 시·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키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sup>22)</sup>와의 업무 및 기능 중복으로 인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의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을 부가하였다.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자문

(2) 청소년보호·건전육성 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그림 4-3> 청소년(보호)위원회

20)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계획한 「지역별청소년대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유관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산하기구로 총괄조정반, 합동단속반, 교육홍보반 및 행정지원반 등을 설치한다.

(서울시구성현황은 앞의 pp.76-77 참조)

21) 서울시는 '99. 6월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고와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코자 서울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99. 7월부터 청소년보호 일부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서울시는 기존 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하였다.

22)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자문의 역할 담당을 위해 자치구에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다.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 ①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개정 95·12·29]

②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95·12·29]

###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서울시는 25인)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안건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9세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년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다.

## 2) 자치구 현황

25개 자치구에는 청소년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가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관악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이다. 그러나 같은 명칭의 위원회라 할지라도 자치구마다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고,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그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자치구의 청소년위원회 및 협의체의 구성형태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표 4-32〉 참조).

첫째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설치된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보호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강동구의 4개 구가 그러하다.

둘째는 기존의 청소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유관기관, 시민단체, 교직원단체,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시의원 등으로 대폭 보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이다(30명 이내).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청소년보호대책 협의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구는 중구, 중랑구, 은평구, 동작구의 4개 자치구이다.

셋째, 「자치구 청소년대책협의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지침에 의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현재 청소년대책협의회가 구성된 자치구는 14개 구이다.

자치구 청소년대책협의회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는 형식 자체가 다르나 기능과 성격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여러 위원회의 산발적인 구성운영으로 인한 혼동으로 자치구 가운데는 이 두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자치구 담당자들은 청소년대책협의회 역시 청소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구 역시도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치구별로는 중복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의 세 가지 위원회 및 협의체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한 예로 동작구의 경우는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대책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위의 경우와는 달리 현재까지 청소년보호에 대한 자문기구가 전혀 구성, 설치 운영되지 않은 자치구들도 있다. 중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 강동구의 7개 구를 제외한 18개 자치구가 그러하다. 이 가운데 용산구, 도봉구, 마포구는 위의 첫 번째 형태처럼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의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에 보호 업무 기능을 추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성동구와 송파구는 청소년대책협의회를 구성 계획하고 있으며, 영등포구는 청소년대책협의회 기능을 포괄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노원구, 양천구, 금천구는 아직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은 자치구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지도 및 계도기구의 형태이다.



첫째,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sup>23)</sup>에 의해 구와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자치구

— <그림 4-4> 청소년지도 및 계도 기구

23)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95·12·29>

의 청소년복지예산에서 지원된다. 종로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관악구의 경우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지도 및 계도활동을 펴고 있다.

둘째, 서울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에 의거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에 민·관 합동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이다. 이는 시 감시단의 구성·운영방침에 준하여 매일 운영토록 되어 있다. 25개 자치구에서 청소년보호감시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자치구는 은평구와 중랑구의 2개 구이고 종로구는 현재 구성 중에 있다.

세째, 지역별 청소년대책협의회의 4개반 가운데 하나로서 민·관 합동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합동단속반」의 운영이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형태의 위원회나 협의체 하에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는 민·관 합동의 단속 기구들이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의 계도와 점검을 위해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산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3)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 (1) 운영현황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서울YMCA, 서울YWCA,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이다. 이러한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은 대체로 조직구성면에서 유사성을 띤다.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의 인력현황은 <표 4-33>와 같다. 우선 운영조직면에서 단체의장이 책임자로 감시단장 혹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간사가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간사 아래 실무관련담당자 혹은 업무보조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감시단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원은 대부분 주부, 대학생,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다. 활동의 주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며, 현장감시활동이나 모니터 활동, 고발 접수 및 처리 등이 그 활동 내용이다.

<표 4-32> 자치구별 청소년보호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현황

	청소년 위원회 (육성업무만)	청소년(보 호)위원회 (육성+보호)	지역별 청소년대책 협의회	청소년 지도 협의회	비 고
계	13	7	13	5	
종로	·	·	4개반(23명)	○	· 청소년대책협의회 회의개최1회
중구	·	○	3개반(48명)		
용산	○	·	4개반(20명)		· 청소년위원회 조례개정으로 보호업무 추가계획
성동	○	·	·		· 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 계획 있음
광진	·	○	·		· 청소년대책협의회와의 업무중복으로 청소년위원회가 통합운영
동대문	○	·	3개반(8명)		
중랑	·	○	·		·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3개반22명의 보호감시단 구성
성북	·	○	·		· 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 계획 있음
강북	·	○	2개반(14명)	○	
도봉	○	·	1개반(29명)	○	· 청소년대책협의회 회의개최3회 · 조례개정으로 보호업무담당기구 설치계획 · 실질적 활동은 청소년지도협의회
노원	·	·	·		· 민간단체 운영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활동
은평					· 청소년대책협의회 회의개최1회
서대문	·	·	4개반(9명)		· 청소년선도육성회(경찰·민간), 학교폭력감시 단(교사·학부모)이 있으나 활동미비
마포	○	·	·		· 청소년위원회 조례개정으로 보호업무 추가계획
양천	·	·	·	○	
강서	○	·	4개반(21명)		
구로	○	·	4개반(13명)		· 청소년대책협의회 회의개최1회
금천	○	·	·		
영등포	○	·	·		·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대책협의회 기능을 포괄) 구성 계획
동작	○	○	4개반(28명)		
관악	·	·	27개반(337명)	○	· 청소년대책협의회 회의개최4회
서초	○	·	4개반(177명)		
강남	○	·	4개반(15명)		· 청소년대책협의회 회의개최1회
송파	○	·	·		· 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계획
강동	·	○	·		

〈표 4-33〉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인력현황

	서울YWCA	서울YMCA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직원구성	사무총장, 부장2, 간사4, 상근봉사자	단장, 부단장, 부장, 간사1, 실무자3, 업무담당자7	이사장, 기획국장, 팀장
자 원 봉 사 자			
중고생	160명	90명	117명
대학생	20명	21명	8명
교사	20명		6명
직장인	10명	193명	11명
주부	56명		22명
순찰활동반		285명	70명
계	266명	589명	234명

예산은 서울시 지원금과 민간단체의 자체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비, 사무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감시단체 재정지원 현황은 〈표 4-34〉에 보는 바와 같이, 서울YWCA는 서울시 지원 54%, 단체지원 46% 정도이고, 예산내역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각각 48%정도, 사무비가 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YMCA는 서울시 지원 48%, 단체지원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내역은 인건비가 24%, 사업비가 62%, 사무비가 14%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는 서울시 지원이 66%, 단체지원이 34%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내역은 인건비 42%, 사업비 24%, 사무비가 34%로 나타난다.

〈표 4-34〉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예산구성(2000년)

단위: 천원

구분	서울YWCA			서울YMCA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총계	시비	단체	총계	시비	단체	총계	시비	단체
계	55,358	30,000	25,358	62,750	30,000	32,750	30,100	20,000	10,100
인건비	26,808	9,000	17,808	15,300	7,650	7,650	12,600	10,800	1,800
사업(운영)비	26,550	21,000	5,550	38,850	20,750	18,100	7,200	5,100	2,100
사무비	2,000		2,000	8,600	1,600	7,000	10,300	4,400	5,900

## (2) 사업내용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의 주요활동사업 현황을 보면, 크게 감시 및 고발활동, 교육 및 홍보활동 그리고 유익 환경조성 활동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4-35> 참조).

첫째, 감시 및 고발활동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상설고발창구의 운영과 유해환경 모니터활동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전담 상설창구에서 전화 및 PC, 방문접수를 통해 고발 및 문의를 접수하고 있다. 유해환경 모니터활동은 매체별 활동과 시설감시활동이 있다. 매체별 활동은 인쇄매체 및 영상매체에 관한 모니터활동을 포함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연령층을 다양화하여 시각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설모니터는 청소년 출입금지 및 제한구역 내 청소년시설, 그러한 시설에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에 관한 모니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학교주변 문구점 및 가판에서 판매하는 약품 등의 모니터 및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는 교육 및 홍보활동인데, 이는 지역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세미나, 보고회 등의 개최와 캠페인 및 홍보활동,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조사활동으로는 지역 내에 있는 유해환경의 실태조사, 청소년보호법의 준법여부, 유해시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조사와 모니터 활동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를 가지고 사안별로 토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캠페인 및 홍보활동은 지역주민과 청소년 그리고 유해환경의 여지가 있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교육활동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성교육, 매체바로보기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고, 감시단원으로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실무자 교육 등이 있다.

셋째는 유익환경 조성활동으로서 민간감시단이 유해환경의 감시활동을 넘어서서 유해환경을 유익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우수 매체를 추천, 권장하는 활동 등이 있다.

<표 4-35>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의 주요활동내용 비교

		서울YWCA	서울YMCA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감시 및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설고발창구</li> <li>- 모니터링: 인쇄, 영상(게임위주), 유해시설모니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환경고발센터</li> <li>- 모니터링: 인쇄, 영상, 유해시설, 청소년출입 및 고용에 관한 모니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설고발창구</li> <li>- 모니터링: 유해매체물</li> </ul>
교육 및 홍보	조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방 이용실태조사</li> <li>- PC방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식조사</li> <li>- 청소년이용시설 실태조사</li> <li>- 청소년보호법 준법 여부 실태조사(유해매체물을 중심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유해환경전반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li> <li>- 어린이, 청소년 TV, 비디오 시청실태</li> <li>- PC 게임방 관련 조사 및 토론회</li> <li>- 청소년 실태조사 및 모니터 결과등을 참조로 사안별 세미나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리텍, 만화방 실태파악</li> <li>- 청소년 유해환경 대처를 위한 청소년 의식조사</li> </ul>
	홍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야거리 상담 및 캠페인 활동</li> <li>- 안내지 및 포스터, 스티커 제작 배포</li> <li>- 활동내용 비디오물 제작 및 홍보</li> <li>- 각종 보고서 제작</li> </ul>	
	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성교육, 매체바로보기 등</li> <li>- 자원봉사자 교육 (매체 및 유해시설 모니터 활동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청소년, 일반 시민 대상 영상물 모니터 교육</li> <li>- 거리환경모니터요원 교육 및 감시단원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따나 문제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극, 총돌조절훈련, 보호자교육, 사회봉사활동의 의미교육 실시</li> <li>-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서울시 위탁유해환경감시단교육과정에 본회 자원봉사자를 참여</li> </ul>
유익환경 조성활동		우수도서 및 만화 추천	우수 영상물 선정 목록집 제작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환경 청소년 독서왕 선발대회개최(우수한 작품은 선정 시상 후 작품집 제작 무료 배포)</li> </ul>

#### 4) 문제점

##### (1) 청소년 관련 기구의 형식적인 구성 및 운영

청소년보호 일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이관(99.7)으로 청소년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에 대한 구성안이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자치구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상위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자치구에는 활동내용이 비슷한 각기 다른 명칭의 청소년보호 관련 자문기구 및 협의체, 시도 및 단속기구들이 산발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대책협의회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보호감시단, 합동단속반 등은 그 구성과 형식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내용상으로 비슷한 측면이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성·운영 시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는 그 구성여부와는 별도로 청소년 관련 문제에 실질적인 자문기구나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구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나 위원회의 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감시활동과 단속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 (2)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간의 연계활동 미비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서울YMCA, 서울YWCA,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의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간에는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모니터 활동이나 조사활동의 경우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같은 주제와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예산과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의 공유 가능성은 낮아진다.

##### (3) 시민참여의식의 부족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의 활동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지역내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역시민과의 연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로 감시단 활동에 대

한 지속적인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한 시민교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미비하고 공감대 형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이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제보나 고발이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청소년 고용관련 시민 고발율은 영상매체에 대한 고발율에 비해 훨씬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 (4)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기초분석 활동의 위축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목표는 청소년이 건전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각자의 문화를 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해환경 감시 정책에 있어 많은 비중이 유해업소 단속 부분에 치우쳐 있어 매체 모니터 활동 및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기초분석 활동 등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기초자료들의 부족은 청소년들의 욕구와 시대적 조류에 맞게 청소년 유익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키며, 청소년 유해환경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낳는다.

#### (5) 유익환경 조성 활동의 미비

민감감시단은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유해환경을 유익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는 작업 또한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조직의 인원 및 재정상태의 열악으로 이러한 활동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서울YWCA는 ‘우수도서 및 만화추천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YMCA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비디오 선정’ 목록집 제작 및 배포, ‘청소년과 함께 좋은 비디오 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제 5 절 사회참여

### 1. 자원봉사

#### 1) 서울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 (1) 예산 및 운영형태

한국청소년연맹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999년 5월에 개설되었다. 예산은 서울시가 70%, 문광부가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 예산규모는 총 2억1천5백만원이다. 정규인력은 5명(청소년지도사3인, 행정직1인, 서울시위탁업무점 관리자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문광부)를 중앙센터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예산·업무지원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

##### (2) 사업내용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봉사활동사업으로 자원봉사자와 활동처의 연계, 서울 2002 월드컵 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이다.

둘째, 교육활동사업으로 자원봉사자와 지도자 교육, 교육교재 발간,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이다.

셋째, 홍보사업으로 청소년봉사 정보지 발간 및 사례집 발간 등의 사업이다.

넷째, 정보사업으로 인터넷 DB구축과 홈페이지 운영, 봉사활동 정보제공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봉사활동사업 가운데 자원봉사자와 활동처를 연계시키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다른 사업들은 미약한 실정이다.

## 2)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 (1) 예산 및 운영형태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송파구, 서초구)되거나 또는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경우로 나뉜다. 다음 <표 4-36>은 서울시와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운영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와 서초구의 경우는 예산규모가 1억원 이상으로 구 직영의 자치구와 큰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인과 청소년 업무를 분리하여 청소년자원봉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지원이 가능하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자원봉사 실무담당자 전원이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가 따로 배치되어 있다. 반면 구 직영의 자원봉사센터는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실무담당자들이 행정공무원이나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들인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 업무가 성인과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표 4-36> 서울시와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운영형태

	서울시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종로구	노원구
설립년도	1999	1996	1998	1998	1998	1999
운영형태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구청직영	구청직영	구청직영
예산	2억1천5백만	1억8천4백만	1억1천만	3천1백8십만	1000만	1600만
서울시 보조	1억5천2백만	4백40만	.	300만	.	200만
청소년 예산	100%	약 500만	분리 어려움	분리 어려움	약 300만	분리 어려움
인력	사무국장, 청소년지도사 (운영3, 행정1)	사회복지사4, 일반1	소장,과장,사 회복지사2 (상근자3, 비상근자1)	팀장(전문직), 행정직2,사회 복지사1	행정직2	팀장,행정직 2명
청소년 전담인력	전부	1명	1명	.	.	.
홈페이지	지역소식/이 용시설/정보 마당의 내용 이 채워지지 않음	봉사자들을 위한 특전 제공	홈페이지상 에 청소년 자원봉사가 분리	인터넷 접수가 안됨	홈페이지상 에 청소년 자원봉사가 따로 명시	홈페이지 개설 안됨

자료 : 서울시 및 자치구 내부 자료, 2000

## (2) 사업내용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청소년 관련 사업내용은 예산과 인력현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다음의 <표 4-37>은 5개 자치구의 청소년자원봉사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송파구나 서초구와 같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자치구는 청소년 자원봉사 업무가 성인과 분리되어 있어 청소년 특화프로그램이나 행사기획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계시키는 봉사활동사업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마련과 교육사업의 확대(반기별 자원봉사기본교육 외에 청소년자원봉사 교육교재의 발간, 학교전담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간담회나 교육)를 통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지역사회 이해 및 참여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자치구 경우는 청소년 업무가 성인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프로그램의 기획 및 내용이 예산에 맞춰 편성되기 쉽다. 한 예로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원구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운영이 반기별로 실시되는 청소년자원봉사 교육과 여름방학을 이용한 특별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다.

## 3) 문제점

### (1)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연구개발 및 교육, 기획기능의 미비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사업, 교육활동사업, 홍보사업, 정보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내걸고 있으나 사실상 봉사활동사업에의 주력으로 인해 다른 활동사업은 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간 예산과 인력 차이로 청소년자원봉사 업무가 자치구별로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봉사활동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봉사활동사업에의 인력과 예산의 집중은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개발기능 및 기획기능에의 활동을 그만큼 약화시키고 있다.

〈표 4-37〉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관련 사업내용 분석

자치구	사업내용
송파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봉사자 기본소양교육, 학교담당교사 및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li> <li>· 청소년자원봉사 길라잡이 발간, 전단지 및 소식지발간, 기타 언론매체 홍보</li> <li>· 청소년자원봉사 축제, 동아리활동, 청소년 놀이지원 자원봉사단활동, 깨끗한 지역환경 만들기, 자원봉사체험학습, 사회봉사명령학생 사회봉사지도</li> </ul>
서초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기별 학생 및 교사 교육, 청소년교육교재 발간</li> <li>· 「지역탐방」, 「청소년유해환경」,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조사,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별 조사보고서</li> <li>· 자원봉사 관련 전단지 및 포스터 부착, 기타 언론매체에의 홍보</li> <li>· 전지역 주민대상의 자원봉사대축제, 청소년 신문반, 영상반 운영, 청소년 체험학교,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한 성인들의 청소년중간관리 활동과 대학생 봉사단활동</li> </ul>
광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기별 기본교육, 청소년봉사활동 조장교육 및 교사간담회</li> <li>· 전단지와 소식지 발간, 기타 언론매체에의 홍보</li> <li>· 청소년자원봉사시범람회 참가, 청소년자원봉사단 발대, 깨끗한 새광진 가꾸기 프로그램의 참여, 청소년금연학교 프로그램</li> </ul>
종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기별 기본교육 및 교육교재발간</li> <li>· 소식지 발간 및 신문홍보</li> <li>· 나의사랑문화유산가꾸기</li> </ul>
노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기별 기본교육</li> <li>· 여름방학 청소년자원봉사 특별프로그램</li> </ul>

자료 : 자치구 내부자료, 2000

## (2) 서울시·자치구·학교와의 연계 미비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로 분리된 상위 소관부처의 차이로 청소년자원봉사 업무가 제도적으로 협조 공조체제를 이루기 힘들다.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시와 자치구 센터간에 효과적인 업무 분담을 어렵게 한다. 연계체제 미비로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에서 중점사업화하고 있는 봉사활동사업에 중복 투자하고 있어, 중앙기구로써 담당해야 할 기획 및 종합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치구 역시 이로 인해 청소년 업무가 특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처와 공급처간의 연계기능에의 치중

으로 사전교육,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적용, 활동터전의 개발 및 평가 등 자치구가 담당해야만 하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학교와의 연계시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 전담교사의 잦은 교체이다. 일선교사가 보직으로 일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 형성의 번거로움과 더불어 교사의 자질과 마인드에 따라 참여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 (3) 활동터전 및 프로그램 개발, 평가의 부재

현재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대다수 활동대상자 중심이기보다는 봉사 수혜자 그리고 성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보람과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활동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다.<sup>24)</sup> 청소년에게 특화된 활동터전 및 프로그램의 부재는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연구개발 기능의 약화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대개 3인 미만의 행정공무원이 성인과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특화된 활동터전과 프로그램의 부재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일회적 활동이 되어, 자원봉사가 ‘단순하고 재미없으며 형식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 (4) 사전교육과 사후평가의 형식성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성인과는 달리 자원봉사를 통한 교육적 학습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활동 전에 봉사에 대한 개념과 취지, 자세와 역할, 현장에서의 방법 및 주의점 등에 대해 철저한 숙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현실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사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sup>25)</sup> 반기별 2회 교육에 너무 많은 수요가 한꺼번

24) 이는 3장의 청소년자원봉사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경험했던 분야는 ‘사회복지’(43.5%), ‘관공서’(22.2%)로 집중되었던 반면, 학생들의 자원봉사희망분야는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인 ‘도서관, 문화, 체육시설 업무보조’(26.1%), ‘사회복지’(21.9%), ‘농촌봉사’(15.5%), ‘의료시설 봉사’(14.5%) 등으로 분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활동상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으로는 ‘활동이 형식적이다’가 41.7%, ‘분야가 적다’가 27.8%, ‘편한 봉사활동의 추구’가 20.0%로 나타난 데 반해 ‘많은 시간을 요구’해서는 8.1%로 나타나, 시간의 문제가 아닌 활동의 내용과 질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에 몰림으로써 장소의 협소 및 교육의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난다. 게다가 행정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자치구의 경우는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강사의 선정 및 섭외 문제, 자치구의 현황과 실정에 맞는 교육내용의 제공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로 야기된 교육내용의 추상성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자원봉사활동 후의 평가작업 역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제한과 관계기관의 노력 부족으로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40시간이었던 봉사활동 시간이 최근 20시간으로 축소되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활동을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부여시간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활동을 끝마치게 된다. 자원봉사센터의 평가작업의 경시는 청소년들과 활동수요처간의 욕구과약 및 갈등의 원인분석, 개선점 도출의 기회를 축소시켜 활동터전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설과의 단절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2. 정책참여

### 1) 서울시 청소년회의

<표 4-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청소년회의는 2000년 6월에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은 만 15-19세 이하의 정규학교 중·고교생, 비정규학교생, 근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단체 참여학생으로 시교육청과 청소년 관련단체, 교육부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활동내용은 청소년 관련 시책에 대한 의견제안 및 평가작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운영방침이나 활동방향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25) 이미정(1998)의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76%정도가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화영(1998)의 조사에서도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무려 7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 중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청소년은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사전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받더라도 자원봉사 관련 교육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1세기 청소년자원봉사정책과 추진방향」, 1999에서 재인용)

## 2) 자치구 청소년위원회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 강북구, 양천구에 지역의 청소년 정책 및 구정 현안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과정을 통해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자치구 청소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표 4-38>는 서울시와 3개 자치구의 청소년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도에 구성되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 및 활동방향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활동 예산의 경우도 서울시와 양천구는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에서 조치를 취하는 형태를 띤다.

청소년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살펴보면, 송파구는 관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으로 100명을 선정하였으며, 양천구는 초·중·고생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대학생은 자발적 신청에 의해 93명을 선정하였다. 강북구는 관내의 정규학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28명을 선정하였다.

활동영역은 양천구와 강북구의 경우, 그 범위를 청소년 관련 시책에의 참여로 한정시키고 있으나 송파구는 이에 더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참여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자치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송파구는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에 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생활불편사항의 건의 및 평가(청소년 시설물에 대한 평가/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한 평가/구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평가),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결, 행사의 기획 등을 통해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강북구 청소년 구정동아리는 중학생 20명과 고등학생 8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반기별로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청소년 시책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별다른 활동내용은 없다.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활동단위를 문화, 복지, 안전, 교통, 환경의 5가지로 분리하고 분과별 활동을 지향해 나갈 예정이나 분과별 활동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활동범위는 모니터 역할(생활불편사항의 건의)과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원봉사로의 연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38〉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소년위원회 운영현황

	서울시 청소년회의	송파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강북구 청소년 구정동아리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구성년도	2000. 6	1997	2000. 4	2000. 7
위원 수	18명	100명	28명	93명
자격	만 15-19세 이하	초·중·고·대학생	중·고생	초·중·고·대학생
위원 구성	정규학교 중·고생, 비정규학교생, 근로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단체활동 참여학생 등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관내에 거주 하는 초,중,고,대학생 누구나 참가 가능	정규학교 중(20명) · 고생(8명)	정규학교 초(4학년 이상), 중·고(30명), 대학생(63명)
임기	1년 (연임가능)	1년 (연임가능)	1년 (연임가능)	1년 (연임가능)
선정 방법	· 재학생 : 시교육청 추천 · 분야별: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추천 · 대학생: 교육부 추천	공개모집	학교장 추천	· 초,중,고생 : 학교장 추천 · 대학생 : 인터넷과 전화로 자발적 신청
대표자 선정여부	의장1, 부의장2	· 작년까지 분과별 운영(분과장 有) · 올해 통합운영 (의장단 無)	· 활동분야 분리 안됨 · 의장단 無	분과별 운영으로 팀장 有
근거	서울특별시청소년 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조례	청소년구정동아리 구성 및 운영방침 (구청장2000.1.19)	청소년 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침(구청장 지시)
활동 내용	청소년 관련 시책에 의 참여	청소년 관련 시책 에의 참여 및 구정 현안에 대한 건의	청소년 관련 시책 에의 참여	청소년 관련 시 책에의 참여
소요예산	기존예산에서 조치	6백만원	1백만원	기존예산에서 조치

자료 : 서울시 및 자치구 내부자료, 2000

### 3) 문제점

#### (1) 구체화된 운영 및 활동방향의 부재

청소년의 주체적인 사회참여라는 취지와 기대 속에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청소년

년위원회 활동들이 자칫 잘못하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형식적인 활동이 될 우려를 안고 있다.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이 없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제시한 안건이나 건의사항들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화시킬 지에 관한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청소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반기별 1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각기 다른 학교 및 단체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 청소년위원들은 서로 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에 임하게 돼 공동의 협력이 바탕이 된 활동보다는 개별적이고 수동적인 활동양상을 띠기 쉽다. 한 예로 강북구 구정동아리는 의견개진의 통로가 정기회의와 e-mail의 두 가지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e-mail을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반기별 회의만으로는 활동 한정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청소년 시책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 (2)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부재

활동에 앞서 청소년위원들에게 활동목적과 범위, 임무와 역할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이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위촉된 위원들에게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시책에 관한 간단한 설명만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교육의 미비는 구정현안이나 청소년 관련 시책에 대해 청소년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경우 자치구의 소관 업무 외의 사항을 건의한다거나 중앙정책이나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을 건의하는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건의 내용들을 수렴하여 현실화시키기 어렵고, 청소년위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가시화 되지 않으므로써 활동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청소년들의 주체적 참여의지와 활동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 第 V 章

### 서울시 청소년 정책목표와 과제

제 1 절 정책체계와 기본방향

제 2 절 여가·문화

제 3 절 경제

제 4 절 보호·복지

제 5 절 사회참여



# 제 V 장 서울시 청소년 정책목표와 과제

## 제 1 절 정책체계와 기본방향

### 1. 정책체계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서울시 거주 9-2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경제부문의 정책 대상은 15-24세로 한다.

본 연구의 정책기간은 문화관광부의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1998-2002」,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1999년-2003」 등의 국가계획을 고려하여 2001년-2005년의 5년간으로 한다.

정책부문은 1995년 UN에서 채택된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세계 청소년 행동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청소년 정책시행 10가지 우선영역<sup>26)</sup>을 기준으로 삼아, 본 연구에서는 여가·문화, 경제, 보호와 복지, 사회참여 4가지 부문으로 구분 조정하였다. 청소년 정책기본방향 하에 정책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추진과제를 제안한다.

### 2. 기본방향

청소년 관련 환경변화 및 세계의 청소년 정책동향을 고려하고, 국가의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수용하여 서울시 청소년 중장기 정책 기본방향을 다음의 4가지로 설정한다.

- 첫째, 청소년 자율성과 참여 증진
- 둘째, 수요자와 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성장
- 셋째, 네트워킹 중심의 열린 운영체제 지향
- 넷째,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강화

26) 청소년 정책시행의 10가지 우선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② 고용 ③ 기아빈곤 ④ 건강 ⑤ 환경 ⑥ 약물남용 ⑦ 일탈 ⑧ 여가시간 활용 ⑨ 소녀와 젊은 여성 ⑩ 사회생활 및 의사결정에의 완전한 참여

## ■ 청소년 자율성과 참여 증진

청소년이 민주시민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이 자율적,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 수요자와 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성장

청소년 정책이 지금까지 시설이나 양적 성장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방향에 대한 점검과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할 단계에 왔다. 한편 청소년 관련 서비스가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어졌다면 앞으로는 수요자인 청소년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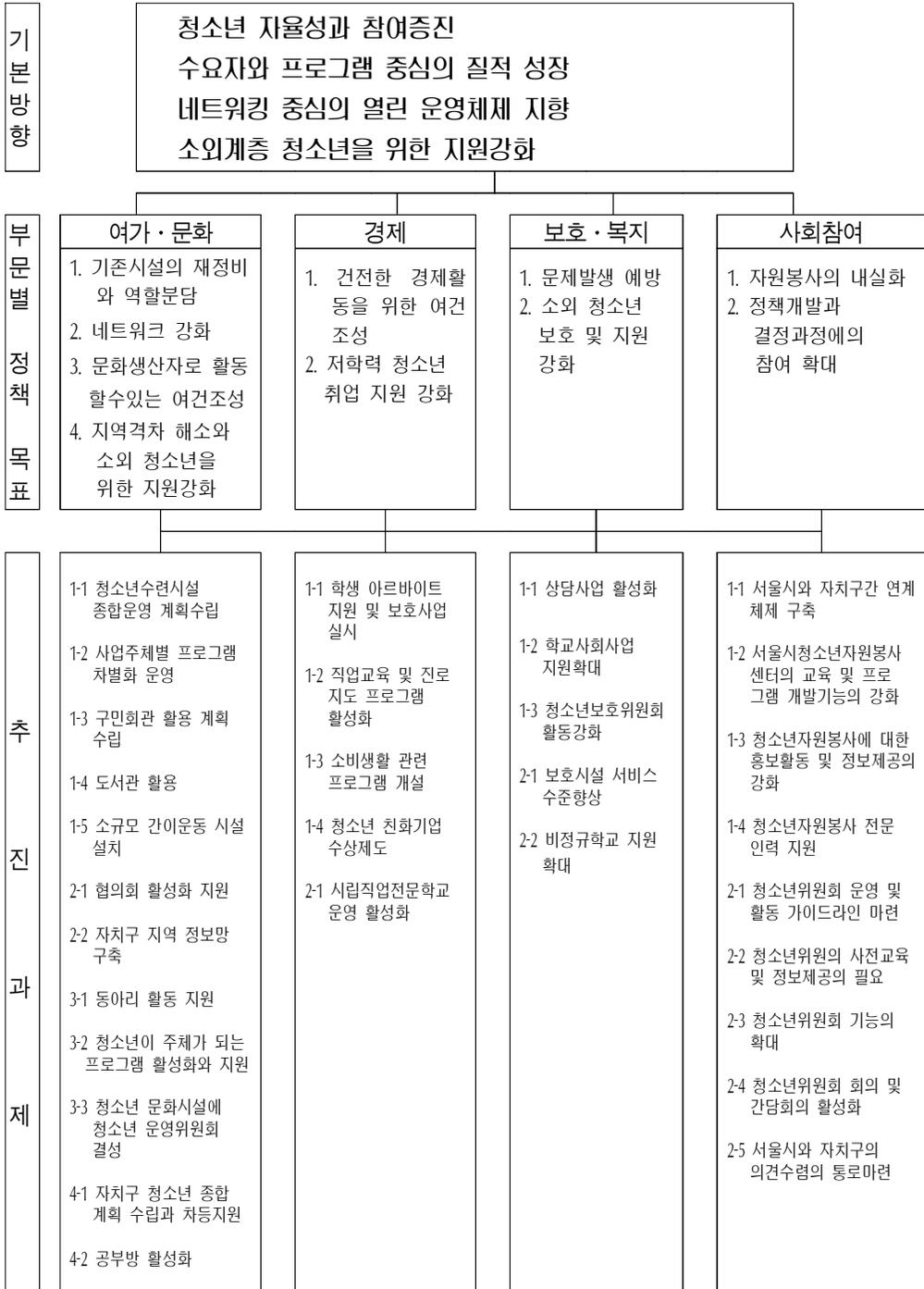
## ■ 네트워킹 중심의 열린 운영체제 지향

청소년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청소년 관련 사업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청소년 정책에 관여하는 행정부서가 종적(중앙, 서울시, 자치구), 횡적(문화관광국, 보건복지국, 산업경제국, 교육청, 여성정책관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부서간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편 청소년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행정, 지역사회, 학교, 민간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상호간 열린 네트워크 운영체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 ■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강화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장애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아직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대상을 일반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되,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우선순위에 놓는다.



〈그림 5-1〉 부문별 목표와 추진과제

## 제 2 절 여가·문화

### 1. 현황과 과제

#### 1) 설문조사에 나타난 현황과 정책 과제

##### ■ 개방형, 자율형 이용시설을 선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대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반면 개방형, 자율형으로 운영되는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소규모 시설이나 공원, 동아리 지원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

##### ■ 지역문화복지시설의 이용 가능성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야간공부방 외에 지역문화복지시설인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 지역문화복지시설을 청소년 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 ■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으로 전환

시설 노후와 이용시간대의 제한, 프로그램 전문성 부족, 시설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질을 고려한 시설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 ■ 옥외에서 함께 하는 프로그램 필요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집이나 PC방과 같은 실내에서 혼자서 하는 활동에 많이 치중해 있어, 정책적으로 집밖이나 옥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청소년 밀집지역에 소규모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능동적, 주체적 문화활동 희망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내용은 TV를 보거나 쇼핑 등의 소비적 여가문화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여가문화시설의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은 27%, 동아리 지원시설은 9.7%로 나타난 데 반해, 콜라텍은 4.5%에 불과하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가문화활동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영화와 컴퓨터에 관한 관심 고조

청소년이 두드러지게 관심과 참여의사를 보이는 분야는 영화와 컴퓨터 관련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이다. 문화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문화산업 생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2) 서울시 여가문화시설 및 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1) 청소년 수련시설

#### ■ 사회 및 지역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책 미비

청소년 욕구와 지역환경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수련시설별 종합운영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개별적으로 건립하는 계획은 있으나, 서울시 차원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장기 종합운영계획이 없다.

#### ■ 수익사업 치중으로 목적사업 약화

최근 특화된 일부 수련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치중하면서, 청소년 대상의 목적사업이 미약하고, 따라서 청소년시설로서의 정체성이 약하다.

#### ■ 지역 네트워크 미약

시립 수련시설과 자치구, 구립 수련시설, 학교, 여타 청소년시설과의 지역네트워크

가 미약하여 시립 수련시설이 지역의 청소년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 (2) 공부방

### ■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를 위한 1차지역거점시설로 활용 가능

저소득층 지역에 대부분 입지하고 있는 공부방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여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많아 접근성이 좋고 이용률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 배려를 더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를 위한 1차지역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구립 공부방의 경우 일부 공부방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독서실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공부방의 경우 가정여건상 방입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지역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나, 서울시나 자치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3) 사업 프로그램

### ■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사업 미비

수요자인 청소년보다는 공급자인 행정이나 민간단체 위주로 사업이 선정되고,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은 편이다.

### ■ 프로그램 중복성과 단순

서울시와 자치구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이 단순하다.

### ■ 사업평가체계 미비

프로그램 수준을 매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평가체계와 D/B 구축이 미비하다.

### ■ 자치구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 배분

자치구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배분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 ■ 담당공무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의 문제

청소년 업무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매년 비슷한 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 2. 정책목표

청소년 여가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청소년 여가문화시설과 사업 현황분석을 토대로 여가문화 부문의 주요한 정책과제는 다음 4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최근까지 서울시나 자치구가 청소년시설 및 지역문화복지시설 건설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2000년 현재 청소년 여가·문화를 위한 시설기반은 양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역여건이나 이용자, 운영에 대한 계획 없이 부서별로 시설확충에만 역점을 둔 결과, 기존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예산투입이 막대한 새로운 청소년 여가문화시설을 건설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고, 시설간 역할분담과 네트워크를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여가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수요자인 청소년을 고려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가문화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문화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중구의 경우 자치구 예산으로 대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여타 지역문화시설을 건설하고 있거나, 자체 사업을 하고 있어, 자치구별 청소년 여가문화시설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이를 고려한 정책지원을 하지 않으면 향후 자치구별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섯째,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공공 여가문화시설에도 접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들이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여가문화 부문의 정책목표는 청소년 자율성과 참여 증진, 수요자와 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성장, 네트워크 중심의 열린 운영체제,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강화라는 청소년 정책의 4가지 기본방향과 위에서 제안된 여가문화 정책과제를 토대로 하여 다

음 4가지로 설정한다.

1. 기존시설의 재정비와 역할분담
2. 네트워크 강화
3. 문화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격차 해소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강화

### 3. 정책목표별 추진사업

#### 1) 기존시설의 재정비와 역할분담

##### (1) 수영장을 포함한 대규모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 수정 검토

청소년은 수련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 대한 선호가 낮고 대신, 개방형, 자율형 시설인 소규모의 문화의집, 공원, 동아리 지원시설, 체육시설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수련시설은 현재 자체 수익사업으로 청소년 목적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같은 운영방식 때문에 목적사업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요자인 청소년의 선호도가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인해 목적사업이 소홀해지는 폐단이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대규모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을 검토한다.

#####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대규모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와 함께 청소년 수요 및 사회 환경변화를 고려한 자치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3)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역 청소년센터로 위상 정립

① 시립 수련시설이 자치구 또는 권역별로 지역 청소년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

정립을 한다. 이를 위해 시립 수련시설의 연구기획, 지도자 교육연수,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② 비슷한 프로그램의 중복 제공을 방지하고 프로그램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입지여건, 위탁기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별로 특화된 목적사업을 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장애청소년대상 여가문화활동이나, 영화제작과 같이 대상자나 활동내용에 따라 전문지도자나 전문장비, 시설을 필요로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화활동은 시설별로 특화하도록 한다.
- ③ 중구에 있는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은 교통여건은 양호하나 주변환경과 건물의 어메니티가 낮으며, 인근에 학교도 없고 주거지역도 아니면서, 건축자재상이 밀집한 지역이므로 청소년이 모이는 상업지역도 아니다. 게다가 2000년 현재 자치구에서 대규모의 중구 청소년수련시설을 건설하고 있어,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학생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청소년 경제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현재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중구 수련시설은 도심에 입지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서울 전역에서 접근하기 좋으므로, 중구 수련시설을 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시설로 특화한다.
- ④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 숙박시설과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므로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한 쉼터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을 특화한다.

#### **(4) 사업주체별 프로그램 차별화 운영**

- ① 서울시 체육청소년과는 문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집행은 자치구나 민간단체,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한다. 그리고 각 시설별, 단체별,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D/B를 구축하여 정보를 유통시키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체계를 개발하는 기획조정 및 평가 역할에 중점을 둔다.
- ② 자치구는 지역내 청소년시설, 사업, 단체, 학교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고, 유통시킨다.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청소년 음악단, 합창단, 무용단, 연극단 등을 결성하여 지원하고, 국제교류사업, 자치구 동아리 한마당 등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한다.
- ③ 청소년수련시설은 중고생이나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하

고, 동아리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④ 민간 공부방에서 저소득층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위한 여가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5) 구민회관 활용 계획 수립**

- ① 구민회관의 명칭을 변경하여(가칭: 예술문화센터), 청소년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구민회관은 공연장이나 전시실을 구비하고 있어 시설여건이 좋은 만큼,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연극이나 영화 등의 장르별 운영 특화로 시설 이미지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 자치구의 구민회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구민회관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가 필요한 예산지원을 한다.
- ② 구민회관을 이용하여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기자재 제공 등의 지원을 해준다.
- ③ 청소년 영화관 및 영화 관련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으므로 구민회관을 주말에는 청소년 영화관으로 활용하는 자치구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비 지원을 한다.
- ④ 민간예술인이나 단체에게 구민회관의 활동공간을 제공해주고, 지역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도록 지원한다.

### **(6) 도서관 활용**

-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많으므로 도서관에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다.
- ② 도서관의 경우 시설이 노후하여 불편하다는 학생이 가장 많은 만큼, 노후화된 도서관의 시설 개보수를 한다.

### **(7) 소규모 간이운동시설 설치**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역, 공원, 유흥지역 등에 길거리 농구대나 소규모 간

이 운동장을 설치한다.

## 2) 네트워크 강화

### (1)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 ① 청소년수련시설 협의회 활성화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상 이들의 역할이 미비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과장이나 팀장이 일반 행정직으로 순환되고 있어 청소년 정책의 현장성과 대응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청소년센터로 기능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청소년의 실태와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청소년수련시설 협의회와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수렴한다.

#### ② 공부방 협의회 구성 지원

자치구나 지역별로 공부방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여, 협의회 구성을 유도한다.

#### ③ 지역 연합 협의회 구성 지원

자치구나 지역별로 시립과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지역문화단체, 종합사회복지관, 공부방이 협의회를 결성하여, 연합사업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 협의회 구성을 유도한다.

### (2) 지역 정보망 구축

자치구는 지역의 청소년 현황, 시설, 단체, 사업, 학교 등을 포함한 청소년 정보를 구축하여, 지역 청소년 및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간의 중개역할을 한다.

### 3) 문화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

#### (1) 동아리 활동 지원

- ① 시립, 구립 청소년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포함한 지역 문화복지시설에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나 기자재를 제공하거나 지도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 행정, 시립,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중 한 곳에 동아리 활동 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 동아리와 각 시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 ② 자치구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동아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원

- ① 청소년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지원을 해준다.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에도 청소년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수련시설, 문화의 집, 구립 공부방 등의 청소년시설에 지역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결성하도록 지원한다.

### 4) 지역격차 해소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강화

#### (1) 자치구별 차등 지원

- ① 자치구에 지정된 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예산배분을 하는 대신, 자치구 단위의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계획에 기초한 자치구 특성별로 예산지원을 차별화한다.
- ② 재정자립도가 80%이하이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자치구에서 공부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집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 ③ 문화의집을 청소년수련시설내에 설치하지 말고, 시립이나 구립 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한다.

## **(2) 공부방 활성화**

### **① 청소년을 위한 1차지역거점시설로 활용**

독서실 기능에 치중된 공부방을 저소득층 청소년사업을 위한 1차지역거점시설로 활용한다.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종합서비스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시설이나 단체에 청소년을 연계해주는 1차지역거점으로 활성화한다.

### **② 시설 재정비와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

공부방 이용자의 32%가 공부방 시설이 노후하여 불편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공부방에 방음장치를 하고 건물 내외부의 도색을 산뜻하게 재정비한다. 연면적이 넓은 공부방의 경우 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독서실 기능을 축소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개념을 도입한 소규모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 **③ PC방 설치와 홈페이지 제작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의 정보교육을 위해 공부방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PC방을 설치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공부방에 PC방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공부방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운영자나 이용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해준다. 공부방 정보화 사업은 서울시 하자직업체험센터의 사업 프로젝트로 할 수 있다.

### **④ 소규모 도서관으로 활용**

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서대출사업을 하고 있는 일부 공부방을 소규모 도서관으로 활용한다. 공부방 소규모 도서관 활용사업은 서울시 문화과의 소규모 도서관 설치계획에 포함한다.

### ⑤ 민간 공부방 운영비 지원

공부방 지원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 공부방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 ⑥ 공부방의 문화프로그램 사업 지원

공부방에서 청소년 문화사업을 할 경우, 예산지원을 한다.

### ⑦ 이용료 폐지

공부방 이용자의 8.3%가 이용료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 문화의집이나 공공도서관이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는 만큼, 공부방도 이용료 징수를 폐지한다.

### ⑧ 공부방 운영자 교육 지원

공부방이 청소년 1차지역거점시설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부방 운영자 재교육이 필요하므로, 공부방 운영자에 대한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지원한다.

## 제 3 절 경제

### 1. 현황과 과제

#### 1) 설문조사에 나타난 현황과 정책과제

##### ■ 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 대책 필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과 희망률이 높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폭력, 폭언 등의 부당대우를 겪는 경우도 많다. 생활비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학생도 4%나 되고 있으며, 돈을 많이 주면 무슨 일이나 하겠다는 학생도 14%나 된다.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원 및 보호대책, 건전한 아르바이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 소비생활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용돈 지출 내역을 보면, 청소년 생활에서 소비가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 ■ 직업, 진로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학생들이 직업체험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청소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서울시 청소년 경제활동 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 학생 아르바이트 대책의 전무

학생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고, 희망자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보호정책이 없다.

### ■ 직업체험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미비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비해 직업체험이나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

### ■ 청소년 실업을 위한 종합센터 기능 미비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고졸 및 고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나, 이들의 취업을 위한 종합센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 2. 정책목표

청소년 경제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서울시의 청소년 경제활동 관련 사업 현황분석을 토대로 경제부문의 주요한 정책과제를 다음 2가지로 설정한다.

첫째, 학생들의 생활에 일과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실업, 특히 고졸이나 고졸 이하의 청소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경제부문의 정책목표는 다음 2가지로 설정한다.

1.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2. 저학력 청소년 취업지원 강화

### 3. 정책목표별 추진사업

#### 1)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 (1) 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및 보호사업 실시

- ① 중구 청소년수련시설에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지원, 보호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한다.
- ② 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청소년 수첩에 중요한 지침을 수록하여 배포한다.

##### (2) 직업체험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 ① 시립,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시립직업전문학교에 직업체험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 ② 실업고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 (3) 소비생활 관련 프로그램 개설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 (4) 청소년 친화기업 수상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직업체험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직업체험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수상제도를 마련하고 홍보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 2) 저학력 청소년 취업지원 강화

#### (1)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활성화

##### ① 원스톱 서비스 강화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저학력 청소년을 위한 상담, 훈련, 취업, 사후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강화한다.

##### ② 저학력, 심터 청소년을 위한 특별 훈련프로그램 개설

시립직업전문학교는 저학력이나 심터 청소년을 위한 특별 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학교평가시 특별 훈련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가중치를 높게 준다.

##### ③ 창업지원센터 개설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한다.

## 제 4 절 보호·복지

### 1. 현황과 과제

#### 1) 설문조사에 나타난 현황과 정책과제

## (1) 가출

### ■ 청소년 가출충동 및 가출경험의 심각성

본 조사에서 가출충동에 대해 ‘그런 적이 있었다’는 응답이 62.0%로 다수의 응답자가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가출경험에서 ‘있다’의 비율이 13.3%로 성별로는 남학생이, 학교별로는 실업고생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사과정상 만성·반복가출로 인해 학교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 청소년 가출문제가 소수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책을 통해 예방·치료해야 할 심각한 수준의 사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 가출청소년 문제는 가정문제로 접근

가출경험자의 가출동기는 가정불화(42.3%)와 가정폭력(6.1%)이 절반 정도로 가정문제로 인해 가출하였다. 구조적·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선택하기 쉽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청소년과 부모간 신뢰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러한 가정을 구조적·기능적으로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 가출 후의 사회적 보호시설 필요

가출 후 지낸 곳으로 친구 및 선후배의 집이 6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원·거리가 13.6%, 숙박업소가 11.7%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가출 후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아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비율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이용방법을 잘 몰랐다’가 26.2%, ‘잘 알고 있다’가 5.6%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가출 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보호시설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존의 보호시설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집단따돌림과 폭력경험

### ■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수준의 집단따돌림과 폭력 문제

조사대상자 38.3%가 집단따돌림을, 49.6%가 폭력을 걱정하고 있었고, 실제 9.4%가 집단따돌림을, 40.4%가 왕따 협력을, 36.3%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가해자는 다른 학교학생이 26.1%, 같은 학교학생이 17.9%였다. 피해장소는 집근처, 공원·놀이터, 오락실·만화가게, 학교주변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따돌림이나 폭력 문제가 청소년들의 주된 생활환경인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같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만큼 생활지도 및 상담, 가해자 및 피해자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타시설 연계 등 상담사업이나 학교사회사업과 같은 사회적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 폭력에 대한 무감각·무기력성의 문제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88.4%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대수롭지 않아서’와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78.5%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폭력의 심각성을 떠나 폭력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로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이 폭력을 당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큰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폭력의 비인간성과 폭력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지도해 주고, 상담이나 학교사회사업 등 지원체계를 통한 신고 및 원조가 가능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 (3) 상담

### ■ 청소년 문제별로 전문상담서비스 필요

최근의 고민·걱정거리로 학업·성적(37.8%), 진학·진로(31.6%), 이성문제(6.6%), 외모·체격(6.6%)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고생은 중학생이나 인문고생에 비해 학업·성적(13.8%)보다는 진학·진로(35.2%)를 고민하는 비율이 2.6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상담 뿐 아니라 청소년의 상황에 따른 전문상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고민 대화상대는 ‘친구, 선후배’가 51.9%, ‘대화할 상대가 없다’가 20.2%, ‘부모님’이 16.4%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친구, 선후배 등의 또래에게 고민을 하소연하거나 비밀을 털어놓는 수준에서 문제해결을 하고 있거나, 대화할 상대조차 없어 정서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상담(실)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제고

상담실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올해 들어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1%에 불과하였다. 상담실 이용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찾아가기가 어렵다’가 27%, ‘시설이 멀다’가 17.9%, ‘프로그램 전문성 부족’이 11.5%, ‘시설에 대한 홍보나 정보가 부족하다’가 10.3% 순으로 지적되었다.

‘전문상담을 받을 일이나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7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으며, ‘몰라서 못받았다’는 응답자가 24.7%에 이르고 있었다. 저조한 상담실 이용, 전문상담에의 낮은 욕구 등은 상담실의 접근성 문제와 상담효과에 대한 불신 및 부정확한 인식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사이버상담 개발의 필요성

상담희망 방식을 알아 본 결과, 컴퓨터상담이 3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화상담, 직접상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에 익숙해 있는 세대적 특성 뿐 아니라 사이버상담이 갖는 편리성과 익명성 때문으로 분석되며,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담방식을 청소년들 욕구에 맞추어 개발·채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2) 서울시 보호·복지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1) 보호시설

#### ■ 보호시설간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센터의 부재

보호시설간 네트워크 뿐 아니라 타전문시설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서 상호

정보가 부족하고, 보호청소년이 제시설을 전전해도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출청소년 문제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 의뢰를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 연계망 미비와 관련하여 현재 이러한 연계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중앙기구가 없는 것 또한 문제이다.

### ■ 민간 보호시설 활용 부진

민간시설이 제도권내로 유입되지 못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인가 기준, 인가 후 지나친 규제와 간섭, 불필요한 행정처리업무를 수행할 인력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민간시설들이 청소년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범위 내에서 민간시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의료 서비스 제공의 미비

대부분의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시차원의 정책적 의료보호 혜택 없이, 입소 시설과 연계된 몇몇 병의원에서 제한된 범위의 무료 치료서비스를 받거나, 입소시설의 전액 지원을 받지만 재정사정으로 단기적인 치료만 받고 있다.

### ■ 직업훈련 및 구직지원 서비스 미비

보호시설 퇴소후 직업을 통해 자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보호청소년을 위한 궁극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립직업전문학교나 보호시설 내의 직업훈련서비스나 구직지원체계가 매우 제한적이며 요보호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서비스나 사후관리체계가 미비하다.

### ■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실무자가 1-2명 밖에 없는 민간시설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행정절차나 규제, 보고서 제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2001년 그룹홈 2개소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매달 1회 회계감사와 보고서 작성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어서

민간시설에서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 (2) 상담

### ■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사업비 및 인력의 부족

서울시청소년상담실 예산의 15%만이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상담 및 연계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고,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다. 그리고, 시·구립청소년시설 상담실은 인력이 부족하여 아웃리치 프로그램, 가족상담,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 ■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의 운영 지침 부재

상담실 운영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없어 상담실에 따라 규모나 인력이 격차가 나며, 위탁기관장의 상담에 대한 이해나 인정 등에 따라 상담사업의 전체방향이나 세부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있다.

### ■ 상담실 연계망 미비

시·구립 청소년상담실간의 서비스 통합이나 조정·의뢰가 가능한 연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가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서울시청소년상담실험의회를 통해 연계망을 구축하고자 하나, 현재는 12개소 시립상담실과만 연계가 되어 있을 뿐 구립시설과는 전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 ■ 사이버상담을 위한 준비 미흡

현재 많은 상담실에서는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구축·운영 경비, 통신망 구축에 따른 비용, 상담용 고급 컴퓨터 구입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적절한 장비 없이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집이나 PC방에서 사이버상담을 하는데 이는 공간적 부적절성이나 기술적 미충족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이버상담에 대한 정보나 홍보 부족으로 상담실 웹주소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 ■ 홍보 미비로 인한 상담 이용률 저하

청소년상담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는 상담받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담실 존재 및 위치에 대한 인지 부족, 상담실에서의 심리적 접근의 어려움, 상담효과성과 상담자 능력에 대한 불신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이는 상담 및 그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가진 청소년 및 가족에게만 서비스가 국한되고, 실제 상담이 필요한 많은 청소년 및 가족이 상담서비스에서 누락되고 있다.

### (3) 학교사회사업

#### ■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현재 학교사회사업은 일반인, 교육계, 행정관료에게 생소하고 전문직간 배타적 입장이 많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뤄지지 않아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 ■ 학교사회사업의 한시적 운영

서울시교육청 학교사회사업 시범사업은 재정지원이 불안정하고 한시적으로 매우 제한된 학교에서만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학교사회사업 역시 민간복지재단에 의한 한시적인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 (4) 비정규학교

#### ■ 비정규학교 및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의 부재

서울시에는 현재 정규학교의 제도화된 교육과정을 벗어나고 있는 청소년<sup>27)</sup>을 위한

---

27) '99년도 중도탈락학생은 전국적으로 47,50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24%(11,439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복학학생은 1,602명이며, 재탈락학생은 499명이다. 이에 반해 적응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육부 인가의 대안학교는 없으며, 비정규학교가 대안학교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학교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 ■ 특화된 프로그램의 미비

비정규학교의 청소년들 가운데는 정규학교에의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다수이나 비정규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정규학교와의 차별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정규학교와 똑같은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학교는 학교를 벗어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sup>28)</sup>

### ■ 학교별 차별화 지원 전략 부재

기준에 실업계열이었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들의 특성화 추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성화에 따른 시설 및 교육기자재, 그리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자원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 (5) 청소년보호위원회

### ■ 청소년 관련 위원회의 개념 규정에 대한 정립 미비

청소년보호 업무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99.7) 자치구에 청소년보호 관련 기구가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위원회나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협의체와 위원회의 기능을 혼동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활동이 미약한 형식적인 구성에 그치고 있다.

### ■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간의 연계체제 미비

현재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간의 연계

---

있다.

28) 송복 외에 의한 중퇴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중퇴사유의 가장 큰 이유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상실이 48.5%로 나타났으며, 가정불화나 학업성적은 각각 14.4%, 10.3%로 나타났다.(송복 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미비로 단체간에 모니터 활동 및 조사활동이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홍보전략 부재

감시단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부족과 공감대 형성의 결여가 각 감시단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시민참여 증대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 대상에 맞게 홍보되어야 하나 현재는 지역사회 중심이 아닌 민간단체 중심의 홍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 민·관의 감시단 활동 역할 분담의 미비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활동간의 역할구분이 모호해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 2. 정책목표

전국 청소년 1,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1998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로 폭력(27.7%), 따돌림(15.3%), 음주·흡연(13.9%), 불건전한 여가활동(11.9%), 약물남용(8.8%), 성행동(8.6%), 가출(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전체 가치관의 혼돈 및 바른 가치관 부재’와 ‘고민해결 및 스트레스 해소 여건 부족’이 54.4%를 차지하였다.<sup>29)</sup> 현대사회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긴 복합적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적으로는 인생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달장애나 일탈행동으로,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이에, 청소년 문제는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문제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적 노력과 이미 발생된 문제에 대한 사후치료적 노력을 통한 전

---

29) 청소년대화의광장, 「IMF위기속에서 한국인상 재정립을 위한 청소년 도덕성교육」, 1998  
- 우리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폭력 27.7%, 따돌림 15.3%, 음주 및 흡연 13.9%, 불건전한 여가활동 11.9%, 약물남용 8.8%, 성행동 8.6%, 기타 8.4%, 가출 5.4%로 나타났다.  
- 사회전체 가치관의 혼돈 및 바른 가치관 부재 30.3%, 고민해결 및 스트레스 해소 여건 부족 24.1%, 학업스트레스 증가 12.6%, 청소년 자신의 자기통제능력부족 10.9%, 가정과 학교에서 바른 가르침의 부족 9.9%, 유해환경의 증가 6.8%, 본받을만한 어른의 부족 5.3%로 나타났다.

체적인 청소년 보호복지가 요구되어진다.

문제예방적 접근은 요보호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접근으로, 즉 청소년기에 발생한 문제가 성인기 문제에 비해 인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와 불행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문제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저소득층, 장애청소년, 가출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후치료적 보호복지서비스도 아직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대상을 일반청소년까지 확대하되, 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미 발생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와 정책적 복지대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설문조사와 청소년보호시설, 상담, 학교사회사업, 보호위원회 그리고 비정규학교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하여 보호복지부문 정책과제는 다음 2가지로 설정하고, 둘 다 동시에 추진토록 노력해야 한다.

1. 문제 발생 예방
2. 소외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 3. 정책목표별 추진사업

#### 1) 문제 발생 예방

##### (1) 상담사업의 활성화

###### ①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과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실간의 역할 분담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은 서울 청소년상담정책의 중앙센터로서 정책개발, 연계사업, 교육, 훈련 사업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실은 직접적인 상담서비스 사업에 역점을 둔다.

## ②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사업비 지원 확대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이 기관연계, 공동사업 추진, 적절한 의뢰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늘린다.

## ③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을 지역청소년 종합상담실로 육성

현재의 미연계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을 강화하여 활용하거나, 2000년-2003년 설치예정인 시립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25개 자치구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연계 상담실에 최소한의 전문상담가와 기본적인 상담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후 설치예정인 상담실이 기존 시립상담실과 같이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④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실 기준 마련

청소년수련시설 및 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의 규모, 인력, 사업 내용, 의무조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련시설 상담실을 강화하고, 수련시설 상담실이 지역종합상담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⑤ 우수 청소년상담기관 선발 및 포상

서울시 차원에서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 뿐 아니라 민간 및 종교·사회단체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객관적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 청소년상담기관을 선발·지정하여 재정지원을 차별화한다.

## ⑥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교육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원 전문화를 위해 서울청소년종합상담실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서울청소년종합상담실은 문화관광부의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한다.

### ⑦ 상담 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

시·구립 청소년시설 상담실에서 지역사회주민 가운데 청소년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자를 선발·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등에서 실시하는 또래상담자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심리적·물리적 접근이 편한 또래를 통한 상담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⑧ 사이버상담의 활성화

이성교제, 성폭력, 임신 등 성과 관련된 문제를 사이버상담의 주된 영역으로 특화한다. 사이버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는 통신회사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종합상담실, 각급학교,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전용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와의 협의하에 사이버상담 특별할인요금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차원에서 상담사이트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각급학교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배부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복지관, 학원 등 청소년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의 컴퓨터에 상담사이트를 저장해 두어 접근 용이성을 높여 준다.

### ⑨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활성화

청소년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리이동상담을 위한 인력과 상담실 거리부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한다.

### ⑩ 홍보를 통한 상담 접근성 향상

도심전광판이나 지하철 게시판, 공공게시판, 학교, 관내지, 방송 등에 시립상담실 홍보를 상시화하고, 상담 효과성을 홍보하여 상담실에 대한 편견을 줄인다.

## **(2) 학교사회사업 지원확대**

### **① 예산 지원을 통한 학교사회사업 확대 실시**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시범학교 사업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학교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시범학교 수를 늘린다.

### **② 학교사회사업 정체성 확립과 홍보**

학교사회사업의 정체성 확립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 **③ 교육전문가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서울시와 교육청은 교육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12개소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종합사회복지관의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원조가 필요한 학교를 사회복지관에 소개하는 등의 연계활동을 한다. 12개소 교육청 관할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교사회사업을 하면 학교를 연계해 준다.

### **④ 지역사회복지관의 학교사회사업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학교사회사업은 지역사회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초-중-고교를 통한 종단적 접근으로 예방프로그램이 가능한 등의 장점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교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복지관 평가시 지역사회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사회사업을 운영하는 복지관에는 가산점수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 강화**

### **① 청소년 관련 기구의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자치구 청소년보호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 개념정립, 역할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공한다.

## ②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간의 연계체제 구축

각 단체간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중점 사업과 역할에 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 및 회의를 개최한다. 같은 주제를 중복적으로 다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작에 앞서 단체간 사안의 역할분담을 협의하고, 사업 시행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사안들은 분기별 회의를 통해 공동사업화하여 진행한다.

## ③ 자치구 단위로 청소년 유해환경의 홍보 및 계도 활동의 정착

자치구별로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 위원회와 협의체의 자문기구들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홍보전략을 세우고 자치구내 민간 감시단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공무원이 합동으로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 또한 이를 반사회나 부녀회, 학교와 학부모 감시단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 모두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감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주민 참여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④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활동과 서울시, 자치구 차원의 감시단 활동간에는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보호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질적인 단속과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활동의 많은 비중이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 감시에 두어졌으나 앞으로는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욕구수요 및 기초분석활동, 모니터링 업무 등의 조사사업 확대를 통해 유해환경 근절뿐만 아니라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에 힘써야 한다. 교육 및 홍보활동사업에서는 일반 시민대상의 교육 및 홍보는 자치구에 이양하고 민간감시단은 자치구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민간감시단원의 교육 및 연수활동에 집중하여 자치구별로 홍보 및 캠페인,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감시단은 유해환경 접촉금지에 따른 대안마련의 기회와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캠페인 활동을 더욱 중점화한다.

## 2) 소외 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 (1) 보호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 ① 가출청소년통합서비스센터 운영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가출청소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늘푸른정보센터’와 ‘시립아동상담소’를 ‘가출청소년통합서비스센터’로 통합, 단일화하여 서울시 청소년보호시설의 네트워크를 형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출청소년통합서비스센터의 주요 업무는 첫째 보호시설간 네트워크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업무, 둘째 조사·연구·평가·교육 업무, 셋째 홍보 업무, 넷째 전자정보망 운영 업무, 다섯째 서울시와 개별보호시설간 의사소통 통로 업무 등이다.

#### ② 보호시설의 표준화된 복지서비스 지침 수립과 지원

서울시 차원에서 쉼터·그룹홈 등 보호시설의 표준화된 서비스 지침을 수립하고, 보호시설의 역할을 확립시킨다. 서비스 지침에 따른 지원을 하여 보호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 ③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

서울시는 미인가 민간시설의 시설 적합성, 직원 전문성, 서비스 유용성, 재정 투명성 등을 정확하게 심사·평가한 뒤 활용가능한 민간시설이 신고를 통하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④ 보수교육 및 자격연수 기회 보장

실무자가 보수교육 및 자격연수 등의 기회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년 1-2회 정도의 연수비용을 지원해 주고, 교육 시간에 업무를 대신할 공공근로인력 등 대체 인력을 제공해 준다.

#### ⑤ 정기적인 가출청소년 실태 조사 실시

가출청소년통합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가출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 설립과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 ⑥ 남자청소년 대상 보호시설 증대

남자청소년 보호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므로 시차원에서 증설하거나, 민간에서 사업을 할 경우 재정지원을 해 준다.

#### ⑦ 보호시설별 요구 인력의 지원

보호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를 조사하여, 시설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해 준다.

#### ⑧ 시립병원 및 보건소 연계로 의료서비스 지원

서울시, 자치구, 민간의 보호시설 청소년이 시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 ⑨ 자립기반 지원체계 구축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보호시설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알선 등의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⑩ 네트워킹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서울시는 ‘한국청소년쉼터연합회’, ‘전국 아동·청소년그룹홈연합회’가 연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 ⑪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보호시설, 상담기관, 복지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실은 ‘청소년복지수첩’을 제작하여 청소년에게 배포하고, 지역사회내 약국, 편의점, PC방, 만화방 등을 ‘청소년보호의 집’으로 지정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하고, 청소년에게 보호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 ⑫ 간소화된 표준회계 감사양식 개발

서울시는 간소화된 표준회계 감사양식을 개발하고, 감사 횟수를 년 1-2회로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 수준의 ‘1인 표준양육비’를 책정하여 규정비용 안에서 는 시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2) 비정규학교 지원확대

### ① 비정규학교에 대한 정책 마련

서울시는 교육부와의 협조 하에 학교를 벗어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문제, 교사교육, 수급문제, 학교 인가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비정규학교 정책을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가운데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2001년도부터 대안학교식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sup>30)</sup> 서울시라는 지역 및 학생들의 특성이 반영된 현실성 있는 방안의 모색을 위해 여러 가지 법, 제도적 측면과 관계기관간의

---

30) 서울시교육청은 비정규학교의 대안학교화를 위해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실태조사에 나서 이 학교 9곳의 학생과 교사현황, 교과운영 및 세부시설 등을 파악한 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국민일보, 2000.10.15일자)

협의를 통한 공식화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 ② 특화 프로그램의 마련

비정규학교는 정규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다수이나 교육프로그램은 정규학교와의 차별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교육부는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 및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 및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기준을 체계화하여 시행해 나간다.

## ③ 학교 특성화에 따른 지원 차별화

서울시와 교육부는 각 학교의 특성화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마련한다.<sup>31)</sup> 이를 위해 개별학교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조사작업을 선행한다. 교육부의 등록금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현재는 등록금 면제 혜택 대상자 책정시 각 학교의 등록 학생 수에 비례하고 있으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특성화 추구는 학교별로 학생구성 양상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sup>32)</sup> 서울시와 교육부는 개별학교의 학생구성 특성 및 재정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등록금 지원 혜택대상의 선정이나 제반 지원을 제공할 시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지원을 제공한 부처에서는 사후의 관리 감독을 통해 예산 지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한다.

---

31) 예를 들면, 성지중·고는 상담이나 인성교육(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의 요구가 비교적 강하고, 한국예술고는 교육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지원요구가 강하다. 또한 현재 청소년층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중단된 한림여자실업 중·고는 부처간의 협의를(예를 들면 여성정책관실) 통한 다른 차원의 지원마련 요구가 크다. 아직 특성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량실업고는 어떤 특성화 추구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전반의 차원에서 어떤 특성화의 추구가 필요한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32) 한국예술고등학교의 경우는 예술고로의 특성화 추구로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주부 성인층을 다수로 하고 있는 학교 역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다수인 학교에 비해 등록금 미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④ 비정규학교 교사직의 처우 개선안 마련

사회교육시설에는 자질이 풍부하고 사명감 있는 교사 영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크지만,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일반 정규학교의 교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좋은 교사와 강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수한 교원 인력확보를 위해서 교사들이 비정규학교 교사직에 대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비정규학교 교사직의 처우 개선안을 마련한다.

비정규학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더불어 학교간 연계를 통해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학생지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 ⑤ 지역내 수련시설 및 단체와 연계

서울시와 자치구는 유상임대로 운영되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들이 지역내 청소년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건물을 무상임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야간에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게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시설을 공간활용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임대료의 부담과 교육환경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에 관심과 뜻이 있는 교사나 자원봉사자의 수급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 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

개별학교가 홍보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모집이나 학생모집에 대한 홍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한다. 홍보의 활성화는 학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지역사회내 사회교육시설로의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교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영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학교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홍보 외에도 각 개별학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내에서의 홍보를 병행한다. 지역신문이나 구 소식지, 게시판 등을 이용해 지역사회내에 청소년들이 정보나 홍보의 부족으로 학업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간다.

## 제 5 절 사회참여

### 1. 현황과 과제

#### 1) 설문조사에 나타난 현황과 정책과제

##### ■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고조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1991년도 15-19세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이 13.6% 정도였던 것이 1996년 서울시 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sup>33)</sup>에서는 43.5%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 6월의 본 조사에서는 참여 경험이 69.0%, 앞으로의 참여 희망 비율이 68.3%로 나타나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자원봉사 활동터전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현재 자원봉사 활동분야가 ‘사회복지분야’와 ‘관공서’에 65.7%로 집중된 데 반해 희망분야는 ‘도서관, 문화, 체육시설 업무보조’, ‘사회복지’, ‘농촌봉사’, ‘의료시설 봉사’ 분야 등으로 다양하다.

자원봉사의 문제점으로는 ‘봉사활동의 형식성’이 41.7%에 이르고 있고, ‘원하는 분야가 너무 적거나 찾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27.8%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증가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람을 줄 수 있는 활동터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 중요

자원봉사 참여 동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1995년 당시에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1,1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sup>34)</sup>에서는, ‘불우이웃돕기와 사회발전

---

33) 5.31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서울에 있는 중고생 57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34) 이요식,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5

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비율이 48.5%이고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1% 정도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의 동기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조사에서는 '성적이나 취업 반영'의 동기가 38.5%, 2000년 본 조사에서는 65.3%로 나타나, 점차 참여 동기가 자원봉사의 본래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그러나 동기나 참여 취지가 달랐을지라도 자원봉사 평가에서는 67.7%의 학생들이 보람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특히 참여 동기가 '성적 반영'이라고 응답했던 학생의 과반수 이상인 57.0%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 증대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학생은 77.3%이며, 청소년이 주체가 된 공개토론회나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활동기구나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적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이해 확대의 필요

청소년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데 반해 청소년위원회나 공개토론회와 같은 제도를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생 비율이 20% 내외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 확대가 필요하다.

## 2) 서울시 사회참여 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1) 자원봉사

#### ■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총괄기획기능의 부재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총괄기획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자치구 사업인 봉사활동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홍보활동, 정보구축 등의 다른 중요한 활동사업들의 약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단위별 역할 분담의 재정립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미비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의 부족으로 청소년자원봉사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장소의 협소, 교육강사의 선정, 양질의 교육내용의 제공, 새로운 활동터전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은 자치구가 봉사활동과 교육사업에서 당면한 문제점들이다. 한정적인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러한 정보와 지식, 노하우의 제공, 프로그램의 개발, 자원봉사지도자에 대한 교육기능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 ■ 홍보사업의 미비

자치구 홍보사업의 문제점은 컴퓨터에 친숙해 있는 청소년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것이다. 이는 홍보의 미비로 학생들이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 접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고, 이에 앞서 자치구의 홈페이지가 대체로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 없이 신청란만을 갖추고 있어 자원봉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정보사업의 미비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의도하였던 청소년자원봉사 정보망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상의 (지역소식)과 (정보마당) 란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역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자치구와의 연계 및 협조 미비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 (2) 정책참여

### ■ 위원회 활동 가이드라인 부재

2000년도를 기점으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다.

- 대부분의 활동내용이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평가로 한정되어 있으며, 반기별 회의 외의 활동이 없는 경우도 있다.
-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위원회 활동이 홍보 부족 및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활동영역의 분리가 청소년의 욕구와 관심 분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분과별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 자치구의 청소년위원들의 제안 가운데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수렴·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2. 정책목표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서울시 청소년 사회참여 사업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사회참여 부문의 주요한 정책과제는 다음의 2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다수이나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간의 연계 미비로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를 총괄하는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청소년자원봉사에 관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수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중점사업에 대한 역할 재정립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내실화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높는데 반해 참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

고, 이에 대한 체계화된 구체적 운영방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대표들이 정책개발 및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및 참여 통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1. 자원봉사의 내실화
2. 정책개발과 결정과정에의 참여확대

### 3. 정책목표별 추진사업

#### 1) 자원봉사의 내실화

##### (1)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체제 구축

- ①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연계를 위한 협의기구<sup>35)</sup>의 구성을 통해 서로간의 역할규정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 ② 서울시와 자치구, 학교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들간의 연계 및 협력 도모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나 회의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의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③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 정보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 (2)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기능의 강화

- ① 방학기간에 몰려드는 자원봉사교육 대상자를 분산시키고, 소위 영상세대라 할 수

---

35) 일본 정부는 자원봉사 주무부서를 놓고 후생성과 지방자치성이 빚어 오던 갈등을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경제기획청을 담당부서로 결정함으로써 쉽게 해결하여, 경제기획청이 정부내 18개 부처간의 자원봉사 연락회의를 총괄하면서 250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일본자원봉사센터의 특징은 우선 강력한 중앙 차원의 추진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회 지방조직에서 운영하는 볼런티어센터와의 체계적인 조직과 연계, 센터의 기능과 역할분담이 분명하다.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중앙센터와의 협의 하에)에서는 영상교육교재를 제작해서 자치구와 학교에 보급한다.

- ②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도 청소년자원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교육 사례집<sup>36)</sup> 발간하여 청소년 전문지도사가 없는 자치구와 학교에 이를 보급하여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준다.
- ③ 자치구의 실무자 및 전담교사, 관련기관 담당자의 연수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봉사 활동 분야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지도자 양성 연수과정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기능까지 보유한 지도자 배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양성 및 연수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활동터전의 청소년자원봉사 담당실무자(관공서, 민간기업체, 기타 공공 및 개인사업체의 담당실무자 등)와 일반인 같이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소정의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 ④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행정공무원만으로 이뤄진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교육사업에 대해 정보와 지식, 강사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⑤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는 활동거리를 개발해 준다던가 혹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지역별 환경에 맞게 변형·적용시켜 자치구에 제공해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새로운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포상함으로써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모하고 홈페이지는 물론 사례발간을 통해 홍보한다.
- ⑥ 많은 대학들이 독립과목으로 사회봉사 과목을 설치하고 학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봉사를 권장 내지는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관내지역의 대학들과 협의를 거쳐 사회봉사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중·고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하며,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6) 일본의 도쿄볼런티어액션센터에서는 대표적 활동으로 일본 각 학교들의 모범교육사례를 책으로 엮어 소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체험학습' 등 학교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대폭 준 일본의 교육개방 열풍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난감해 하는 교사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활동 및 정보제공의 강화

- ①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홍보활동 강화로 컴퓨터에 친숙해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접속을 활성화한다.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의 구별 없이 제공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부분을 분리하여 특화시킨다. 접속 및 활용가능성이 높은 수요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다.
- ②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자원봉사 축제를 통합하여 공동의 행사로 기획, 이것이 서울시 청소년들의 축제<sup>37)</sup>로써 자리잡을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축제의 콘텐츠를 알차고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축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에서 99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직업체험봉사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직업 진로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체험의 내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이 다르게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 (4)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인력 지원

- ①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연계활동보다는 연구·기획기능을 더 중점사업화해야 하므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을 충원한다.

---

37) 일본 JIVA라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매년 일본의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가쓰분’이라는 일본 청소년자원봉사 축제를 연다. 일본의 자원봉사축제는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각종 기업, 학교 등이 연합하여 전국 자원봉사축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하나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 붐을 일으키고 있다. 축제는 이벤트적 행사라기보다는 다양한 워크숍 형태를 통해 자원봉사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다. 여기서는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체험담 소개, 전시회, 음악 축제, 자원봉사 발언대 등 50여 개의 각종 행사가 1박 2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된다. 이 축제를 통해서 참가한 학생들은 각자의 자원봉사 체험을 나누고 문제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게 된다고 한다. 결국 이것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축제인 셈이다. 바로 그러한 행사가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지도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25개 자치구에 새롭게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고, 여기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지도사를 배치, 지원한다.

## 2) 정책개발과 결정과정에서의 참여확대

### (1)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는 서울시 청소년회의를 청소년위원회의 모델로서 시범사업화 한 후, 새롭게 설치, 운영준비를 하고 있는 자치구에게 가이드라인<sup>38)</sup>을 제공해준다. 가이드라인의 작성시에는 활동주체인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위원을 참여시킨다.

### (2) 청소년 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및 정보제공의 필요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이 활동 의미와 방향, 그리고 역할과 의무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위원들이 자치구의 현안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3) 청소년위원회 기능의 확대 및 주체적 활동의 활성화

- ① 청소년 위원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부합된 관심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을 다양화한다. 단순히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건의하고 평가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

---

38) 영국의 햄프셔청소년위원회는 다양한 자료발간과 홍보를 통해 교구와 타운에 청소년위원회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있으며, 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은 공무원이나 시의원 및 정치인들에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침들을 담은 '성공적인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위한 핸드북'을 발간하여 각 카운티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서 청소년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얻게 하고 있다.

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역할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내용 및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 ②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활성화한다.<sup>39)</sup> 청소년위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 가능한 청소년창안제<sup>40)</sup>와 같은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선별된 의견이나 프로그램들을 청소년 위원들의 활동내용으로 채택한다. 청소년 위원들은 활동사업의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직접 마련하

---

39) 미국의 유타주 청소년위원회 연합회의 활동 프로그램의 예: 지역사회 청소년과 노령자들 사이의 세대차이를 없애기 위한 프로젝트를 청소년들이 직업 기획하여 시장과 시위원회의 찬성, 지원, 격려를 받고 학생들이 시민연회와 오락을 제공하는 재원모금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자신들의 활동광고포스터 제작, 집 없는 아동을 위한 생일파티, 청소년 길거리 댄스, 청소년위원회 신문제작, 꽃심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선사업활동, 중고 가정용품 염가판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관련 행사를 벌이며, 재원모금을 위해 무도회, 마라톤, T-셔츠 판매, 영화의 밤, 캔디판매, 초상화 판매 등의 사업을 직업 벌이기도 한다. 게다가 지역 청소년위원회마다 개성있고 재미있는 프로젝트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자동차 세차, 잔디 깎기, 댄스파티, 경매, 피자나 도넛 등 음식판매, 카니발 등의 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해 청소년위원회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특징은 유타주 청소년연합과 유타주립대학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토렌스 청소년 위원회의 예: 총12명의 청소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저히 청소년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다른 시정부위원회와 똑같은 자문단체의 권한을 지닌다. 한달에 2회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고, 이 모임에서 앞으로의 활동계획 점검과 진행, 그리고 시정부와의 협조사항 토의 및 결정이 있게 된다. 이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청소년행사 기획과 진행, 봄철 청소년 축제와 및 크리스마스 행사, Friday Night Live(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진행, 그리고 지역사회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자 파견 및 협조를 담당, 매주 시의회에 참석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일 등이다. 활동기금은 시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축제 및 행사장에 음식판매대를 설치·운영한 수익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재정적인 독립체로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과외활동이 대학입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이들의 경력은 대학진학에 큰 도움이 되므로 청소년위원회 활동은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40) 일본의 “고교생주장대회”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이 고교생의 손으로 이뤄지는 자율적·자치적 청소년활동이다. 행사가 있기 한달 전에는 청소년음악제와 같은 소규모 축제가 있게 되고 주장대회 행사 자체가 하나의 축제행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주장대회에 응모한 사람은 전원 스태프 되어 활약하게 된다. 표현 내용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는 학교생활에서 생긴 체험이나 느낌을 자기 자신의 말로 주장할 뿐 아니라 무용이나 연극 공연을 통한 발표도 가능하다. 중요한 시사점은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주장대회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학교, 정부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유인책으로는 주장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대학입시 점수에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는 지원책이 있다.

고 이를 자치구나 서울시에 제출하여 협조와 지원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작업까지도 연계시킴으로써 효과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 (4) 청소년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의 활성화

- ①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한다. 위원수가 100명 정도로 잦은 모임을 갖기 힘든 자치구의 경우는 동아리 활동 및 관심 분야별 활동을 통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② 청소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들간의 친목 도모가 선행돼야 한다. 반기별 1회의 회의만으로 서로를 익히고 협력하며 위원회활동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위원들간에 친목 도모, 나아가 위원들이 주체가 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 ③ 사이버공간에 친숙한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하므로,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활성화한다. 시간이나 공간의 문제로 모임을 갖기 어려운 경우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로써 활용하므로써 청소년 전반의 여론을 수렴해 나간다.

#### (5)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수렴 통로 마련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 불가능한 제안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수렴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필요하다. 현재는 연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서울시와 자치구 청소년위원회를 연계시키므로써 자치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한다.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뿐 아니라 청소년 위원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자치구 차원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안건들은 이러한 협의체구성을 통해 공동사업으로 진행해 나간다.



## 第 VI 章 추진체계

제 1 절 종합추진체계

제 2 절 부문별 사업추진체계



## 제 VI 장 추진체계

### 제 1 절 종합추진체계

#### 1. 행정추진체계

##### 1)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의 역할 분담체계 구축

청소년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집행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연계 조정, 지원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해야한다.

자치구와 민간은 사업 집행을 하며, 자치구는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내 정보망 구축 및 정보제공, 지역내 시설과 단체간의 연계사업에 역점을 두고,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서 하도록 한다.

##### 2) 시설간 운영 차별화

서울시, 자치구, 민간에서 동일한 분야의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이들 시설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수련시설의 경우 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별로 사업을 특화하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자치구와 민간단체의 지도자 교육연수와 사업을 확산시키는 중추역할을 하도록 한다. 자치구 수련시설과 민간기관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공부방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1차지역거점 역할을 한다.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없는 교육교재 개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자나 자원봉사자 교육 등의 연구개발,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어,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와 봉사처를 연계하고, 사후평가사업을 한다.

서울시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청소년 상담의 중앙센터로서 상담 관련 연구개발, 상담실 연계사업, 교육·연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실은 직접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보센터는 시립아동상담소와 통합운영하고, 대상을 남자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한다. 센터에서는 가출청소년 조사와 연구, 교육연수, 평가사업을 하고, 보호시설과 병원 등의 전문기관간 연계사업과 정보망 구축사업을 한다. 개별 상담과 그룹홈은 직접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3) 자치구별 청소년 종합계획 수립 유도과 지원 차등

자치구에 따라 청소년시설, 청소년 인구, 생활여건 등에 차이가 나므로, 자치구 특성을 고려한 자치구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계획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차등지원을 한다.

### 4) 사업주체별 평가사업 활성화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서울시 행정부서, 25개 자치구, 기업을 포함한 민간단체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를 청소년 백서에 수록하도록 한다.

### 5) 청소년 전문담당관제 도입

청소년 업무는 체육청소년과 외에 보건복지국, 산업경제국, 여성정책관, 행정관리국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외 교육청, 검찰, 경찰과도 연계가 필요한 업무이다. 그리고 실천적, 집행적 성격이 강한 청소년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많은 부분이 자치구로 이양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25개 자치구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청소년 업무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청소

년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서울시가 청소년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내부의 다양한 부서와 횡적, 종적으로 연계하고, 교육청을 비롯한 여타 공공기관과도 연계하면서, 민간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여타 관련기관과의 다양한 협조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정책의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이 사업 수행상 매우 중요하다. 체육청소년과에 현재 별정직 6급, 7급으로 청소년 전문공무원이 있으나, 행정체계상 이들이 서울시 청소년 업무의 핵심인 기획조정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서울시의 청소년 업무 비중이 커지고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업무의 특성상, 청소년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기획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청소년 업무의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육청소년과의 업무에서 청소년 업무를 분리하고, 청소년 전문 담당관제를 도입하여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인다.

## 6) 민간단체 회계업무 양식 표준화

청소년사업의 대부분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에 의해 집행되고 있어,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현재의 회계감사 방식이 복잡하여 민간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사업에 민간단체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서울시는 민간단체 회계감사를 위한 간단하고 편리한 표준회계양식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2. 홍보 및 정보망 체계 구축

### 1) 종합홍보계획 수립

홍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사업에 대해 사업분야별, 홍보매체별, 사업주체별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한다.

## 2) 청소년 수첩 발간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의 정보를 수록한 청소년 수첩을 제작하고, 청소년 1인당 1개의 수첩이 배포될 수 있도록 한다.

## 3) 지역 네트워크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청소년사업 주체가 다양하나 현재 연계되어 있는 사업주체가 적으며,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도 예산지원이 없어 활동이 미비하다. 지역별, 분야별로 청소년사업 주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여, 연계활동을 유도한다.

## 4) 청소년 정보망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은 서울시, 중앙정부, 자치구, 교육청, 민간단체 등 여러 주체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많다. 따라서 사업 주체간과의 연계 없이 개별 주체에 의한 독자적 사업으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현재 각 주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호간에 알 수 있는 정보망이 없어,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주체간에 공문을 통해 개별적인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나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청소년사업을 조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다.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각 주체들 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가 없다. 각종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일부 수렴하고는 있으나 청소년과 활동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on-line상에서 소위 '서울 youth community'를 구축하여 기존의 의견수렴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청소년 관련 정보는 청소년게시판과 월간푸른소식, 청소년유해업소시민감시방이 있으나,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알림판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시립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수련관 홈페이지가 있으나, 자체 수

련관을 홍보하는 성격이 강하고 서울시 청소년 정책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분 이기는 하나 서울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www.ssro.net이 있으나 제한적 형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www.haja.or.kr의 경우 학부모게시판, 교사아카데미 등을 제공하여 일종의 커뮤니티사업을 하고 있으나, 역시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밖에 각급 학교와 YMCA, 흥사단, 청소년연맹 등 대형 청소년단체들이 개별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청소년종합정보망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축될 수 있다. 첫째는 서울지역내의 청소년 관련 각 주체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정보공유시스템 역할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에게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정보지원시스템 역할이다. 정보공유시스템은 서울시와 자치구, 각종 청소년기관 등의 개별주체가 가진 정보를 제공하여 각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부각될 것이다. 정보지원시스템은 청소년 관련 정책, 문화, 교육, 생활 등의 각 분야의 관련 사이트를 모아 원스톱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제약조건으로 서울시가 청소년 정보를 총망라해서 제공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종의 허브사이트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개별사이트의 콘텐츠를 강화해야한다. 개별사이트의 콘텐츠가 충실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사업 부문별로 관련된 서울시, 자치구, 민간단체의 정보화 사업에 예산지원을 하여, 부문별 정보망 구축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

### 3. 청소년 관련 전문인력 배치와 양성

#### 1) 자치구 전문인력 배치와 담당공무원 교육연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은 일정부분 확보되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 측면에서 본다면 청소년사업의 대부분은 시나 자치구에서 이전에 수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이며, 업무수행에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인 청소년 업무에 대해 행정내부의 업무경험이 전혀 축적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청소년 업무가 일반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업무분야 또한 문화에서부터 보호,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업무도 자치구로 이양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전문공무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없다. 따라서 청소년사업이 경험과 평가를 통해 매년 발전하기보다는 이전의 사업을 답습하기에 급급하고, 새로운 기구나 제도는 만들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의 청소년사업은 집행적인 성격이 크므로, 서울시에 비해 청소년지도사 같은 전문인력 배치가 더 필요하지만, 전문인력이 배치된 경우가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치구가 청소년 업무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유도지원책을 강구한다.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경우, 자치구는 청소년 업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업무와 관련된 연수교육을 받게 하고, 일정기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공무원을 위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2) 시설, 민간단체 실무자 연수교육

공부방, 시립직업전문학교, 상담실, 쉼터, 자원봉사센터, 비정규학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재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으나, 이를 위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 청소년 민간단체 실무자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전문연수교육을 필요로 하나 이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과 민간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분야별 연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4. 사업 우선순위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서 2001년부터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은

첫째,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간 차별화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둘째, 소규모 예산으로 청소년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한다.

셋째, 기존시설 활용도와 사업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시설과 사업인지도를 높

일 수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사업분야별, 홍보매체별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자치구별로 청소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청소년 인구가 많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과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청소년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설이나 민간단체 실무자 연수교육을 위해 2002년 초반기까지 교육수요조사와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연구를 하고 2002년 후반기부터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평가 후 교육프로그램을 연차별로 확대한다.

청소년 종합정보망 구축은 청소년 관련 개별 사이트의 콘텐츠 발전을 고려해야하므로 2003년에 정보망 계획수립을 하고, 연차별 사업집행을 한다.

청소년 전문담당관제와 자치구 전문인력 배치는 계획기간내에 실현하도록 한다.

부문별 사업의 경우 문제상황이 가장 심각한 집단을 파악하여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사업을 한다. 가령 집단따돌림의 경우 여자중학생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으므로, 집단따돌림 대책사업의 사업대상 우선순위는 여자중학생이 될 것이다. 아르바이트와 진로 대책사업의 경우 실업고 학생이 사업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실업고 학생이 가정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처한 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실업고 학생을 위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둔다.

자치구별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와 낮은 자치구간에 청소년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격차가 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청소년 인구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자치구를 우선지원한다.

시설별로는 저소득층 지역에 입지해 있는 공부방과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소외 청소년 교육을 위한 비정규학교 지원사업을 우선순위에 둔다.

## 제 2 절 부문별 사업추진체계

### 1. 여가·문화

소규모 예산으로 사업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존시설 재정비 사업과 지역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1) 우선사업

-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운영계획을 2001년에 수립하고 2002년부터 계획에 의해 연차별 사업집행을 한다.
  - 수영장을 포함한 대규모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검토
  - 지역청소년센터로 기능할 수 있는 시립수련시설 운영방안 강구
  - 수련시설별 기능 특화설정
-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2001년 전반기에 1-2개의 시범자치구 선정, 사업공모 및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후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연합 협의회 사업지원
  - 공부방 협의회 사업지원
  - 자치구나 시립, 구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동아리 활동지원팀 구성
  - 시범 자치구 정보망 구축사업
-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내 청소년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이면서 저소득층 지역에 입지한 공부방을 중심으로 공부방 활성화 계획을 2001년 전반기에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해 후반기부터 사업을 집행한다.
  - 공부방 시설 재정비
  - PC방 설치와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소규모 도서관으로 활용

- 공부방 문화프로그램 사업지원
- 이용료 폐지
- 공부방 운영자 교육수요조사 및 지원
- 민간 공부방 운영비 지원

<표 6-1> 여가·문화 사업추진체계

담당부서 및 추진기한 과제	담당부서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 유형	비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운영계획 수립과 집행	체육청소년과	→	-----	-----	-----	→	● △	2001 계획수립 2002-2005 계획집행
공부방 활성화 계획 수립과 집행	체육청소년과 자치구	→	-----	-----	-----	→	● □	2001 계획수립 2002-2005 계획집행
민간공부방 예산지원	체육청소년과 여성개발담당관	→					● □	
지역연합협의회 구성지원	체육청소년과 자치구	→	→				● ○	
지역정보망 구축계획과 집행	체육청소년과 자치구	→	→	-----	-----	→	● □ ○	
동아리 활동 지원팀 구성	체육청소년과 자치구	→					△	
청소년기획문화사업 지원	체육청소년과	→				→	△	연차별 확대
청소년 문화시설에 청소 년 운영위원회 결성지원	각 시설 체육청소년과	→				→	△	
구민회관 활용계획 수립과 집행	자치구	→	→	-----	-----	→	□ ○	2001-2002 계획수립 2003-2005 계획집행
도서관 활용 문화사업	교육청 문화과	→	→				□	시범사업
소규모 간이운동시설 설치	체육청소년과 지하철공사 공원녹지과	→				→		

- 우선사업 : 중점추진사업
- △ 저예산사업 : 기존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
- 예산사업 : 신규예산 필요
- 시범사업 실시 : 자치구 단위의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2) 사업추진 방식

- 공부방 활성화, 동아리 활동지원팀 구성, 지역정보망 구축, 구민회관 청소년 문화공간 활용사업은 자치구가 사업주체가 되고, 체육청소년과는 사업유도 및 지원역할을 한다. 사업 예산은 자치구와 체육청소년과가 분담하도록 한다.
- 도서관 시설 재정비 및 청소년 문화사업은 교육청과 문화과가 시행주체가 되고, 청소년 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한다.
- 소규모 간이운동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체육청소년과가 입지선정과 설계를 하고, 지하철 공사, 공원녹지과, 자치구 등에서 시설 설치비를 일부 분담하도록 협의를 한다.
-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문화의집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주고, 운영에 산비를 지원해준다.

## 2. 경제

현실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당대우를 받는 청소년도 많으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서울시 차원의 지원과 보호책이 전무하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과 보호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

### 1) 우선사업

-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과 보호사업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 설치를 우선적으로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는 중구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도록 한다.

### 2) 사업추진방식

-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는 체육청소년과가 사업주체가 되어 설치하고, 산업경제국과 업무연계, 지원 협조를 받도록 한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침서는 서울시 청년·여성실무조사팀에서 2000년 6월에 제안한 ‘집대 아르바이트 매뉴얼북 작성 지침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서울시, 자치구 및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단체, 학교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에 올린다.
- 직업체험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시립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개설하도록 한다. 2001년에는 개별 수련관과 지역여건에 맞게 1개 정도의 시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프로그램 소개와 평가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02년부터는 직업체험과 진로지도 프로그램 수와 실시단체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 청소년 소비자 교육은 커리큘럼을 만들어, 학교나 지역 순회 교육을 한다. 체육청소년과가 사업주체가 되고 소비자보호과가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청소년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은 2000년에는 국내외의 청소년 창업 사례소개와 창업에 필요한 정보구축과 제공을 하고, 2001년에는 창업시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체육청소년과와 산업경제국이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된다. 청소년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위한 거점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시립직업전문학교를 활용할 수도 있다.
-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윈스톱 서비스 강화, 저학력, 쉼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창업지원센터 개설은 산업경제국이 사업주체가 된다. 직업전문학교 평가지표에 이들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하도록 한다.
- 청소년 친화기업수상제도는 체육청소년과를 사업주체로 하여, 소비자가 주로 청소년인 기업을 대상으로 청소년 친화기업수상제도에 대한 취지를 홍보하고, 이들 기업이 청소년을 위한 공익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수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홍보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표 6-2> 경제 사업 추진체계

과 제	담당부서 및 추진기한							사업 유형	비고
	담당부서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구 서울청소년수련관 학생아르바이트 지원센터 설치	체육청소년과	→						● □	
학생아르바이트 지침서 작성	체육청소년과	→						● △	
수련시설 직업체형·진로지도 프로그램 개설	각 시설 체육청소년과	→						△	연차별 확대 실시
청소년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 개설	산업경제국 교육청	→							사업평가후 연차별 확대실시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개설	체육청소년과 산업경제국 교육청	→							연차별 확대 실시
청소년 친화기업 수상제도	체육청소년과	→						△	
시립직업전문학교 원스톱 서비스제공	산업경제국	→						△	
시립직업전문학교 저학력, 쉽터 청소년을 위한 특별훈련 프로그램 개설	산업경제국	→						● △	
시립직업전문학교 창업지원센터 개설	산업경제국	→						△	

### 3. 보호·복지

문제가 이미 발생하여 즉각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나 그룹홈 사업, 그리고 제도권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을 위한 비정규학교와 대안 학교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 1) 우선사업

- 가출청소년 통합서비스센터를 우선적으로 개설한다.
- 비정규학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 2) 사업추진 방식

- 현재 여성개발담당관실에서 계획 중인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보센터와 시립아동상담소를 통합하여 여자 및 남자 청소년을 위한 가출청소년통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 여성개발담당관실이 가출청소년 사업의 주체가 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를 지원협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비정규학교에 대한 정책은 체육청소년과와 서울시 교육청이 사업주체가 되어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 서울시 청소년상담실을 활성화하여 서울의 청소년상담정책의 중앙센터로 기능하도록 하며, 체육청소년과가 이를 지원한다.
-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학교사회사업은 체육청소년과, 교육청, 보건복지국이 사업주체가 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
- 청소년보호 관련기구의 운영 지침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작성, 자치구에 배포한다.
-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역할분담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여 중재역할을 하도록 한다.

〈표 6-3〉 보호·복지 사업추진체계(계속)

담당부서 및 추진기한 과제	담당부서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 유형	비고
가출청소년통합서비스 센터 개설·운영	여성개발담당관 체육청소년과	→					●△	
정기적 가출 실태 조사	여성개발담당관	→		→		→		2년 단위로 조사
보호시설 표준화된 서비스 지침 수립	여성개발담당관	→					●	
민간 보호시설 지원	여성개발담당관 체육청소년과	→	→					남자대상시설 우선 지원
보호시설 실무자 보수 교육비 지원	여성개발담당관 체육청소년과 보건복지국					→		
보호시설 인력 수요 조사와 인력지원	체육청소년과	→					●△	
시립병원, 보건소와 보호시설 연계	보건복지국 자치구	→					●△	

<표 6-3> 보호·복지 사업추진체계

담당부서 및 추진기한 과제	담당부서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 유형	비고
보호시설 청소년 자립 기반 체계구축	산업경제국 체육청소년과	→	→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여성개발담당관 체육청소년과	→					●	
보호시설 홍보 활성화	여성개발담당관 체육청소년과 보건복지국	→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사업비 지원 확대	체육청소년과	→	→	→	→	→		연차별 지원 확대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실 기준마련과 지역청소년 상담실로 육성	체육청소년과	→	→	→			●△	2001 기준 마련 2002-2003기준실천
우수 상담기관 선발 및 포상	체육청소년과	→	→				△	
청소년 상담원 교육연수 지원	체육청소년과	→	→					한국상담원, 서울시청 소년종합상담실 연계
상담자원봉사 인력 활용 및 지원	체육청소년과	→	→				△	
상담 전용통신망 구축	체육청소년과 정보화기획단	→						
상담 특별할인요금제도 (통신)	체육청소년과 정보화기획단	→	→					
찾아가는 상담 지원	체육청소년과	→						사업평가 후 확대실시
학교사회사업교육청 시범 사업 예산 지원 확대	체육청소년과	→	→	→	→	→	□	2001 사업 평가 후 2002 확대 실시
학교사회사업 홍보 지원	체육청소년과	→					△	
학교와 종합사회복지관 연계지원	체육청소년과 보건복지국	→	→				△	
종합사회복지관의 학교사회사업 재정 지원	체육청소년과 보건복지국	→	→				○	2001 평가 후 2002 확대 실시
비정규학교에 대한 정책마련	체육청소년과 서울시교육청	→	→	→	→	→	●□	2001 계획수립 2002-2005 계획집행
비정규학교와 지역내 청소년시설과의 연계	체육청소년과 자치구	→	→	→	→	→	△	2001 계획수립 2002-2005 계획집행
청소년보호 관련 기구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보호위원회	→					●△	
서울시,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역할분담	체육청소년과 민간감시단	→					△	

## 4. 사회참여

청소년자원봉사와 정책참여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조직의 활성화와 연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여타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1) 우선사업

-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전문연구인력을 배치하고,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청소년자원봉사 영상교육교재를 만들어 배포한다.
- 서울시와 자치구 단위로 구성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서를 작성한다.

### 2) 사업추진방식

- 체육청소년과는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할 수 없는 연구교육, 프로그램개발, 정보수집과 정보제공 등의 중추역할을 하도록 방향제시를 한다.
- 체육청소년과와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사업주체가 되고, 자치행정과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실무사업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하도록 한다.
-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전문연구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 체육청소년과가 청소년위원회 운영과 활동 프로그램 지침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하도록 한다.

<표 6-4> 사회참여 사업추진체계

과 제	담당부서 및 추진기한	담당부서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 유형	비고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연계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					● △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 정보망의 내실화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 영상교육교재의 제작 및 배포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					● △	
자원봉사 가이드라인 및 모범교육사례집 발간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					△	
자치구 실무자 및 전담교사, 관련기관 담당자의 연수교육 강화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	→		→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구과정 개설 운영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	→				
자치구 교육사업의 지원 (정보 및 강사인력)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	→					
프로그램과 활동거리 아이디어 공모제 및 사례집 발간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	→	→	→	→		2001 계획수립 2002-2005 계획집행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전문연구 인력의 배치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서울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자치구	자치구	→	→	→	→	→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	→					● △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 Tapscott, Don, 허운나·유영만 옮김, 「디지털·지식혁명의 신물결 :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물푸레, 1999
- 강남구청소년학원폭력신고센터, 「1999년 청소년학원폭력신고센터 연간보고서」, 1999
- 강대근, 「고졸청소년 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고성혜,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권두승, 「청소년세계의 이해」, 문음사, 1998
- 길은배, 「청소년과 소비생활」,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김성경,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7
- 김성이·나동석 외,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 김정배, 「21세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추진방향」,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_\_\_\_\_, 「청소년자원봉사 활동거리 개발(Ⅲ)」,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_\_\_\_\_,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운영」,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김정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김혁진, 「'99청소년수련거리-직업현장체험」,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노 혁,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또하나의문화, 「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들」, 1999
- 또하나의문화, 「새로쓰는 청소년 이야기·2」, 1997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1999
-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1998
- 문화방송, 「2000 MBC 청소년백서」, 2000
- 문화체육부, 「'96 청소년육성정책 지역공청회」, 1996
- 미래문화연구원,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정책-청소년을 살리는 발상의 대전환」, 아우내재단 미래문화연구원 청소년 정책 토론회, 1998
- 박문수 외, 「저소득층 지역청소년 여가문화와 소집단 활성화」, 1998
- 박병식,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박창남, 「청소년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서울YMCA 청소년성교육상담실, 「10대 임신과 남자의 무책임, 무엇이 문제인가?」, 2000년 제 2회 10대임신예방을 위한 연속토론회, 2000
- 서울시특별시교육청,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2003)」

-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서울특별시 구립(區立) 청소년상담실 설립 계획(안)”, 2000
- 서울특별시, 「청소년 건전육성 '99년도 시행계획」, 1998
- 서울특별시·한국여성개발원, 「한국가족기능의 결손과 대책방안 모색」, 2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1999
- 서울특별시구로청소년쉼터, 「2000년 쉼터운영·연구보고서」, 2000
-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 「1999년 운영백서」, 2000
-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 상담 및 의식조사 연구보고」, 2000
- 서울특별시노원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평가설문 종합결과보고서」, 1999
- 서울특별시노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이용 만족도 조사 종합 결과 보고서」, 2000
- 서울특별시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백서」, 2000
- 서울특별시립 수서청소년수련관,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육구조사」, 2000
- 서울특별시서울청소년수련관, 「1999년 운영백서」, 2000
- 서울특별시서울청소년수련관, 「청소년 프로그램 연구」, 1999
-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실 운영백서」, 2000
- 서울평화교육센터, 「대한학교의 모델과 실천」, 내일을 여는 책, 1996
- 성민선, "학교사회사업 실천 과제", 「학교사회사업」제2호,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1999
- 송복 외, 「학업중퇴자 연구: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6
-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육구조사」, 1998
- 신창호, 「서울시 산업경제 정보통신망 구축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 안귀덕, 「韓國靑少年文化：變化와 連續」,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98
- 연세대 청년문화센터, 「21c 청소년과 함께 준비합시다—청소년과 근대성」, 1999
- 오익수 외, 「사이버상담을 통해 본 청소년의 세계」, 청소년대화의광장, 1999
- 오익수,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1993
- \_\_\_\_\_, 「청소년 상담인력개발 정책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1994
- \_\_\_\_\_, 「청소년 상담정책 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1995
- \_\_\_\_\_, 「청소년 상담체제 발전 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1996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Asia Youth Forum 2000: 아시아에서 10대로 살아가기」, 문화관광부, 2000
- 윤철경, 「한·일교류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이광호, 「학교 특별활동과 지역사회 수련활동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이규미, "사회상담기관의 현황 및 발전과제", 「사회상담기관 활성화 세미나」,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 이민희,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모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_\_\_\_\_, 「청소년 글러벌 리더십 프로그램 모형 개발」,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_\_\_\_\_,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이요식,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이혜연, 「청소년문제 어디서 어떻게 지도하나」,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전경숙,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전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준비위원회, 「아동·청소년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아동복지법 시행령·규칙 제정에 즈음하여」자료집, 2000
- 전명기,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전현중,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1997
- 정화수, 「청소년정보 가이드 : 청소년 관련 문답풀이 (F.A.Q)」,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정희옥, 「외국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조한혜정,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Ueno Toshiya, “도시부족과 미디어”, 「21세기를 청소년과 함께 합시다」 심포지움 자료, 1999
- 조흥식,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천장웅, 「지방 청소년 정책 사업 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 증대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_\_\_\_\_,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_\_\_\_\_, 「청소년참여 증대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_\_\_\_\_, 「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청소년대화의 광장, 「IMF 위기속에서 한국인상 재정립을 위한 청소년 도덕성교육」, 1998
- 최윤진, 「청소년의 권리」, 양서원, 1998
- 최충옥, 「청소년 관련 산업 및 복지투자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한국언론정보학회·문화개혁시민연대, 「청소년 문화, 담론과 현실」, 200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과제」, 1998
- 한국청소년개발원, 「21세기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세미나」, 1997
- 한국청소년개발원, 「'99 청소년 정책 중부권역 토론회」, 1999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생활환경개선 종합대책 :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에 관한 연구」, 1996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역별 관계자 워크샵 : 청소년 육성의 방향과 과제」, 1998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청소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1998
-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문화의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1998
-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육성과 학교교육의 연계 방안」, 1999
- 한인영, 홍순혜 외, 「학교와 사회복지」, 학문사, 1999
- 한준상, 「학교내 비폭력문화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함병수, 「2000년대를 향한 경기지역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황진구, 「청소년정보 분류·검색체계 개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황창순,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흥사단 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집」, 1999
- 東京都生活文化局 女性青少年部 青少年課, 「青少年の自立と社會活動のための東京都 行動プラン」, 1998

# 부 록

부록 1 조사개요

부록 2 설문지



## 부록1 : 조사개요

### 1. 여가·문화

#### 1) 청소년 수련시설

##### ■ 조사방법

- 운영자 심층면담조사
- 기관내부자료분석
- 조사대상 시설 : 시립청소년수련관 2개소, 구립청소년회관 1개소, 구립청소년수련실 1개소, 시립청소년특화시설 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문화센터 1개소

##### ■ 주요조사내용

<표 1> 주요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일반현황	예산, 조직, 시설 및 기자재, 관리·운영현황, 운영상 애로점, 홍보방안
수련관 사업내용	수익사업, 연구·기획사업, 청소년동아리활동 등 청소년참여, 학교연계활동, 자원봉사자 교육 등
수련관 발전방향	수련관 장기플랜, 특성화전략, 청소년문화활성화전략
타 청소년시설(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 지역내 청소년시설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정도 • 자치단체와 교류여부 • 학교와의 연계활동

■ 조사일정

<표 2> 조사일정

일자	시 설 명	면 담 자
2. 17	직업체험센터	부관장
4. 19	수서청소년수련관	관장, 문예진흥팀장
	강남청소년회관	관장
4. 26	근로청소년복지관	목적사업팀장
	가산문화센터	사업팀장
	구로청소년쉼터	업무지원팀장
	월계청소년수련관	관장
4. 27	용산청소년정보문화센터	관장
4. 28	서울청소년수련관	관장, 업무지원팀장
	강서청소년문화의집	담당공무원

2) 공부방

■ 조사방법

- 구립공부방 : 25개 자치구 공부방 운영계획 자료 분석, 14개 구립공부방 심층면담조사
- 민간공부방 : 운영자 심층면담조사(연합회 운영자, 민간공부방 운영자), 기관내부자료분석

■ 주요조사내용 및 조사일정

<표 3> 주요조사내용 및 일정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내용
• 4. 17 - 4. 30	• 25개 자치구 조사 • 서울지역 공부방연합회 자료 조사	• 구립공부방 시설 및 운영 현황 • 민간 공부방 시설 및 운영 현황
• 3. 24 • 3. 27 - 4. 30	• 서울지역 연합회 운영자 2인 심층면담 • 15개 공부방 운영자 심층면담(1명은 전화면담)	• 공부방 이용자, 건물상태, 프로그램,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부방 비전과 지역내 필요성

### 3) 여가·문화 프로그램

#### (1) 서울시 사업

##### ■ 조사방법

- 서울시 내부자료 분석
- 관계 담당공무원과의 전화 인터뷰 조사

##### ■ 주요조사내용 및 일정

<표 4> 주요조사내용 및 일정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내용
• 5. 10 -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여가문화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li> <li>• 담당공무원과의 전화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청소년여가문화사업 예산</li> <li>• 분야별 프로그램 및 사업내용</li> <li>• 프로그램 선정 및 사업운영방법</li> </ul>

#### (2) 자치구 사업

##### ■ 조사방법

- 서울시 내부자료 분석
- 4개 자치구(영등포구, 동대문구, 구로구, 송파구) 청소년팀 직원들과의 전화인터뷰 조사, 강북구는 심층면담조사

##### ■ 주요조사내용 및 조사일정

<표 5> 주요조사내용 및 일정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내용
• 3. 17 -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자치구 담당공무원과의 전화인터뷰(강북구는 방문면담)</li> <li>• 담당공무원에게 자료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내 부서별 청소년 여가문화사업 현황과 기획조정기능의 수행여부</li> <li>• 지방청소년 위원회에 관한 사항</li> <li>• 조직 및 개략적인 예산</li> <li>• 청소년사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li> </ul>

## 2. 보호·복지

### 1) 보호시설

#### ■ 조사방법

- 기관내부자료 분석
- 참고문헌 고찰
- 시설 책임자 심층면담조사
- 전문가 간담회의 : 쉼터 및 그룹홈 7개소 시설장 및 실무자
- 조사대상 시설 : 상록자립생활관,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청소년새샘터, 서울YMCA 청소년쉼터, 평화의 샘, 강남구청소년쉼터, 켄마의 집, 양천나눔의 집, 서울 SOS 어린이 마을, 씨튼해바라기의 집,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 ■ 주요조사내용

<표 6> 주요조사내용

형식	조사영역	조사내용
심층 면담	일반 현황	•운영 및 지원 주체, 직원, 재정, 입소자 현황,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보호시설 사업내용	•청소년 상담, 가족 상담, 경제적 지원,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조사연구, 자원봉사자 교육, 시설 홍보, 사후관리 •특화 및 중점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재정 문제, 인력 문제, 프로그램 문제, 의뢰 및 연계 관련 문제, 시설 부족 문제, 사후관리 문제, 주민참여 문제, 미인가 문제 등
	타시설과의 의뢰 및 연계	•다른 보호 시설과의 의뢰 및 연계 •다른 전문 기관과의 의뢰 및 연계
	개선안 및 향후 계획	•상기 문제에 대한 개선안 •시설 향후 계획
간담회	문제점과 개선안	•문제점 논의 : 법적 근거 미약성, 복잡한 행정 절차, 특화 문제, 미인가 문제, 의료서비스, 직업서비스, 네트워킹 문제 •개선안 논의

■ 조사일정

<표 7> 조사일정

형식	일자	시 설 명	면 담 자
심층 면담	8.14	상록 자립 생활관	실무자
	8.16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	실무자
	8.16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시설장
	8.18	청소년새샘터	시설장, 실무자
	8.18	서울YMCA 청소년쉼터	시설장
	8.21	평화의 샘	시설장
	8.22	강남구청소년쉼터	실무자
	8.22	젼마의 집	시설장
	8.23	양천 나눔의 집	실무자
	8.24	서울 SOS 어린이 마을	시설장
	8.26	씨튼해바라기의 집	시설장
	8.30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실무자
간담회	10.6	은행골 우리집, 시립동부아동상담소 착한 목자의 집, 신림청소년쉼터 강남구청소년쉼터, 다비다의 집	시설장, 실무자 7인

2) 상담

■ 조사방법

- 기존 참고문헌 고찰
- 시설 내부자료 및 업무현황 보고서, 기관백서 분석
- 기관 담당자 전화인터뷰
- 전문가 면담 조사 :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주요조사내용 및 조사일정

<표 8> 주요조사내용 및 일정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내용
• 10. 4 - 10. 5	• 업무현황 보고서(2000년)와 기관백서 참고 • 담당자 전화 조사	• 시립상담실 현황 조사 : 운영주체, 상담원수, 상담실수, 특화 프로그램 및 특징
• 10. 16 - 10. 17	• 시설내부 자료 • 담당자 전화 조사	• 구립시설내 상담실 현황 조사 : 운영주체, 상담원수, 상담실수, 특화 프로그램 및 특징
• 10. 9	• 심층면담 :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장	• 서울시 청소년 상담정책 현황, 문제점, 정책적 개선안
• 10. 10	• 심층면담 : 한국청소년상담원 기획조정실장	• 청소년 상담정책의 현황, 문제점, 정책적 개선안

3) 학교사회사업

■ 조사방법

- 관련자료 분석
- 참고문헌 고찰
- 복지관 담당자 전화인터뷰
- 전문가 간담회의

■ 주요조사내용 및 조사일정

<표 9> 주요조사내용 및 일정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내용
• 10. 18 - 10. 19	• 참고문헌, 관련자료 • 담당장학사 전화면담	•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 현황 조사: 인력, 재정, 지정학교, 교육청 활동, 추후 계획
• 10. 20	• 담당사회복지사 전화면담	• 종합사회복지관 학교사회사업 현황조사 : 인력, 재정 지원, 학교연계방법 및 어려움 점, 학교지원내용, 사업장소
• 10. 27	• 간담회 : 생활지도 장학사, 교감, 교수, 학교사회복지사, 복지관 과장	•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 현재 활동 현황, 정책적 제안

4) 비정규 학교

■ 조사방법

- 서울시 내부자료 분석
-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6개 학교 운영자 심층면담조사, 1개교는 자료요청 분석
-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14개교 자료요청 분석

■ 주요조사내용 및 조사일정

<표 10> 주요조사내용 및 일정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내용
• 8. 7 - 8. 12	• 서울시와 비정규 학교 담당자에게 자료 요청 • 서울시 교육청 비정규학교 담당자에게 자료 요청 및 면접	•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시설 및 운영현황 •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시설 및 운영현황
• 8. 18 - 8. 28	•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운영자(6곳)와 심층면접(1곳은 자료요청) •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는 자료요청(12곳)	• 학교 운영목표, 시설규모 및 예산, 학생들의 특성, 프로그램, 대학진학율, 상담, 문제점 및 개선점

## 5) 청소년보호위원회

### ■ 조사방법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담당공무원과의 전화인터뷰 조사 및 자료요청 분석
-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서울YMCA, 서울YWCA,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운영자와의 전화 인터뷰 및 자료요청 분석

### ■ 주요조사내용 및 조사일정

〈표 11〉 주요조사내용 및 일정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내용
• 8. 20 -9. 10	• 25개 자치구 조사	• 청소년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활성화 정도), 민·관이 합동이 된 청소년보호 계도활동 및 단속활동의 현황, 기타 문제점 및 제안점
• 9. 15 -9. 22	•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서울YWCA, 서울YMCA,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운영자와의 전화면접 및 자료요청	• 직원구성, 예산, 주요 활동사업 및 프로그램, 시민과 관련행정기관의 협력정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안점

## 3. 사회참여

### 1) 자원봉사

#### ■ 조사방법

- 서울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 담당실무자 심층면담조사, 기관내부자료 및 홈페이지 분석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 25개 자치구 담당공무원과의 전화인터뷰 및 홈페이지 분석, 서울시 내부자료를 통한 5개 자치구(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종로구, 노원구) 분석, 송파구 담당운영자와의 심층면담조사

■ 주요조사내용

<표 12> 주요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일반 현황	• 설립시기, 운영형태, 예산구성 및 지원현황, 인력현황, 자원봉사자 대상자 현황, 홈페이지 구성
사업 내용	• 봉사활동 사업, 교육사업, 홍보사업, 정보사업 • 특화 및 중점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 재정 문제, 인력 문제, 프로그램 및 활동터전 문제, 교육 및 평가문제
타 시설과의 의뢰 및 연계	•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의뢰 및 연계체제 • 자원봉사센터와 학교간의 의뢰 및 연계체제
개선안 및 향후 계획	• 상기 문제에 대한 개선안 • 자원봉사센터의 향후 계획

○ 조사일정

<표 13> 조사일정

일자	시 설 명	면 담 자
• 7. 11	서울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 7. 12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사
• 7. 10 - 7. 20	서초구, 광진구, 종로구,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담당공무원과 전화면담

2) 정책참여

■ 조사방법

- 서울시와 3개 자치구(송파구, 강북구, 강서구) 담당공무원과의 전화인터뷰 및 내부자료분석
- 간담회 개최 : 서울시와 3개 자치구 청소년위원들 가운데 10명을 선정

## ■ 주요조사내용

〈표 14〉 주요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일반 현황	•구성시기, 예산, 위원 수 및 자격요건, 임기, 위원선정방법, 법적근거의 마련
활동 내용	•활동의 방법 및 범위 •특화 프로그램 및 중점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활동방향의 문제, 전문지도인력 문제, 프로그램 및 교육 문제
개선안 및 향후 계획	•상기 문제에 대한 개선안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향후 계획
간담회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방법: 회의 개최 및 엽서, 전화, PC통신을 이용한 정책참여 방법, 홍보활동</li> <li>•활동내용: 특화 프로그램 및 중점 사업의 소개, 활동의 평가 및 보고 현황</li> <li>•활동상의 문제점: 향후 위원회 활동에 대한 방향,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전교육, 위원들간의 관계, 프로그램 등</li> <li>•개선안 및 향후계획: 상기 문제에 대한 개선안 및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향후 계획</li> </ul>

### ○ 조사일정

〈표 15〉 조사일정

일자	조사방법	조사대상
• 7. 20 - 8. 9	서울시와 3개 자치구(송파구, 강북구, 양천구)와의 심층전화면담 및 자료요청	청소년위원회 담당공무원
8.10	간담회 개최	청소년위원회 위원

## 부록2 : 설문지

--	--

--	--	--	--

# 서울시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청소년 문화 및 복지수요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 청소년 중장기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청소년의 문화·복지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조사로서, 조사결과는 서울시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을 대표하여 무작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적인 사항은 절대 밝혀지지 않습니다.

조사를 위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연락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개발연구부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4-5

담당자 : 신경희 (Tel : 726-1164)

e-mail : skhee@sdi.re.kr

### <응답요령>

1.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예) ① 있다 ② 없다
2.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한가지만 선택해주시고, 2가지 선택은 2가지, 3가지 선택은 3가지, 모두 선택은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시해주시시오.
3. 기타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적어주십시오.
4. 친구와 의논하지 말고 본인의 의견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4. 여가나 문화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함께 활동할 사람이 없다      ② 시간이 없다.
- ③ 원하는 시설·프로그램이 없다.      ④ 원하는 프로그램, 시설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 ⑤ 비용이 부담된다      ⑥ 여가·문화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없다.
- ⑦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      ⑧ 여가나 문화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5. 현재 학교나 외부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중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 활동을 <보기A>에서 골라 번호를 **1가지**만 적어주십시오. (      )

<보기 A>	
① 독서 및 문학 동아리 ③ 비디오, 영화제작 동아리 ⑤ 음악감상 동아리 ⑦ 풍물 또는 한국전통음악 동아리 ⑨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제작동아리 ⑪ 미술 동아리 ⑬ 스포츠 동아리 ⑮ 컴퓨터 게임 동아리 ⑰ 없다	② 영화감상·비평 동아리 ④ 사진 동아리 ⑥ 노래 및 음악밴드 동아리 ⑧ 신문제작 동아리 ⑩ 춤 동아리 ⑫ 역사탐방 및 여행 동아리 ⑭ 연극 동아리 ⑯ 만화 동아리 ⑰ 기타(구체적으로 :      )

6. 앞으로 여가나 취미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을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보기 A>에서 골라 번호를 **1가지**만 적어주십시오. (      )

7. (동아리 활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만 응답)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활동회수나 시간이 짧다      ② 활동에 필요한 적당한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
- ③ 필요한 기자재나 도구가 부족하거나 낡았다      ④ 동아리 활동을 지도해 줄 좋은 지도자가 없다
- ⑤ 활동장소가 너무 멀다      ⑥ 비용이 부담된다
- ⑦ 없다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8. 집에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9.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게임포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10. PC통신이나 인터넷(게임포함)은 어느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① 집
- ② 학교
- ③ PC방
- ④ 공공시설(청소년수련관, 동사무소 등)
- ⑤ 기타(\_\_\_\_\_)

11. 올해 들어 한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시설은 **모두 표시**해 주시고, 시설마다 가장 불편한 점을 다음 <보기 B>에서 한가지만 적어주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에 √표)	(사용시 불편했던 점 <보기B>에서 선택)
①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회관	(            )
② 청소년 문화의 집	(            )
③ 야간 공부방(구립 독서실)	(            )
④ 청소년 상담실	(            )
⑤ 종합사회복지관	(            )
⑥ 구민회관	(            )
⑦ 구민체육센터	(            )
⑧ 공공 도서관	(            )
⑨ 서울 애니메이션 센타	(            )
⑩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 및 교육 프로그램	(            )
⑪ 청소년 전용광장	(            )
⑫ 이동 청소년 수련광장	(            )

<보기 B>

- |                        |                           |
|------------------------|---------------------------|
| ① 시설이 너무 멀리 있다         | ② 시설이 낡았고 쾌적하지 않다         |
| ③ 시설이 좁다               | ④ 일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거나 통제가 심하다 |
| ⑤ 이용시간이 짧거나 한정되어 있다    | ⑥ 찾아가기가 어렵다               |
| ⑦ 교통이 불편하다             | ⑧ 이용료가 부담된다               |
| ⑨ 시설이용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 ⑩ 사용하는 기자재나 도구가 구식이다      |
| ⑪ 시설에 대한 홍보나 정보가 부족하다  | ⑫ 프로그램 전문성이 부족하다          |
| ⑬ 휴게공간이 없다             | ⑭ 없다                      |

12.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 축제나 문화프로그램 분야 **3가지**만 표시해주시시오

- |                |                      |             |                |
|----------------|----------------------|-------------|----------------|
| ① 청소년 음악제      | ② 청소년 미술제            | ③ 청소년 문학제   | ④ 청소년 영화제      |
| ⑤ 청소년 연극제      | ⑥ 청소년 사진제            | ⑦ 청소년 무용제   | ⑧ 청소년 풍물놀이     |
| ⑨ 청소년 체육제      | ⑩ 청소년 방송제            | ⑪ 청소년 정보통신제 | ⑫ 청소년 역사탐방 기행제 |
| ⑬ 청소년 환경생태 기행제 | ⑭ 청소년 국제교류제          |             |                |
| ⑮ 청소년 직업체험제    | ⑯ 농어촌 생활 체험제         |             |                |
| ⑰ 전통생활문화 체험제   | ⑱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                |

## II . 경제 활동

13. 용돈은 한달 평균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월 평균 : \_\_\_\_\_ 원)

14. 용돈은 충분합니까?

- |         |          |         |         |
|---------|----------|---------|---------|
| ① 매우 충분 | ② 대체로 충분 | ③ 조금 부족 | ④ 매우 부족 |
|---------|----------|---------|---------|

15. 용돈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스스로 번다       | ② 부모님이 주신다    |
| ③ 형제 또는 친지가 준다 | ④ 기타( _____ ) |

16. 용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① 스포츠나 놀이 비용
- ② 학용품, 의류 등의 갖고 싶은 물품 구입
- ③ 영화나 공연관람 등의 문화활동
- ④ 데이트
- ⑤ 친구와 간식, 식사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17. 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습니까?

- ① 현재 하고 있다
- ② 현재 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 적이 있다
- ③ 한 적이 없다(☞ 27번으로 가십시오)

18. 현재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일의 종류를 **1가지만** 적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한 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주유소
- ② 음식점에서 서빙
- ③ 음식점에서 배달
- ④ 전단지배포 및 스티커 부착
- ⑤ 모니터링, 조사업무
- ⑥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가게
- ⑦ 직접 물건 판매(자영업)
- ⑧ 슈퍼나 상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
- ⑨ 공장
- ⑩ 비디오 대여점, 편의점, 게임방
- ⑪ 일용건설직
- ⑫ 신문배달
- ⑬ 서류배달
- ⑭ 베이비 시터(아기보기)
- ⑮ 회사사무보조
- ⑯ 콜라텍
- ⑰ 커피숍
- ⑱ 기타( \_\_\_\_\_ )

19. 일주일에 평균 몇시간을 일하였습니까? (일주일 근무 \_\_\_\_\_시간)

20. 아르바이트로 한달 평균 얼마를 벌었습니까? (한달 평균 \_\_\_\_\_원)

21. 일을 하고 받은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일한 것에 비해 많이 받았다
- ② 적당하게 받았다
- ③ 일한 것에 비해 조금 적게 받았다
- ④ 일한 것에 비해 매우 적게 받았다

22. 아르바이트 자리는 어떻게 구하였습니까?

- ① 친구나 선배를 통해
- ②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 ③ 지역정보 신문을 통해
- ④ 옥외광고를 통해
- ⑤ 학교를 통해
- ⑥ 컴퓨터 통신을 통해
- ⑦ 청소년 단체를 통해
- ⑧ 직접 찾아갔다
- ⑨ 스스로 만들었다(자영업)
- ⑩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23.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취업정보와 취업경로를 알 수 없었다
- ② 미성년자여서 취업할 곳이 없었다
- ③ 원하는 일자리가 없었다
- ④ 보수와 근무조건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 ⑤ 부모님 몰래 했거나, 부모님의 반대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24. 일을 하면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나 어려운 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 ②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다
- ③ 주인이나 상사로부터 폭력이나 폭언을 당하였다
- ④ 성희롱·성폭력을 당하였다
- ⑤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은 올려주지 않았다
- ⑥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 ⑦ 별 어려움이 없었다
-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25. 위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 ① 고발하고 싶었으나 어떤 기관을 찾아가야 할지 몰라서 못하였다
- ②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참고 일하였다
- ③ 주인이나 상사에게 항의하였다
- ④ 스스로 일을 중단하였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32. 청소년 상담시설이나 수련시설, 복지관, 또는 청소년 단체 등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받고 싶었으나 어디서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몰라 받지 못했다  
③ 상담 받을 일이나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33. (전문상담을 받은 응답자만 대답) 상담을 받은 후,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③ 도움이 되지 않았다
34. 고민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 ① 매우 받고 싶다      ② 조금 받고 싶다      ③ 받고 싶지 않다
35. (상담을 받고 싶은 응답자만 대답) 상담을 받을 경우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 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한다      ② 전화상담을 한다  
③ 컴퓨터 통신상담을 한다      ④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36. 가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7. 가출을 실제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3번으로 가십시오)
38. (가출한 적이 있는 사람만 대답) 처음으로 가출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 ① 초등학교 (    )학년      ② 중학교 (    )학년      ③ 고등학교 (    )학년
39. 지금까지 몇회나 가출을 하였습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이상

40. 가출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나 형제와의 가정불화로      ② 부모나 형제의 구타와 폭력으로
- ③ 공부나 학교 가기가 싫어서      ④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
- ⑤ 친구가 권유해서      ⑥ 이성문제 때문에
- ⑦ 돈을 벌고 싶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41. 가출해 있는 동안 어디서 지냈습니까?

- ①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② 친구나 선후배의 집
- ③ 직장에서      ④ 여관 등의 숙박업소
- ⑤ 공원이나 지하철 역 등 거리에서
-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42. 가출청소년에게 몇 일 또는 몇 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주는 청소년 쉼터라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르고 있다
- ②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장소나 접촉방법은 모른다
- ③ 장소나 접촉방법을 잘 알고 있다

43. 평소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자주 걱정한다      ② 가끔 걱정한다      ③ 걱정하지 않는다

44.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5.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는데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6. 학교를 다니거나 밖에서 활동하는 중에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자주 걱정한다      ② 가끔 걱정한다      ③ 걱정하지 않는다.









시정연 2000-R-21

## 서울시 청소년 중·장기 정책연구

---

발행인 권원용

발행일 2000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4-5

전화: (02)726-1164 팩스: (02)726-1293

---

ISBN 89-8052-216-9-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